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한강공원의 형성과
이용행태의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박 상 희

초 록

공원은 사회적공간이다. 공원은 박제되어 있지 않으며, 조성된 이후에도 이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그 의미가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공원의 물리적 형태와 그 안에서의 이용행태는 권력을 가진 상위주체에 의해서 사회적 상황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 양식, 여가의 유행, 문화적 관심사 등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주체적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강공원의 이용행태의 성격이 타 도시공원과 뚜렷이 구별되며 그 다양성의 폭 또한 독자적 규모를 갖는 것에 의문을 갖는 데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이용행태의 차이를 현재의 정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이용행태의 축적과 정착에 의한 '문화의 차이'로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어떻게, 왜 다른지를 통시적 분석을 통해 '인과 관계'와 '변화의 축적'의 관점으로 탐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한강공원은 공원의 조성·관리 주체와 이용자, 양자의 강한 영향 하에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한강공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와 관리기관의 의도는 동시대 사회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매번 상이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철저하게 그에 의거해 운영, 관리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은 이용자로부터도 강한 영향을 받아 왔는데, 사회적 관심사나 문화적 유행에 반응한 이용행태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었다. 이는 공원 내 직·간접적 갈등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물리적·비물리적 갈등을 거듭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구 또는 행태를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절충하려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공원이 아닌 강과 공원의 결합체로서 인식되는 한강 즉 한강공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강공원은 둔치, 육지에 조성된 공원이지만 본질적으로 한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강공원은 한강의 성질을 포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강이 갖는 지리적 중요성과 여러 상징성으로 인해 한강공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현의 수단이자 장이 되어 버렸다. 또, 도시에 둘러싸여 통제되는 공원이 아닌 광활하고 자유로운 강변에서

사람들은 한강공원을 자유로운 행락활동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인식하였다.

공원의 이용행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천천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본 연구는 이용행태 형성의 과정에 주목하여 사회적 관점으로 한강공원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용행태를 현재 시점으로 국한하여 포착한 장면이나 기록들을 통해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특별함을 비약적으로 귀납하지 않고, '갈등'과 '조정'의 반복적인 교차 축적이라는 독특한 과정에서부터 특별하게 형성되어 올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강공원은 공원으로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공원일 것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공원내 활동에 물리적 제약이 적고, 유원지(遊園地)적 이미지로 이용자들의 심리적 경직성을 해제시키며, 제도적 유연성이 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강공원을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어 : 한강공원, 이용행태, 공원문화, 사회적 공간, 갈등과 조정, 변화의 축적

학 번 : 2016-24085

목 차

제 1 장 서 론 0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4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06
1. 이용행태 연구 사례 0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09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0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0
2. 연구의 범위 13

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자료 15
제 1 절 연구 및 조사 방법 15
1. 연구의 방법 15
2. 자료 조사의 방법과 내용 15
제 2 절 연구의 자료 18
1. 문헌조사 18
2. 현장조사 21

제 3 장 한강공원의 형성 24
제 1 절 한강종합개발과 한강공원의 조성 24
1. 개발 이전의 한강 24
2. 한강공원의 탄생 배경과 조성 목적 25
3. 한강공원의 현황 30
제 2 절 상위주체에 의한 공원의 변화 33
1. 한강 관리계획의 흐름 33
2. 시간에 따른 한강공원의 공간과 운영 변화 38
제 3 절 소결 57

제 4 장 공원 이용 방식의 정착 과정 59
제 1 절 순응적 이용행태 59
1. 산책 · 휴식 66
2. 운동 · 체육 73
3. 관람 · 구경 79
4. 수상활동 83
제 2 절 주체적 이용행태와 공간 · 규범의 충돌 88
1. 무질서와 비행 88
2. 야영 91

3. 취사 · 식음 95
4. 다양한 탈것의 등장 101
제 3 절 갈등을 통한 한강공원의 변화 104
1. 운영 · 관리의 변화 104
2. 공간 · 시설의 변화 108
제 4 절 소결 122

제 5 장 결 론 129

인터뷰 135

인용 문헌 141

Abstract 147

표 목차

[표 1-1] 공간적 관점에서의 공원 연구 사례.....08
[표 2-1] 조사 방법과 내용.....16
[표 2-2] 한강 개발·관리 관련 정부·기관 발행 1차 문헌의 목록 19
[표 2-3] 그 외의 문헌 목록.....20
[표 2-4] 현장 답사 일지.....21
[표 2-5] 관찰 항목.....22
[표 2-6] 대화 채록 및 인터뷰 일지.....23
[표 3-1] 최근 5년간 한강시민공원 방문객 수.....32
[표 3-2] 한강 관리계획의 흐름과 주요 내용.....33
[표 3-3] 계획 단계에서 한강공원의 유형에 따른 분류.....41
[표 3-4] 지구 별 공간구성.....42
[표 4-1]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묘사한 보도자료 목록.....61
[표 4-2] 피크닉 장소로서 한강.....71
[표 4-3] 매체에 나타난 체육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73
[표 4-4] 거리공연 발생 장소.....82
[표 4-5] 낚시터로서의 한강공원.....85
[표 4-6] 수상여가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86
[표 4-7] 무질서한 한강공원에 대한 보도자료 목록.....89
[표 4-8] 야간 피서 행태에 관한 보도자료 목록.....93

그림 목차

[그림 1-1] 공원의 이용과 변화 흐름도 10
[그림 1-2] 공원 변화의 두 가지 경로.....11
[그림 3-1] 한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좌, 1963년)과 낚시하는 모습(우, 1975년).....25
[그림 3-2] 서울시 공원녹지체계 분석도 27
[그림 3-3] 토지이용기능배분도.....28
[그림 3-4] 남산과 함께 서울의 상징경관인 '한강' 30
[그림 3-5] 한강시민공원 현황도 31
[그림 3-6]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의 주요 내용.....36
[그림 3-7]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8
[그림 3-8] 고수부지 공원의 기능 및 성격 40
[그림 3-9] 잠실지구의 투척장과 육상경기장.....43
[그림 3-10] 광나루지구의 수상스키 시설과 모래사장.....44
[그림 3-11] 여의도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 45
[그림 3-12] 반포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46
[그림 3-13] 반포한강공원 (1986).....47
[그림 3-14] 뚝섬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48
[그림 3-15] 한강시민공원이 있기 전 뚝섬수영장 (1963).....48
[그림 3-16] 한강공원 운영의 흐름.....50
[그림 3-17] 청보리밭(좌)과 메밀꽃밭(우).....51
[그림 3-18] 1991년의 주요업무(좌)와 1998년의 다섯 가지 주요업무 중 공원질서유지 관련 항목(우) 52
[그림 3-19] 잠실 국제공모 포스터(좌)와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우) 55
[그림 3-20] 한강 여의나루 국제설계공모 포스터 56
[그림 4-1] 한강시민공원 시설 안내(1995) 63
[그림 4-2] 한강 7경 10걸 63
[그림 4-3] 1980년대 후반 시민들의 산책 및 휴식 모습.....66
[그림 4-4] 오늘날 한강공원의 산책 및 휴식 모습 66
[그림 4-5] 한강이 바라보이는 방향과 위치를 차지한 이용객들.....68
[그림 4-6]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1990).....69
[그림 4-7] 1988년(좌)과 1992년(우)의 소풍 모습 70
[그림 4-8] 직접 싸 온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72
[그림 4-9] 다양한 형태의 피크닉.....73
[그림 4-10] 한강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는 모습(좌: 1989년, 우: 1987년).....76
[그림 4-11]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모습(1987).....75
[그림 4-12] 전문 장비를 갖춘 자전거 동호인들 77
[그림 4-13] 가볍게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77

[그림 4-14]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78
[그림 4-15] 농구를 하는 성인 2명.....78
[그림 4-16] 야간에 조깅을 하는 중년 남성.....78
[그림 4-17] 자전거와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78
[그림 4-18] 1988년 설치된 여의도한강공원의 야외무대(좌)와 이용 모습(우).....80
[그림 4-19] 가설무대 공연과 관객들.....82
[그림 4-20] 거리공연과 행인들.....82
[그림 4-21] 수상이용계획도(1986).....83
[그림 4-22] 한강공원의 수상 여가를 소개하는 신문 보도(1990)..84
[그림 4-23] 자전거와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84
[그림 4-24] 윈드서핑(좌)과 수상스키(우)를 즐기는 시민들.....86
[그림 4-25] 보트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1989).....87
[그림 4-26] 야간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88
[그림 4-27] 한강공원에서 밤을 지새는 시민들의 모습(1994).....93
[그림 4-28] 야영 이용객.....94
[그림 4-29] 야영 금지 시간의 야영 이용객들.....95
[그림 4-30] 한강변의 배달 문화를 반영한 신문 광고(1999).....98
[그림 4-31] 노점으로 가득한 여의도 한강변(1989).....99
[그림 4-32]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시민들.....101
[그림 4-33] 다양한 탈것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인 모습.....103
[그림 4-34] 금지행위 안내판과 그늘막 설치 안내.....104
[그림 4-35]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이용한 야영 모습.....105
[그림 4-36]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 포스터.....108
[그림 4-37] 자전거도로라 불리던 당시의 콘크리트 도로.....109
[그림 4-38]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혼재.....109
[그림 4-39] 방치된 자전거도로(1994).....110
[그림 4-40]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다양한 구분 또는 분리 방식112
[그림 4-41] 야간의 LED 표지판.....112
[그림 4-42] 횡단보도와 안내등.....112
[그림 4-43]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내판.....113
[그림 4-44] 나무 한 그루 없는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좌), 잠실지구(우).....116
[그림 4-45] 둔치 식재 계획.....117
[그림 4-46] 여의도지구(위)와 뚝섬지구(아래)의 음식배달 지원시설 현황도.....118
[그림 4-47] 보행환경이 열악한 진입로(1999).....120
[그림 4-48] 1986년 - 1998년의 한강공원.....124
[그림 4-49] 1999년 - 2006년의 한강공원.....125
[그림 4-50] 2007년 - 2013년의 한강공원.....127
[그림 4-51] 2014년 이후의 한강공원.....1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공원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공간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 요소 중 하나인 공원은 시민들의 보건과 위생이라는 기본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관과 아름다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오늘날, 공원 도입 초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설들이 공원시설로 분류되며, 교육·문화·생태 등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공원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원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원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 지금은 공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원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원에 대한 이해는 그 물리적 요소나 성질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문으로는 '公園' 으로 표기되는 공원은 공공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장소이며 '이용' 이 공원의 효용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원의 조성, 즉 물리적인 완성이 곧 공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용' 을 통해 공원의 가치는 비로소 완전해 진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좋은 시설이 높은 활용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듯, 공원에 대한 이해는 형태와 구조, 공원내 시설, 주변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非)물리적 요소 또한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은 수동적이지 않다. "(사회적)공간은 (사회적)산물이다." (Lefebvre, 2011: 77) [1] 도시공간은 수동적으로 조성되고 그 후 정태

[1] 모든 공간은 그 공간이 속한 사회와 매우 강력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이전까지 공간은 시간과 대조되는, 생명력 없는 정지된 개념으로서 사회가 투영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론이었다. 그러

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하는 주체들과 상호 반응한다. 도시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와 공간이 합류하는 사회적인 공간”이자 “집합적인 소비단위”가 형성되는 장소로, 복잡하고 우발적인 방식으로 복수의 주체들의 행위와 실행들이 작용하는 곳이다(김왕배, 2000).

공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은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공원의 형태나 그 안에서의 이용행태는 권력을 가진 상위주체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이면에서는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2] 즉,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법제적으로 실행시키는 힘은 정부나 관리기관에 있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근원으로서 실질적 동인은 사회적 태도나 생활 양식, 여가 패턴 등에 기반한, 이용자들의 행동인 것이다. 한 공원이 다른 형태의 공원으로 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사회적 태도, 생활 양식 등이 반영된 변증법적 원리에 의한 것이다 (최정민, 2006: 55).

그러므로 공원은 정체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규정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순응적 공간 이용 방식이 아닌, 예측 가능한 공간 이용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이용자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이용행태를 ‘전유(appropriation)[3]’ 라고 할 때, 이것은 공원에 부여된 의미, 기대되는 행위와 지속적인 힘겨루기를 통해 공원의 의미와 쓰임새를 변화시킨다. 자발적인 이용행태의 축적과 반복에 의해 공원의 의미는 변화하는 것이다.[4]

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비로소 공간에 대한 인식은 ‘수동적’ 공간에서 ‘능동적’ 공간으로 이행하였다.

[2] 즉, 도시공공공간의 하나로서 공원에는 국가나 지배 집단에 의해 특정한 의미와 쓰임새가 부여되고 그 안에서의 행위 또한 통제되지만, 그와 동시에 전혀 다른 의미와 쓰임새로 그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이강원, 2004: 3).

[3] 전유(專有)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이다 ("전유", 날짜 정보 없음). 공간에 대입하면 전유는 ‘공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상상과 실천으로 인한 공간 활용과 공간 생산을 의미’ 한다 (윤지환, 2011: 252).

[4] 이 문장은 로우(Low)가 제시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 중, 공간의 사회적 구성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의 다양한 반복적 활동을 통해 공간의 경험과 의미가 형성된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과정을 통해 공간의 경험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공원의 공간적 형태와 구성이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을 낳지만, 이용자들의 다양한 일상적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갖는 의미는, 여기에 동시대 사회·문화적 관심사가 녹아 있으며 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갈등의 조정과 새로운 태도의 수용,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화 등과 같은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조경진, 2007: 52-53)는 데에 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생각은 변해 왔고, 공원의 운영, 이용방식, 공원문화는 이러한 동시대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하면서 변모해 왔다. 공원 이용 방식의 변화 양상이라 함은 공원의 물리적 요소—공간의 구성과 형태—와 비물리적 요소—운영·관리와 규범—와의 갈등과 경합을 통해 그 방식이 정착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과거 공원의 단편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정태적 이용행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공원의 변화, 그리고 이용행태의 정착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용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공원의 변화를 이끌어온 주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음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이용행태의 축적과 반복에 의해 변화해 온 공원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공원 이용행태 연구에서 이용자들의 인구 특성과 방문 유형, 만족도를 조사한 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공원 이용과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원의 성격과 이용 양상은 현대에 이르러 점점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공원의 이용행태를 관찰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의 한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원 이용 방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원이 사회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물이며,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힘겨루기를 통해 공원의 의미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이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공원 설계 또한 가능해지며(조경진, 2007: 35), 효과적면서도 전략적으로 공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될 공원으로 서울 한강시민공원을 설정하였다. 한강공원은 이용 방식의 측면에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등의 타 도시공원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띤다.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실천, 즉 '공원문화' 가 다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원의 또 다른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박영민·김남주, 2001: 473).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이 특별한 여가를 위해 즐겨 찾는 목적형 공원인 한강공원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적 실천과 함께 비일상(非日常)적 행태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이용자의 주체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공간으로, 일반적인 근린형(近隣型) 공원에 비해 다채로운 공원 이용행태가 발견된다. 분명히 한강공원에는 다른 도시공원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강공원만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한강은 격동하는 근현대 서울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왔으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 도시 속 여가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도시 내에서 한강이 차지하는 위상 덕택에, 한강공원은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조를 내세운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공모가 개최되거나 대대적인 물리적 변화를 여럿 겪는 등 계속해서 지방정부 및 정치인들의 실험의 장과 같은 곳이었다. 이 또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다른 한강공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며, 이는 필히 한강공원의 공원문화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듯 한강공원은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면서 꾸준히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한강공원만의 이용 방식이 만들어낸 공원문화이다. 그 이용 방식이 기존의 물리적 공간 및 공원 규범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강공원만의 이용 특성을 밝히고, 갈등 과정을 거쳐 축적되면서 형성한 공원문화가 정착하기까지 밟아 온 궤적, 그리고 그를 통해 형성된 한강공원의 의미를 밝히고자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강공원의 물리적 특징과 문화적 속성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이 여타 도시공원과 구별됨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그 구별되는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되 이것은 현 시점의 정태적인 특성이 아니라 과거부터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과 공원을 대하는 태도가 축적되어 온 결과물, 즉 '공원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강공원 공원문화 형성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낸 주체적 이용행태이며, 이것이 공원의 물리적 형태 또는 운영 · 관리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며 점진적으로 공원의 변화

를 야기했다고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및 상호 영향 관계를 통해 현재 한강공원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대한 담론의 한 관점으로서 '공원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이용행태 연구 사례

지금까지 국내 도시공원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문창현, 2001; 임란희, 2001; 전영임, 2004; 김현장, 2009; 이호석, 2009; 강나연, 2010; 김수봉 · 김현장 · 이춘우, 2012; 송지연, 2014).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용행태'는 연령, 접근수단, 체류시간, 방문목적 등 방문자의 일반적 이용특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한 자료에 의존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편, '이용행태'를 '공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의 의미로 사용한 연구로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관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행태지도를 작성(Behavior Mapping)한 연구들이 있었다. 김효경 (2010)은 서울숲의 공간을 세분하고 행태를 관찰, 도면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숲 이용 방식을 유형화하고 행태 별 선호 공간 및 시설을 분석하였다. 송지연 (2014)은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공원의 유형에 따라 공원 이용자의 동선, 이용시설 등 행태 특성이 다름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 이정섭 (2014)은 여의도한강공원을 대상으로 피크닉이라는 특정 행위에 주목하여 그 행태 특성을 관찰,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 장소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한강시민공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전영임, 2004; 최정우, 2008; 송지연, 2014; 이정섭, 2014). 전영임 (2004)과 최정우 (2008)는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영임은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밝혔다. 최정우는 1996년과 2006년의 한강공원 이용자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접근성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향상되었으나 시설부문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송지연과 이정섭은 마찬가지로 이용행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의존한, 이용특성 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제 공원 이용 방식을 비참여관찰에 의한 행태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송지연은 한강시민공원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한강공원의 이용자 특성과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한강시민공원이 초기 조성 의도와는 달리 생활권 공원으로 활발히 기능하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이용자 특성과 이용행태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정섭은 여의도한강공원의 피크닉 활동에 주목하여 그 행태 특성을 맵핑하고 분석하여 그 장소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공원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공원의 조성 후 이용만족도 평가나 단편적인 이용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공원문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조경진 (2007)은 사회구성원들의 특성, 생활양식, 기후 등에 따라 사회마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원 이용 방식을 '공원문화'라는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담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정은 (2017)은 근대기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공간인 유원지 중 세 곳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각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물리적 변화, 그리고 이용 방식과 문화경관을 아우르는 문화적 특성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원의 이용행태를 '문화'로 확장시켜 보려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조경 외 분야에서는 문화사의 일부로서 공공공간을 분석한 연구로 황기원 (2009)의 연구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비단 공원에만 장소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행락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옥외공간과 그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이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공원이 지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속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공원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한승백, 2006; 이수연, 2009; 이혜민, 2010; 조주연, 2011; 박윤미, 2012; 정유선, 2013; 김현지, 2015). 이수연 (2009), 이혜민 (2010), 김현지 (2015)는 공원의 변화과정을 사회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는데, 공간 실천으로서 공원의 이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보다는 공원의 사회적 생산에 더 치중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들의 연구는 공원의 물리적인 변화과정을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보아 그 변화가 발생한 사회적 요인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윤미 (2012)와 정유선 (2013)은 공원의 이용 양상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한승백 (2006)은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강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표 1-1] 공간적 관점에서의 공원 연구 사례

연구자 (연도)	연구명	관점 및 내용
한승백 (2006)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한강시민공원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한강공원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이수연 (2009)	남산 내 공원의 시대적 변화 분석을 통한 공원활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	남산공원의 정치적 생산과 그에 따른 시설 및 이용의 변화
이혜민 (2010)	도시공원의 변모과정에 대한 공간정치적 해석: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조성과 변모에 작용한 공간정치적 요인들과 이들의 상호작용
박윤미 (2012)	선유도공원의 공간 소비 양상과 변화 연구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본 선유도공원의 공간 생산, 소비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정유선 (2013)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서울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공원 이용의 문화적 현상과 그 형성요인
김현지 (2015)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과 의미 해석	용두산공원의 사회적 생산, 남겨진 시간층위와 그 의미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이용행태와 구별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이용행태를 개별적,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각각이 합쳐지고 축적되어 한강공원 고유의 '공원문화'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원문화가 구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용객들의 이용 방식이 기존 규범과의 끊임없는 충돌을 거치며 정착하게 된 것 또한 한강공원만의 특징으로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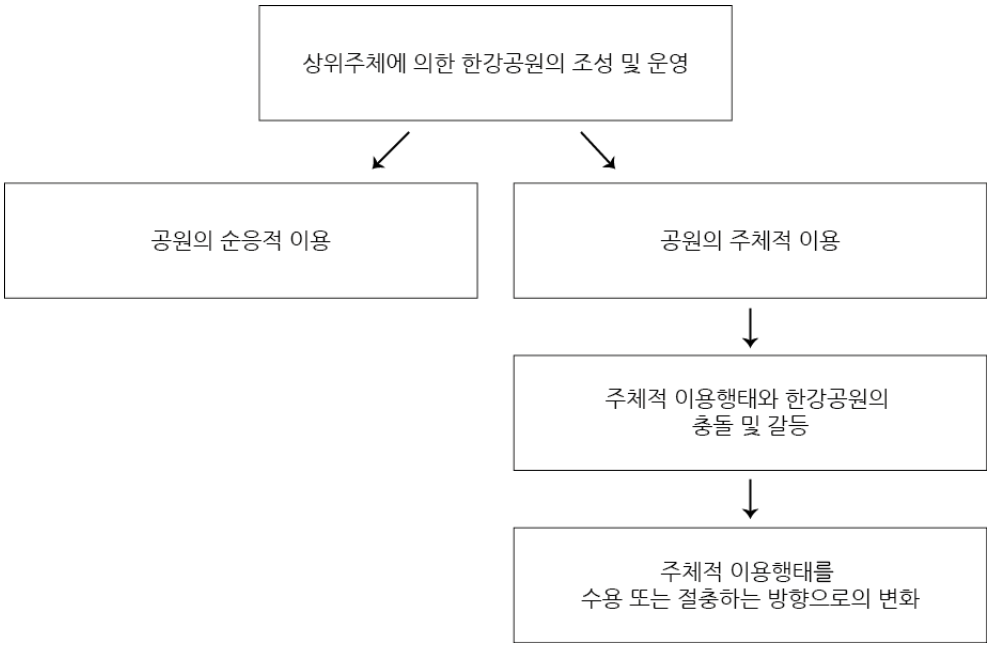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한강공원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찾아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에 미친 영향, 이것이 반복되고 기존 사회·문화적 규범과의 충돌 및 갈등을 거치며 축적되어 형성하게 된 한강공원만의 공원문화,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한강공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점에서의 공원 이용행태의 단편만을 파악하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한강공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행태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그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통시적 분석을 통해 한강공원의 물리적, 문화적 변화과정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한강공원 이용 방식, 즉 공원문화의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나타나는 한강공원의 행태를 시간의 층위가 누적됨에 따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정착되어 온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 맥락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현재 나타나는 한강공원 이용 방식의 형성 배경 또는 과정—이것은 '순응적 이용 방식'과, 전유의 성격을 띠는 '주체적 이용 방식'이 정착하는 과정, 두 가지를 포함한다—을 분석하여 현재의 한강공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하향식 관점과 상향식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주체에 의한 한강공원의 조성 및 운영, 공원의 순응적 이용, 주체적 이용행태의 발생, 주체적 이용행태와 한강공원—물리적인 실제의 공간 또는 비물리적인 운영·관리방식—의 충돌 및 갈등, 이용행태를 수용 또는 절충하는 방향으로의 한강공원의 변화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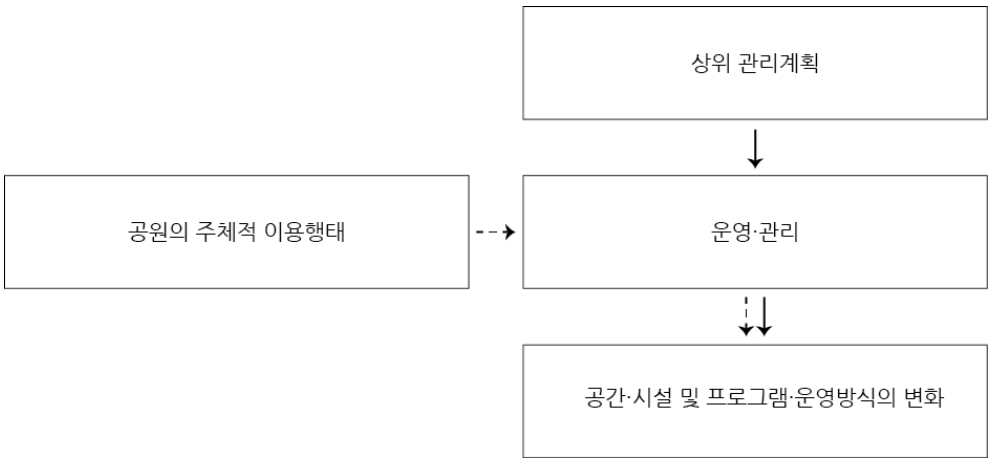


[그림 1-1] 공원의 이용과 변화 흐름도

이해하고자 하였다(그림 1-1).[5)]

먼저, 국가나 계획가, 관리기관 등의 상위주체에 의한 공간의 조성과 운영·관리가 예측 가능한 보편적 공원이용행태를 발생시킨다는 하향식 관점에서 공원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한강공원 개발·관리계획의 흐름을 따라 한강공원 개발·관리의 기조와 운영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제의 물리적인 공간은 이러한 상위 계획 및 제도 하에 형성되거나 변화한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공간의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간으로 인해 발생한 순응적이고 보편적인 공원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편, 이용자의 주체적인 공원 이용 방식이 거꾸로 공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향식 관계의 양태는 공원의 제도적 변화로 나타날 수도,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리 한강공원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이용문화는 기존의 공원과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그 이용행태는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전유가 초래한 한강공원의 운영·관리 방침 및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1-2] 공원 변화의 두 가지 경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장 이래 한강공원이 어떻게 여가공간으

5) '이용'은 '물리적 공간'의 내에서 벌어지므로 공간의 구성과 이용 방식은 필연적 연관성을 지닌다. 공간의 신설, 확장, 축소, 시설물의 추가 설치 또는 제거 등 공간의 변화는 이용 방식의 형성 및 정착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다.

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상위 주체에 의해 부여된 의미와 규정된 쓰임새를 따라 발생한 공원 이용 방식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욕구와 편의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전유적인 이용 방식에 의해 발생한 공원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강공원이 갖는 사회 ·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히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기존의 이용 행태 연구와 달리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눈 뒤 조사할 문헌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는 다시 인터뷰와 관찰로 나누어 그 방식과 대상을 상술하였다.

3장에서는 상위 주체에 의한 한강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먼저 공원 조성 이전, 조성 당시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거 자연하천 시기의 한강의 역할, 한강공원의 탄생 배경, 그리고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상위 주체에 의해 한강공원에 부여된 의미와 쓰임새, 지향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와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상위 권력에 의해 결정된 공원의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공원 이용자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 동시대 한강공원과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공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및 결과에 주목하였다. 즉, 공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욕구에 의한 전유적인 이용 방식이 기존의 공간 구성 또는 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한강공원의 모습을 생산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한강공원 조성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 이용 양상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용자의 주체적 이용 방식이 어떻게 한강공원의 물리적, 제도적 변화의 주축을 이루었는지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대상은 한강시민공원이다. 한강공원은 도시민의 삶과 문화가 끊임없이 축적되고 생성되는 수변 도심공원으로서, 고유의 장소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이다.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서 한강은 휴식과 운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서 다양한 볼거리와 레저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조성된 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여타 도시공원과는 달리 한강공원은 30여년 간의 끊임없는 변화를 거치며 개장 초기와는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한강공원은 정부의 끝없는 계획과 실행이 반복되는 실험의 장이었으며, 인기 있는 목적형 여가공간으로서 비일상적 행태와 자발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한강공원은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태가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도시 공원이기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제 2차 한강종합개발로 둔치[6] 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한강'이 '한강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의 공공 여가공간으로 기능하던 한강이 여가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공원화(公園化)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때이며,[7] 1986년 시민공원이 완공된 후에는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조성 당시의 지구별 계획을 보면, 여의도지구와 반포지구, 뚝섬지구는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공원으로 타 지구와 구별되며 그 외의 지구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에 현장관찰 대상의 범위로 여의도와 반포, 뚝섬지구와 함께 반포지구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잠원지구, 그 외에 주거지와 인접해 있으면서 이용객의 수가 많은 이촌과 잠실지구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유일하게 도시적 맥락

---

[6] 한강종합개발 당시에는 '고수부지(高水敷地)'라는 단어가 통용되었고 공식문서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이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둔치'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어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한 '둔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7]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도시 내 공공공간의 부족으로 한강은 서울시내 몇 안 되는 여가공간 중 하나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162).

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곳으로, 주변 지역의 용도가 다양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강해 인근 지역을 비롯한 서울 전역,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목적형 공원의 성격을 띤다 (송지연 & 박진아, 2013). 반포와 잠원한강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근린생활권 공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전거 이용객들이 특징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다 (송지연, 2014). 이촌과 잠실한강공원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공원이지만 집객력이 우수한 편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 특화지구라는 특성을 지닌다.

제 2 장 연구의 방법과 자료

제 1 절 연구 및 조사 방법

1.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사실의 조사와 기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조사는 다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뉜다.

3장에서는 사실 조사와 기술이 주를 이루며,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경향성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특히 2절의 경우에는 공원 관리업무의 일차적인 기록을 분석하여, 개별 요소가 하나의 집성체를 이루어 형성하는 구분되는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또, 실질적이고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공원의 변화를 위해 논의된 바 있는 설계공모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동시대 한강공원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4장은 사실 조사 및 기술에 해석이 더해진 장이다. 1절에서는 이용행태를 순응적 이용행태와 주체적 이용행태의 두 부류로 구분하며, 이용행태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그로부터 당시 한강공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동시대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2절과 3절은 앞서 조사한 정보들을 한 데 놓고 요소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용행태가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였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1절에서 수집한 이용행태 관련 사실들과, 한강공원에서 벌어진 변화에 관련된 사실들을 놓고 각각의 연관성과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자료 조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크게 한강공원의 조성에 관한 내용, 공간 및 시설의 구성에 관한 내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강공원의 역사와 이용문화, 운영을 아우르는 정보를 얻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문헌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었다. 공통적으로 과거 인쇄매체 및 영상매체를 통해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관문헌이나 연구자료만으로 부족

한 정보를 보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공원의 공간이나 운영, 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할 때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2-1]는 이와 같은 조사 방법 및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1] 조사 방법과 내용

분류		자료 유형	조사 내용	분석 내용
문헌 조사		신문, 잡지	· 행태의 기록 · 한강공원에 대한 사회적 반응 또는 분위기 · 주요 정책이나 운영·관리 방침의 시행, 공간 변화 등의 주요 사건	조성, 공간, 운영, 이용
		뉴스, 방송		
		정부·기관 문서	· 운영·관리 방침 및 제도 관련 변경 내용과 절차 · 주요 한강관리계획의 내용	조성, 공간, 운영
		연구자료	· 이용행태 · 과거 한강공원의 이슈	조성, 공간, 이용
		도면	· 조성 당시 공간구성 · 변화 시점의 공간구성	조성, 공간
		사진	· 행태의 기록	이용
현장 조사	인터뷰	이용자	· 과거와 현재의 이용행태 및 공간구성 · 이용행태 및 공간구성 변화	공간, 이용
	관찰	시민	· 이용행태	이용

한강공원의 조성에 관하여서는 그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인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의 배경, 목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부·기관 문서를 주로 연구의 자료로 삼았다. 이 때 도면 자료를 함께 확보하여 당시 공원의 실제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성 이후의 공간 및 시설 구성 또는 변화에 관한 내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운영관리 방침 및 구체적 업무 내용이 담긴 기관 문헌이 주요한 자료의 원천이 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용행태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 뉴스나 방송 등 매체 기록을

통한 조사와 인터뷰, 현장 관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과거의 이용행태의 경우 매체 기록이 가장 주요한 자료의 원천이 되었는데, 당시 이용행태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공원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과거와 오늘날 한강공원의 풍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동시대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관찰이 가능하므로 연구자의 현장 답사를 통해 이용행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자료

1. 문헌조사

공원의 조성 과정과 그 이후 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강공원의 조성계획과 그 이후 수립된 다수의 관리계획의 내용, 그것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그간의 운영 · 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공간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주로 1차문헌을 조사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고, 부수적인 자료로 2차문헌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각각의 개발 ·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관련 도면을 확보하였고, 이를 재정리한 2차 문헌인 『한강관리사』를 참고하였다. 특히 도면은 텍스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상세한 공간정보에 대한 양질의 원천이 되었다. 둘째로 한강공원 관련 주요 정책 및 운영 · 관리 업무와 그 절차,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행정자료—내부 보고자료, 계획서, 회의록 등—와 한강사업본부에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한강소식'을 집중분석하였다. 특히,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연도별 정책방향(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사업) 추진계획, 현안 업무에 대해 압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한강공원 백서' 역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현황, 한강공원 이용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한강공원이 조성된 이후 공모를 통해 특수한 배경이나 목적을 갖고 공원의 설계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공모의 설계 지침서 등을 검토하였다.

공원이용 방식의 상향식 형성 및 정착 과정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한강공원의 이용행태에 대한 묘사나 시민들의 반응이 담긴 보도자료와 칼럼, 대담, 사진 등의 기록매체를 주요하게 고찰함으로써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용행태가 겪은 갈등과 정착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양한 과거 이용행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풍속이 투영된 신문과 잡지의 기사, 한강공원의 풍경이 묘사된 문학이나 그림, 영화, 대중가요 등의 작품,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원에서의 활동이 공원과 물리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충돌하였는지 보도자료와 내부 문건, 기 연구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2-2] 한강 개발·관리 관련 정부·기관 발행 1차 문헌의 목록

종류	제목	저자/발행처	비고
문서	한강연안종합정비계획(1986)	서울특별시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보고서(1983)		
	'85 한강 고수부지 공원조성 공사 시행계획(안)(1986)	종합건설본부	
	한강 수상 이용 계획 추진(1986)	미상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199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
	한강 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 기본구상(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2000)	서울특별시 한강사업기획단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2003)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8]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200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한강르네상스 계획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2013)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2015)	서울특별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1991년-2017년
	한강공원 백서		2014년-2016년
	한강소식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도면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설계도(1983)	서울특별시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한강종합개발 실시설계도(1986)	서울특별시	

[8] 1986년 9월 1일 한강종합개발의 완료와 함께 개청한 한강관리사업소는 2003년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한강사업본부'로 승격되었다 (한강사업본부, 2017).

[표 2-3] 그 외의 문헌 목록

종류	제목	저자/발행처	비고
신문, 잡지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9]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월간 2000년	현대사회연구소	
	월간 체육	대한체육회	
			인터넷 기사검색
뉴스, 방송	e영상역사관 대한뉴스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분야별기록영상	한국정책방송원	
	소셜방송 라이브 서울	서울특별시	
			인터넷 뉴스검색
정부·기관 자료	한강관리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연구자료			한강 소재 연구
사진	e영상역사관 국가기록사진	한국정책방송원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특별시	photoarchives.seoul.go.kr
			기록매체에 실린 사진

[9] 네이버(NAVER)가 옛날 신문을 스캔하고 디지털화하여 검색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사를 다룬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와 그 기간은 동아일보 1920년 이후, 경향신문 1946년 이후, 매일경제 1966년 이후, 한겨레 1988년 이후이다.

2. 현장조사

문헌조사만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현장감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찰의 방식을 통해 연구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용자들의 공원 이용행태를 관찰하고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매회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행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대화를 채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2-4]는 현장 답사 일시와 간략한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답사는 9월부터 5월까지 총 14회 실시하였으며, 주로 가을철과 봄철에 집중되어 있다. 회당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공원에 머무르며 이용자들의 분포와 이용행태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대화 채록,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요일은 평일과 주말, 시간대는 일출 이후의 오전과 일몰 전의 오후, 일몰 후의 저녁을 구분하여 고루 방문하였다.

[표 2-4] 현장 답사 일지

답사 일자	요일특성 및 시간대	답사지	사진 기록	현장 인터뷰	대화 채록
2017.09.23	주말, 낮/저녁	뚝섬한강공원	O	X	X
2017.09.29	평일, 아침/낮	반포한강공원	O	O	X
	평일, 낮	잠원한강공원	O	X	X
2017.10.11	평일, 낮	여의도한강공원	O	O	X
2017.12.31	주말, 저녁	여의도한강공원	O	O	X
2017.01.00	평일, 아침/낮	여의도한강공원	O	O	X
2018.03.17	주말, 낮	반포한강공원	O	X	X
	주말, 저녁	잠원한강공원	O	O	X
2018.03.30	평일, 저녁	잠원한강공원	O	O	X
2018.04.03	평일, 아침/낮	반포한강공원	O	X	O
2018.04.07	주말, 저녁	여의도한강공원	O	X	X
2018.04.09	평일, 아침/낮	이촌한강공원	O	X	X
2018.05.12	주말, 낮	잠실한강공원	O	X	X
2018.05.26	주말, 낮/저녁	반포한강공원	O	X	X

1) 관찰

모든 답사는 관찰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관찰을 통해 현 시점에서 한강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원 이용행태의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관찰의 방법으로는 현장의 외부에서 연구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과, 현장 속에서 관찰자임을 드러내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또,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행위자들이 연구자를 '관찰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행인 또는 행위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관찰을 수행할 수도 있다(임승빈 · 주신하, 2010: 130).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는데, 주로 휴식이나 걷기와 같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공원 이용자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이용자들 중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존재를 드러내고 관찰을 수행하였다.

관찰 항목으로는 공원 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행태, 동반 유형, 이용 시설, 방문 목적을 암시하는 소지품 등을 통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2-5).

[표 2-5] 관찰 항목

관찰 항목	예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조깅, 산책, 피크닉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	큰 나무, 벤치, 잔디밭, 코트, 자전거도로
동반 유형은 어떠한가?	혼자, 연인, 가족
공원 방문 목적이 드러나는 소지품을 지참하였는가?	자전거, 돗자리, 카메라, 도시락

2) 대화 채록 및 인터뷰

한강공원 이용자들의 대화를 채록하고 이로부터 공원의 이용 방식이나 빈도 등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화 채록 시에는 연구자가 행인 또는 공원 이용자처럼 보이도록 행동하여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진실된 대화를 기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시 제보자가 무의식적으로 상식에서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빈도와 방문 이유, 자주 이용하는 지구,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특히 한강공원 인근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였거나 혹은 근처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한강공원을 이용해 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질문하고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인터뷰의 초점은 주로 장기간 한강공원을 애용해 오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추어졌다.

[표 2-6] 대화 채록 및 인터뷰 일지

날짜	답사지	제보자	나이	성별	이용기간	사례 번호
2017.09.29	반포한강공원	이○○	30	남	10년	3
2017.10.11	여의도한강공원	정○○	30	남	8년	2
2017.12.31	여의도한강공원	김○○/윤○○	35/31	남/여	연 평균 4회	7
2018.03.17	잠원한강공원	이○○	28	여		4
2018.03.30	잠원한강공원	우○○	27	남	20년	1
2018.04.03	반포한강공원	남성 2명	40대/40대	남/남		5
2018.04.03	반포한강공원	남성 2명	50대/50대	남/남		6

제 3 장 한강공원의 형성

3장에서는 상위 주체에 의해 한강공원이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가에 의해 한강공원이 조성된 배경과 목적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공원 조성 의도와 당시의 한강공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된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운영방식과 공간 및 시설을 통해, 집행력을 가진 주체에 의해 한강공원에 부여된 의미와 쓰임새, 지향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한강종합개발과 한강공원의 조성

1. 개발 이전의 한강

'한강' 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통, 군사, 경제, 문화적 요충지이자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물자 수송 및 인적 교류의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한강을 중심으로 경제와 교통,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수도의 자연 경계로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이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 한편, 한강은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인해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주변에 정자를 지어 산수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하거나, 한강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하거나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여가와 풍류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랬던 한강은 근대에 이르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점차 바뀌게 된다. 1930년대 한강은 회색의 도시와 대조되는, 자연과 전원의 이미지를 지닌 곳으로 여겨졌으며 시민들이 삭막한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는 곳이었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생활난과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울시 내에는 마땅한 여가공간도 없었던 제1공화국기에는 한강이 시민들의 매우 훌륭한 여가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공원용지조차도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 시기 한강은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지녔다. 한강변은 창경궁이나 우이동 계곡과 함께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장소였고(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2001: 162-163), 특히 여름철에 바다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한강 백사장—이촌 백사장과 광나루 백사장—과 뚝섬유원지는 훌륭한 여가공간이 되어 주었다(그림 3-1).

[그림 3-1] 한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좌, 1963년)과 낚시하는 모습(우, 1975년)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1963.08.05 (좌)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1975.09.28 (우)

2. 한강공원의 탄생 배경과 조성 목적

1960년대 이후 서울이 급격히 확장되고 팽창하면서 도시화와 환경 파괴—특히 수질 오염—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한강 이남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제1차 한강종합개발이 시행되었다.[10] 한강개발 3개년계획과 강변도로 건설,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함께 벌어진 제1차 한강종합개발에서는 제방도로를 건설함과 동시에 한강변을 1차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윤중제를 건설하고 여의도와 잠실을 개

[10] 대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1963년에 이르러 서울의 인구는 300만을 돌파하였고 경기도 광주와 시흥, 고양에 속해 있던 한강 이남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을 바탕으로, 500만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1966년 2월 22일, 인구 분산과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남서울도시계획' 이 수립, 발표되었다. 1966년에 '영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요청되어 서울시는 영동 제 1지구, 제 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였다.

발하였다. 시민들의 여가공간이었던 한강 및 한강변은 제방도로가 건설되면서 도시와 단절되게 되었고, 그나마도 강변을 따라 들어선 고층 아파트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다.

이후 제 2차 한강종합개발 이전까지 한강은 시각적, 물리적 단절과 오염으로 인해 시민들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공간이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잦은 골재 채취로 하상 요철이 심해지고 잡초와 오니 퇴적 등이 심각해지자,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한강종합개발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81년 9월 '1988년 하계 올림픽(이하 '88 올림픽')' 유치 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한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1981년 11월 18일 '서울지역 내 한강의 골재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대통령지시 no. 22-01-19)을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하였다(서울특별시, 1983: 6). 이에 한강의 기능을 회복시켜 맑은 물이 담겨 있는 '물의 공원'으로 만들고 좌우 양안에 초지를 조성하여 당시 도심에 편중되었던 위락 경향을 한강변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원화하는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다.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11]의 근본적인 배경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수리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강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자원 분야를 주축으로 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하위 계획의 개념으로 조경분야에서 고수부지 공원화계획을 수립하고 고수부지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12] 하지만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의 5개 기본이념 중 두 가지가 "시가지 팽창으로 각박해져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천 애호정신을 함양하는 새로운 휴식공간 창출"과 "공공성, 공간성, 광역성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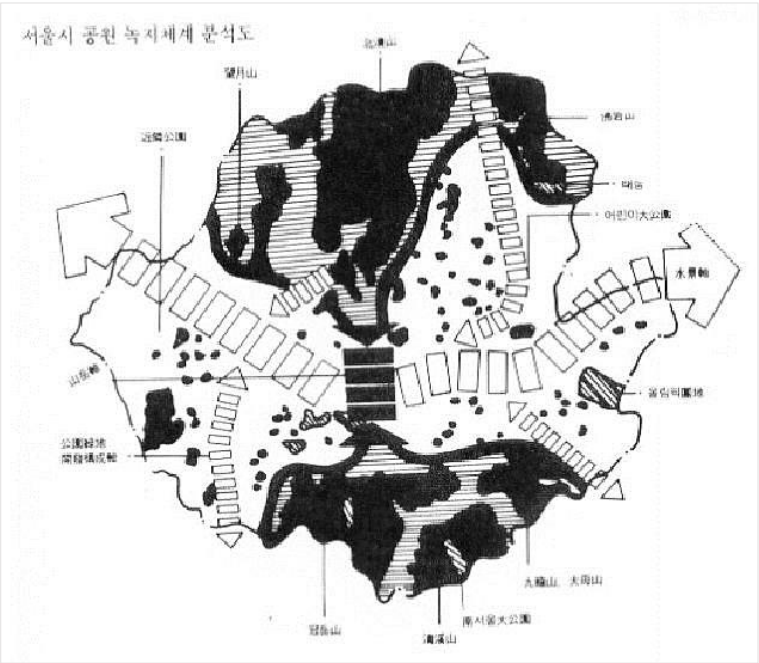
---

[11] 1882년부터 1886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었으며 1983년 9월 2일 확정되었다. 한강종합개발의 다섯 가지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도시환경의 개선; 둘째, 시가지 팽창으로 각박하게 변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천 애호정신을 함양하는 새로운 휴식공간의 창출; 셋째, 공공성 · 공간성 · 광역성을 가진 건전한 시민 레크레이션 공간의 확보; 넷째, 한강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잠재 가용자원의 경제적 개발이용; 다섯째, 이수 · 치수의 안정성과 주변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강변도로를 확장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

[12] 고수부지공원화 기본계획은 1984년 1월에 수립되었고, 1985년 3월에 확정되었다. 1985년 9월 고수부지 공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에 착공하였다.

건전한 시민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생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갈 때 즈음인 1980년에 수립된 『서울 2000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에서 한강이 최초로 서울의 공원녹지 체계를 구성하는 수경축으로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남산 중심의 도심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한강변의 녹지 또한 도시 내 중요한 오픈스페이스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서영애, 2015: 59-60). 한강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은 이러한 한강변 동서녹지축을 강화하고자 했던 시도의 일환으로서, 산으로 이루어진 남북녹지축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한강 중심의 동서녹지체계를 주변 지역까지 뻗어나가도록 조직화하고자 한 계획이었다(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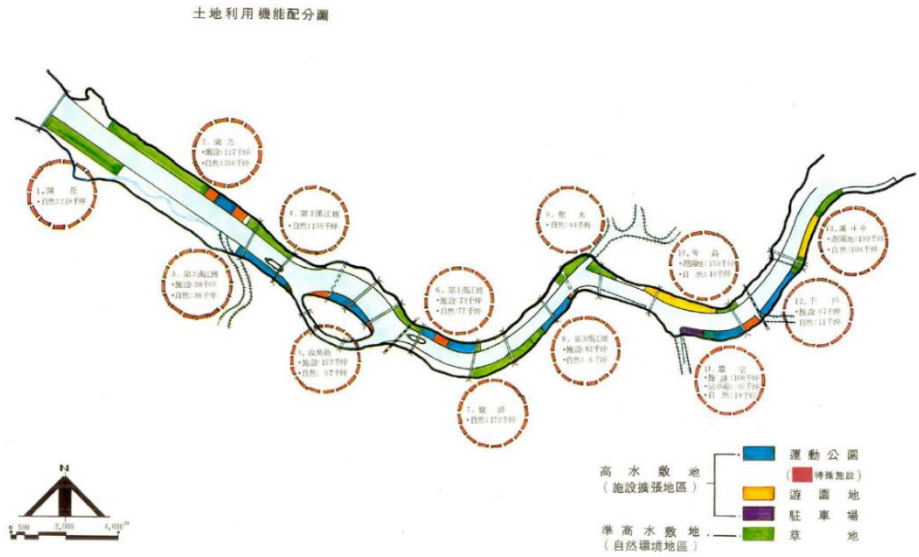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시 공원녹지체계 분석도

자료: 『환경과 조경』, 1987년 1월 15호

한강종합개발계획의 다섯 가지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과 보건, 휴양, 정서생활 및 체력단련에 기여"(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 63)하고자 한 사업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한강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총 693만㎡에 체육공원 9개소를 조성하고, 뚝섬과 광나루에 88만㎡ 유원지를 조성하며, 초지 383㎡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13] 1983년 5월 발간된 『한강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보고서(요약)』을 살펴 보면, 한강시민공원의 지구 별 시설배치도의 명칭에 "여의도체육공원시설배치도", "잠실체육공원시설배치도"와 같이 '체육공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수록한 [그림 3-3]의 토지이용 기능배분도에서도 알 수 있듯, '초지'를 제외한 시설면적에서 소수의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동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14] 실제로 기본계획 상의 시설배치도를 보면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공간 조



[그림 3-3] 토지이용기능배분도

자료: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보고서(요약)』

13)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고수부지를 포함한 고수부지 7개소(난지도 · 제2한강교 · 여의도 · 제1한강교 · 제3한강교 · 잠실 · 천호체육공원)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고수부지의 높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여의도 북쪽(지금의 여의도한강공원)과 제3한강교 남쪽(지금의 잠원한강공원)에만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는 간이체육공원으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다 (매일경제, 1981).

14) 고수부지는 시설광장지구로 계획하여 체육공원, 유원지, 주차장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준고수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계획하여 자연환경이 보존된 초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토지이용기능배분도에서는 토지이용 기능을 크게 운동공원, 유원지, 경마장, 초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운동공원에 해당하는 곳은 7개소로 난지 · 제2한강교 · 여의도 · 제1한강교 · 제3한강교 · 잠실 · 천호가 이에 해당하고, 유원지에는 뚝섬과 광나루, 초지에는 개화 · 제2한강교 · 반포 · 성수가 해당한다.

성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15] 이를 통해 한강시민공원은 애당초 운동 및 체육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장(場)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5공화국의 국민체육진흥정책과 체육공원의 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5공화국 시기는 체육부문에 많은 힘을 쏟은 때로, 당시 정권의 체육부문에 대한 의지는 체육부가 출범한 데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16] 정부는 체육부의 신설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3). 정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도 힘썼다(한국스포츠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3-4). 1981년 1월 시무식에서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한강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朴市長, 始務式서 밝혀 漢江高水敷地일대 體育公園으로 開發, 1981), 이는 정부가 체육정책에 집중하던 당시의 사회적 · 정치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생활체육의 개념이 정착된 것은 바로 이 때 즈음이다.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는 1984년 전후로 체육부에서 개념화하여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임번장, 200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 방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3612호)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1962년에 제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국민체육진흥법이 올림픽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사회체육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어 시행되게 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은 생활체육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발판이 되었고,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체육 운동은 본격적인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대대적인 지지 속에 생활체육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육공원'은 생활체육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담기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

[15] 일례로 여러 체육공원 중 한 곳인 여의도지구를 살펴보면, 1983년 5월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보고서 작성 당시 시설배치도 상에 게이트볼장 4개소, 궁술장 1개소, 축구장 2개소, 농구장 2개소, 배구장 3개소,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정구장 12면, 야구장 2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16] 1982년 3월 20일에 체육부가 발족하였다.

1982년 인천의 수봉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었고, 한강시민공원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공원'으로 조성되었다(한승백, 2006: 47-49).

제 1차 한강종합개발이 근대화와 도시화의 상징이었다면, 한강시민공원을 있게 한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은 그 관심의 초점이 '시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강'이 '한강공원'이 된 것은 생활체육의 대두와 시민의 공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체육공원', '운동공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다면, 조성 이후에는 전체를 일컫는 말로 '한강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 특정 지구를 지칭하는 말로 '○○시민공원' 이라는 명칭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시민'의 공간임이 강조되었다.[17)]

3. 한강공원의 현황

도시의 경계를 이루던 한강은 서울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현재 대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독특한 구조 속에 서울의 지리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강의 의미는 이에 그치지 않으며 나아가 생활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라는 의미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한강에 딸린 대규모의 오픈스페이스, 즉 한강시민공원 덕분이다. 통상적으로 양안의 둔치, 즉 '한강공원'을 내포하는 '한강'은 "서울에서 가장 큰 도시오픈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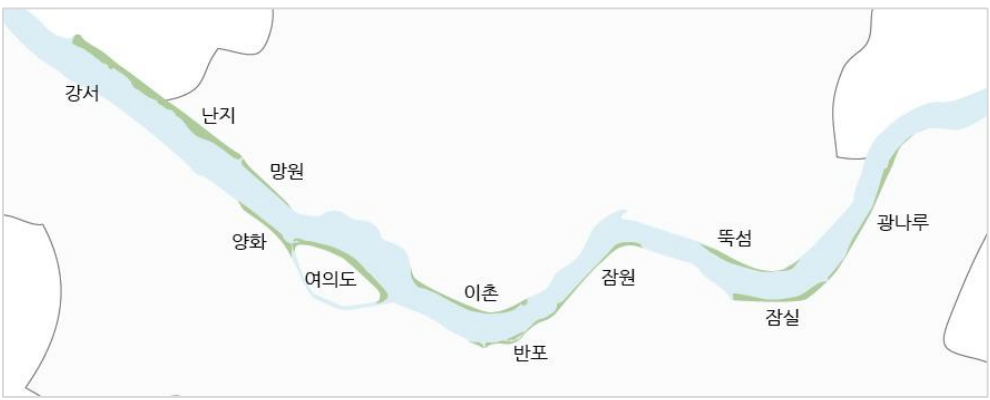
[그림 3-4] 남산과 함께 서울의 상징경관인 '한강'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본보고서 1권』, p. 7

17) 신문기사나 잡지, 뉴스 등에서 한강공원의 명칭이 다양하게 혼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강시민공원', '시민공원', '○○시민공원', '○○지구' 등과 같이 불렀다. 또한 둔치 위의 공원과 한강을 통틀어 '한강' 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강과 강변의 한강공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단어로 '한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서, 천만인구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이자 삶의 중심공간”(서울특별시, 2015: 6)으로 묘사된다.

한강시민공원은 한강 양안의 둔치에 조성된 공원을 일컫는 것으로, 둔치 면적은 강북 2.939km² , 강남 6.016km² 로 총 약 8.955km² 이다. 서울시계 내 한강의 유로 연장은 41.5km, 하천구역면적은 39.847km² 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의 약 6.6%를 차지한다(서울특별시, 2017: 43). 서울시계 내의 한강 폭은 600m에서 1,200m로 매우 넓은 편이다. 한강에는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망원, 난지, 강서, 양화 총 11개 한강공원과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강서습지 생태공원, 암사 생태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난지 생태습지원의 총 5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산하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림 3-5] 한강시민공원 현황도

한강시민공원의 방문객 수는 십여 년 전만 해도 연 5천만 명 정도였으나,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현재 연간 약 7천 5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이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방문객 수를 보유한 옥외 여가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표 3-1). 그 중에서도 특히 뚝섬과 여의도 지구는 각각 연 약 2천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몰리는 인기있는 지구이며, 난지와 광나루, 반포, 잠실, 이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1] 최근 5년간 한강시민공원 방문객 수

(단위: 천 명)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2013	1,551	2,773	14,940	2,299	2,233	3,434	29,639	2,458	2,522	5,223	1,549	68,621
2014	2,723	2,648	15,068	2,096	3,560	4,386	19,051	3,851	3,241	5,355	2,505	64,485
2015	3,384	1,856	15,155	2,928	5,367	5,432	18,261	4,228	3,366	5,920	2,693	68,591
2016	4,031	3,843	15,199	3,661	6,718	3,802	16,716	3,434	3,203	6,050	2,920	69,578
2017	4,846	4,316	18,244	2,340	4,494	4,043	24,088	2,967	2,960	4,991	2,467	75,755

자료: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한강사업본부

제 2 절 상위주체에 의한 공원의 변화

1. 한강 관리계획의 흐름

한강공원은 최초의 개발계획 이래로 현재까지 정부의 주도 하에 다양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변화를 거듭해왔다. 각 계획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각 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봄으로써 시기 별 한강공원의 지향점과 사회·문화적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원의 개발 및 특화 방향, 주력 사업, 새로운 공간의 조성 또는 개선 등 계획 별 기조와 특징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여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2] 한강 관리계획의 흐름과 주요 내용[18)]

계획	주요 내용
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1968-1970)	· 서울의 강남 개발 및 강북 인구 분산을 위한 한강 연안 개발 ·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강변도로) 건설 · 밤섬 폭파와 윤중제 건설 및 여의도 개발 · 공유수면 매립사업(동부이촌동, 압구정동, 여의도, 잠실)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 (1982-1986)	· 강변도로 확장 · 콘크리트 호안 정비 및 공원화 · 여가시설 입지(레포츠시설, 유람선 선착장 등) · 저수로 확장 및 운하화 · 하수처리체계화로 수질 개선
한강시민공원	· 적극적 친수공간 도입, 수상시설 확충

18) 『漢江管理史(한강관리사)』(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서울시, 20년 한강 계획 아우르는 최초 종합관리계획 수립"(서울특별시 보도자료),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력계획"(2015.8.24 한강협력회의 안건),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다.
『漢江管理史(한강관리사)』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한강에 대한 노력과 그 발전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편찬했던 1997년의 『漢江史(한강사)』를 보완하여 2003년에 발간한 문헌자료이다. 1997년 이후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강서지구, 선유도공원이 개원하였고, 월드컵이 개최되었으며,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 추진방안을 구상하는 등 꾸준히 변모해 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한강의 새로운 변천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 1).

종합관리계획 (1996)	· 노약자와 장애인을 고려한 공원시설 · 남아있는 자연성의 보호(고덕 · 광나루 · 풍납 · 잠실지구) · 접근로 신설과 종합 안내체계 도입 · 보행공간 확보 및 자전거도로 재설정, 주차장 신설 · 지구별 중점이용시설을 설정하여 특화 · 시설간 · 지구간 연계, 주변 지역 및 교통과의 연계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2000)	· 강서 습지생태공원 조성, 고덕 수변생태복원 · 자연형 호안 및 수변 · 수중서식공간 확충 · 선유도공원, 난지 한강시민공원 조성 · 상암 · 뚝섬 · 용산 · 마곡지역 관리계획 수립 · 한강변 특별경관관리구역 지정 · 자전거 순환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 · 한강변 대단위 꽃밭 및 체육시설 · 휴식공간 조성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 (2003)	· 공원을 자연생태 · 광역거점 · 지역거점 · 청소년이용 · 전원풍경 지구의 5개 지구로 구분하여 보존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공원별 특화방안 구상 · 수변무대, 광장, 일광욕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 신설 및 재배치 · 수상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랜드마크화 · 지구별 여건에 따라 특화방향 설정 후 시설도입
한강르네상스 계획 (2007)	·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 워터프런트타운 조성 · 한강변 경관 개선 · 서해연결 주운기반 조성 · 한강중심의 Eco-Network 구축 · 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 한강변 역사유적 연계강화 · 테마가 있는 한강시민공원 조성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 (2014)	· 한강 숲 조성 · 생태거점과 천변습지 조성을 통한 생물서식처 복원 · 녹지축 연결과 완충녹지 조성 통한 생태축 연결 · 지천 물길 회복 · 자연형 호안 조성 · 수질 개선 · 역사 · 문화 조망 및 체험 프로그램 마련 · 공원 이용 및 관리기준 확립 · 시민중심 하천관리 기반 구축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 7개 권역별 특화 방향을 설정하고 여의-이촌권역을 우선협력거점으로 설정 · 여의도 · 이촌지역 자연성회복(샛강 자연성 회복, 한강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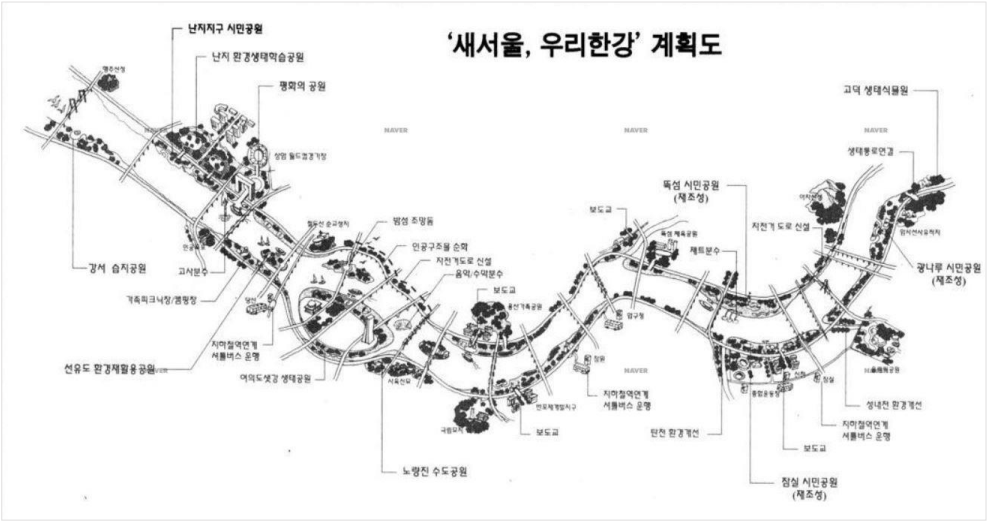
(2015)	자연형호안 등) · 여의도 수변문화지구(가칭 여의마루) 조성 · 하천점용시설 다양화, 수상레포츠 공간 및 문화공간 마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2015)	· 한강숲 조성 및 자연형호안 조성 · 7대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 ·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연계 · 시민이용공간 확충 · 대중교통 · 보행 · 자전거 접근성 강화, 수상교통 운영 검토 ·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지역 지정, 한강변 스카이라인 관리, 조망우수지역 관리』

「한강종합개발계획」은 공유수면 매립과 제방도로 축조를 골자로 한 1차 개발과, 저수로 정비와 시민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2차 개발, 총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통상적으로 「한강종합개발계획」이라 함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시행된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지칭한다. 제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은 콘크리트 호안과 강변도로를 동시에 조성하면서, 이 때 생겨날 고수부지를 홍수기를 제외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강 양안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한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은 시설물 설치가 중심이었던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공원이용패턴이 다양화되면서 공원에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관리를 고려한 계획을 세우고자 새로 수립된 계획이다(서울특별시, 1995: 973). 한강시민공원을 지구별로 특화하고자 한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여의도 · 뚝섬 · 잠원 · 이촌 · 잠실의 5개소를 우선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구별 특화 계획을 세울 때 한강시민공원 전역을 환경보전구역, 친수구역, 유보구역으로 구분하여 그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점 사업은 '물과 친숙한 공간 조성', '생태 및 환경 교육장 조성', '동선의 조정', '자전거도로의 정비', '매점의 정비', '접근성의 향상', '야간이용의 활성화', '주제가 있는 공원의 조성', '녹지의 확충'이었다.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한강을 바라보고자 한 계획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치수 그리고 고수부지의 활용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생태계를 훼손하여 동식물 서식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나무그늘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한강을 생태적으로 회복하고, 녹음이 가득한 푸른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그림 3-6]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생태적 회복 개념에서 출발한 난지 생태공원과 선유도 공원, 고덕 생태식물원 등도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그림 3-6]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시민 즐겨찾는 생활공간 탈바꿈", 한겨레, 1999.06.09

80년대 이후 공원의 관리는 치수에 치우쳐 있어 공원의 접근성이나 경관, 시설 면에서 매력을 갖추는 데 미진하였다.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수립된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은 주5일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여가행태가 변화하고 다양해지자 그에 발맞추기 위해, 수준이 낮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및 레포츠시설을 도입하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다. 이는 계획의 명칭이 표방하는 바와 같이 '이용' 에 중점을 둔 계획으로, 문화적이고 참여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친수활동을 수용,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훼손된 가치의 '회복'과 새로운 도시 수변문화의 '창조'를 기조로 내세운 장기 계획이었다.[19] 특징적인 것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의 도시구조에서 탈피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구조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치수 중

[19]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두 가지 기조인 '회복' 과 '창조' 아래 6대목표가 설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회복' 과 관련한 세 가지 목표는 자연성의 회복과 동서남북의 소통, 역사성의 회복이며, '창조' 와 관련한 세 가지 목표는 도시공간 재편, 이용성 증진, 고품격 시민문화 창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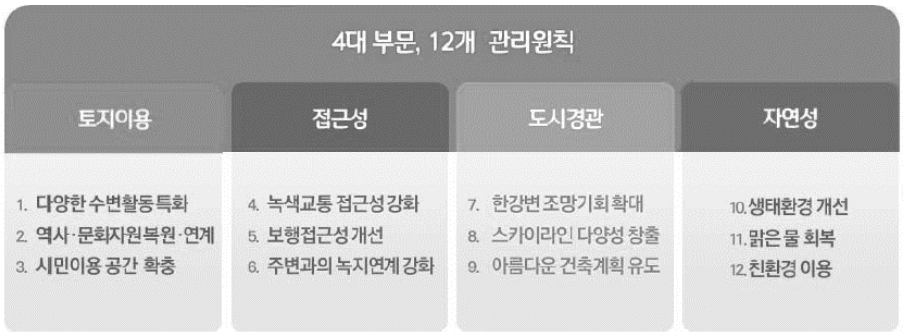
심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적극적 이수와 친수를 통해 문화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서울의 경쟁력을 견인할 문화브랜드로서 한강의 재탄생을 추진하였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난지지구를 서로 다른 테마를 지닌 4대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다양한 성격의 시민편의시설이 도입되었다.

이 때까지의 계획은 한강을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용'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때문에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은 한강의 진정한 생태적 복원을 위해 '자연'으로 강을 인식하고, 한강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기 추구했던 지향점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더불어 한강과 인간의 '생태공동체' 형성이었다. 이를 위해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물길과 생태축을 연결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적인 이용을 주요한 전략으로 내세웠다.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한강을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그리고 자연환경과 시민 · 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한 계획이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함께 관광 및 문화활동의 확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하천점용시설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레저 · 스포츠,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이것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 간 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주요한 3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과 한강 주변을 아우르고 정비와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최초의 체계적인 종합 기본계획이다. 그 동안 수립된 계획 및 정책의 대부분은 환경 개선 및 정비에 치중하거나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한정적으로 다루는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차원에서 한강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계획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한강과 그 주변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상된 계획이 바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한강을 생활문화 즉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 자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네 가지를 종합하는 유기적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부문별 계획과 함께, 수변공간을 27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그림 3-7).



[그림 3-7]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본보고서 1권, p. 90

2. 시간에 따른 한강공원의 공간과 운영 변화

한강공원의 물리적인 구성과 운영 · 관리의 통시적 변화는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최초의 공간 구성, 즉 개장 당시의 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그것이 생산되기까지의 배경을 파악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한강개발의 이념이 어떻게 공간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30여년 간의 운영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타나는 운영 · 관리 상의 변화와 공간 변화—새로운 계획이나 관리대책의 수립 등으로 인해 발생한—를 분석하였다. 공원의 세부적인 운영 · 관리와 공간의 물리적 변동은 상위의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앞서 살펴 본 8개의 한강 관리계획 하에 계획되고 추진된 연도별 주요 업무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대적 공간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된 설계공모와 그 결과로 발생한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최초의 한강공원

최초의 한강시민공원은 둔치라는 지형적 특성과 공원의 성격, 이용목적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운동공원으로 개발하되 적재적소에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의 성격을 가미한 공원녹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김희우, 1987: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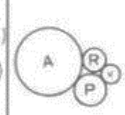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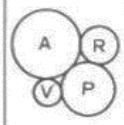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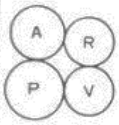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 수립 당시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조성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한강변 둔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파악, 정리하였다: 1) 고수부지는 하천부지이며, 2) 광활한 수면과 연속적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3)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지장물이 없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4) 도시 내에서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인 오픈스페이스로서 일반부지나 공원부지와는 다른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술한 둔치의 네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계획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는데, 그 핵심은 시가지에서는 보기 힘든 강이라는 요소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도심공공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이 계획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접하는 자연 레크레이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넓은 하천부지로서 과도한 시설 개발은 지양하되 운동이라는 형태의 레크레이션 이용이 주를 이루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의 다양한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자 하였다.

한강공원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동서로 길게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있으므로,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에서는 그 영향권의 크기에 따라 이용권을 근거리의 소생활권, 중거리의 중생활권, 원거리의 대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이용권이 나뉨에 따라, 각각 그에 걸맞은 공원의 성격 및 기능이 부여되었다(그림 3-8). 기본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비교적 먼 거리의 시민들 또한 방문하여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소생활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운동공원과 근린공원의 성격을 띠며, 일반적인 근린공원에서와 같이 산책이나 휴식, 운동과 같은 일상적 이용이 벌어질 것으로 계획되었다. 한편, 중생활권 공원으로서 한강공원은 운동공원과 지구공원의 성격을 띠며, 일반적 이용과 함께 반(半)구체적 이용행태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 계획하였다. 공원의 영향권이 광역적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대생활권으로, 운동공원과 자연공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일반적 이용행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거리 방문자들이 자연경관의 감상, 피크닉, 휴양 등과 같이 다소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가지고 방문할 것으로 보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20)]

---

20)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의 개요를 정리한 글인 「한강 고수부지 공원 계획

구 분 \ 이용권	대생활권 (원거리)	중생활권 (중거리)	소생활권 (근거리)
1. 이용형태 • A : ACTIVITY(동적시설) • P : PASSIVE(정적시설) • R : REST(휴식) • V : VIEW (전망)			
2. 공원의 성격	운동공원 자연공원	운동공원 지구공원	운동공원 근린공원
3. 공원의 기능	지역 중심 (Society Public)	지구 중심 (Public Semi Private)	근린 중심 (Community Privater)
4. 이용목적	구체적 이용 (Picnic, 운동, 자연경관, 휴양)	반구체적 및 일반적 이용 (운동, 휴양, Picnic)	일반적 이용 (산책, 휴식, 운동)

[그림 3-8] 고수부지 공원의 기능 및 성격

자료: 『환경과 조경』, 1987년 1월 15호

계획 단계에서 한강공원은 토지이용에 따라 크게 체육공원, 유원지, 초지로 나뉜다(표 3-3). 1983년 5월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고수부지(高水敷地)와 준고수부지(準高水敷地)로 나뉘어 둔치의 개발 방향이 결정되었다. 준고수부지는 물에 잠겨 있는 기간이 길어 자연환경지구, 즉 초지로 계획되었고, 홍수기에 물에 잠겼다가 그 외의 기간에는 완전히 드러나는 고수부지는 시설광장지구로 계획되어 주로 운동공원과 유원지, 소수의 특수시설과 경마장으로 계획되었다.[21] 운동공원으로만 구성된 곳은 여의도와 제3한강교, 초지만으로 이루어진 곳은 개화지구, 제2한강교(망원동쪽), 반포지구, 성수지구가 있으며, 운동공원과 초지의 혼합 구성으로 이루어진 곳은 난지지구와 제2한강교(영등포쪽), 제1한강교, 천호지구가 있다. 특히 초지의 경우 자연학습장, 낚시터, 모래사장, 야생초지 등 하천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계획되었다. 뚝섬과 광나루지구는 위락기능을 강조한 대단위 유원지로 계획

및 공사 현황」(김희우, 한강 고수부지 공원 계획 및 공사 현황, 환경과 조경, 1987년 1월, 15호, pp. 109-113)을 참고하였다.

21) 침수 빈도가 1.5년에 한 번 꼴인 지역은 고수부지로 분류하여 8.67~13.2m 수준으로 성토하고 시설광장지구로, 침수 빈도가 연 2회 이상인 지역은 준고수부지로 분류하여 5.9~9.22m 수준으로 성토하고 자연환경지구로 계획하였다(수심 깊어지고 貯水量 늘어났다, 1986).

되었으며, 그 밖에 유일하게 운동공원과 함께 경마장이 계획된 곳으로 잠실지구가 있었다.[22)]

[표 3-3] 계획 단계에서 한강공원의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공원
운동공원	여의도, 제3한강교
운동공원+초지	난지지구, 제2한강교(영등포쪽), 제1한강교, 천호지구
초지	개화지구, 제2한강교(망원동쪽), 반포지구, 성수지구
유원지	뚝섬지구, 광나루지구
운동공원+경마장	잠실지구

자료: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보고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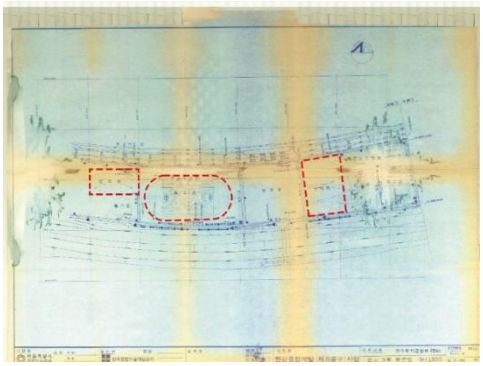
이후 위 계획에 의거하여 실제 공간이 구현된 결과를 『고수부지공원화 공사계획평면도(1984)』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강시민공원의 지구 별 계획 유형에 따른 실제 공간의 물리적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정된 용도에 유념하여 도면을 분석하였다. 도면 상의 공간 또는 시설을 그 성격에 따라 1) 운동 및 체육공간, 2) 어린이를 위한 공간, 3) 다목적의 광장과 같은 대규모의 평면적 공간, 4) 자연친화적 공간, 5) 위락 기능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재분류하였다(표 3-4). 분석 결과 개개의 지구는 모두 유사한 공간 구성을 지니고 있어 운동공원, 초지, 유원지로 각 지구의 용도를 구분한 것은 실질적인 공간 구성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2) 1983년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 계획된 지구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명칭은 '개화지구'는 강서지구, '제2한강교(영등포쪽)'는 양화지구, '제2한강교(망원동쪽)'는 망원지구, '제1한강교'는 이촌지구, '제3한강교'는 잠원지구로 변경되었다. '여의도'와 '난지도'는 각각 여의지구와 난지지구이고, 성수지구는 현재 사라지고 없으며 천호지구는 광나루지구로 흡수되었다.

[표 3-4] 지구 별 공간구성

지구명	체육시설				어린이	모형 경기장	다목적 광장	자연	위락시설	기타
	구기	특수	스케이트	체력단련						
개화	O						O			O
난지	O					O		O		O
제2한강교 (영등포쪽)	O	씨름장	O	O	O		O	O		O
제2한강교 (망원동쪽)	O		O		O		O	O		O
여의도	O	양궁장 국궁장 석궁장 투석장 필드하키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	O				O	O		O
제1한강교	O		O	O	O		O	O		O
반포		씨름장	O	O		O	O	화훼단지 철새도래지 인공개울 모래사장 낚시터		O
제3한강교	O		O		O		O	O		O
성수										
뚝섬	O	풀장	O	O	O		O		분수 야외무대 피크닉장 야영장 강변식당	O
잠실	O	투척장, 육상경기장			O	O	O	O		O
천호	O	수상스키장	O				O			O
광나루	O		O		O	O	O	O		O

이처럼 초기 계획단계에서의 용도 구분은 실시 단계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나, 대신 소수의 지구가 독자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초기 토지용도 계획의 실질적 반영 없이 서로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는 대다수 지구와는 달리 여의도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 잠실지구, 광나루지구에는 타 지구에는 없는 특징적인 공간 또는 시설이 설계되고 조성되었다. 이들 지구는 형태 면에서 전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모든 지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통 시설 및 공간에 더불어 특색 있는 몇몇 공간을 보유한 양상을 나타냈다. 실시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여의도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가 타 지구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색이 강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며, 잠실지구와 광나루지구는 타 지구에 없는 시설을 보유하기는 하지만 한두 개 정도로 그 특색이 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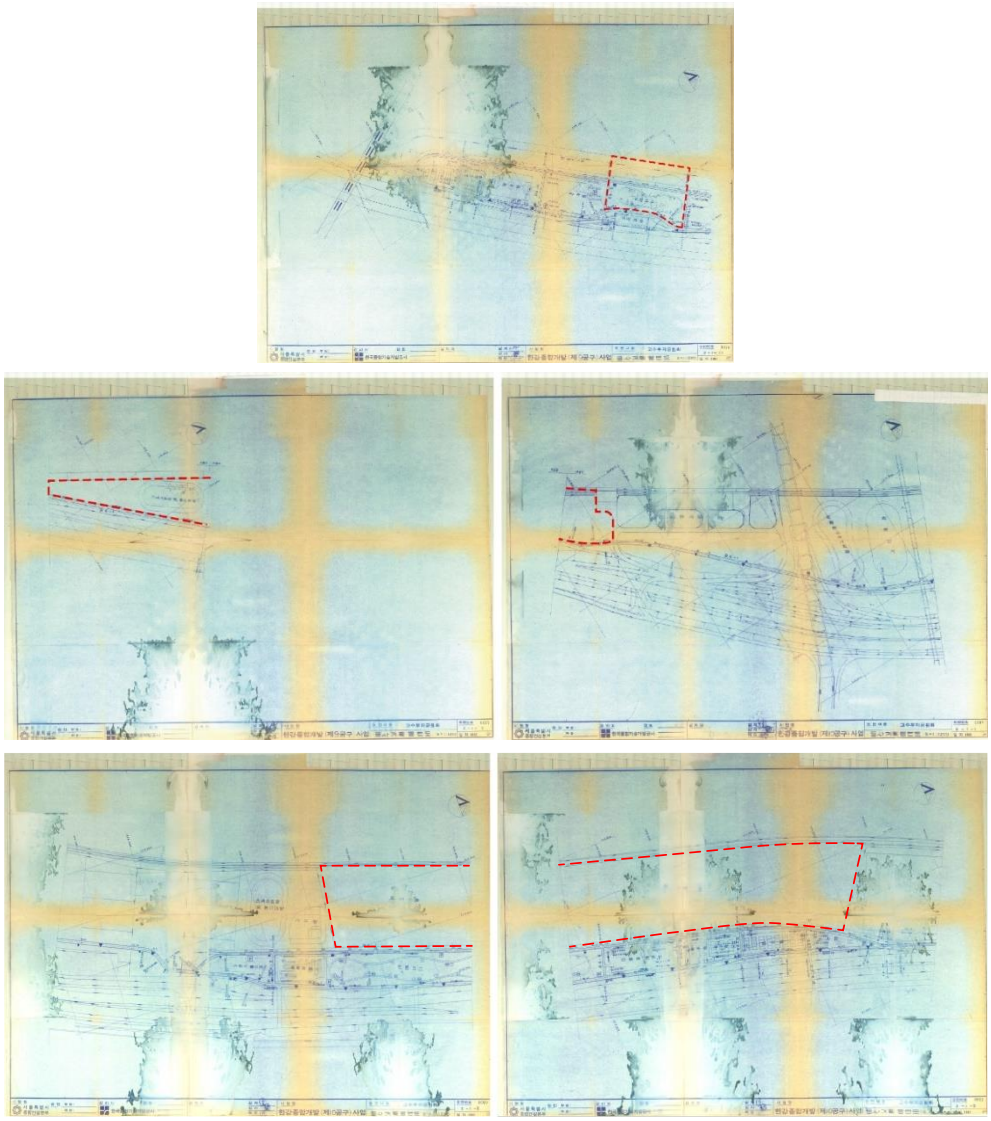


[그림 3-9] 잠실지구의 투척장과 육상경기장

도면번호 51, 53, 54 중 51에 연구자 표시

잠실지구에 특색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설계된 시설에는 투척장과 육상경기장이 있다(그림 3-9). 이는 잠실지구와 연접한 부지에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될 잠실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것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광나루지구의 경우에는 수상스키장과 대규모의 백사장이 개성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도입되었다(그림 3-10). 이는 유원지로서 시민들의 위락적 기능을 담당하던 이전까지의 공간적 성격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3)]

23) 한강공원 조성 이전에도 뚝섬과 함께 유원지로 이용되었던 광나루 지역에는 수영장과 모래사장이 조성, 개방되어 특히 여름철 인기 있는 유원지였다. 실시설계도를 통해 본 한강공원 광나루지구는 유례없이 넓은 면적의 모래사장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구와 구별되며, 이전까지의 공간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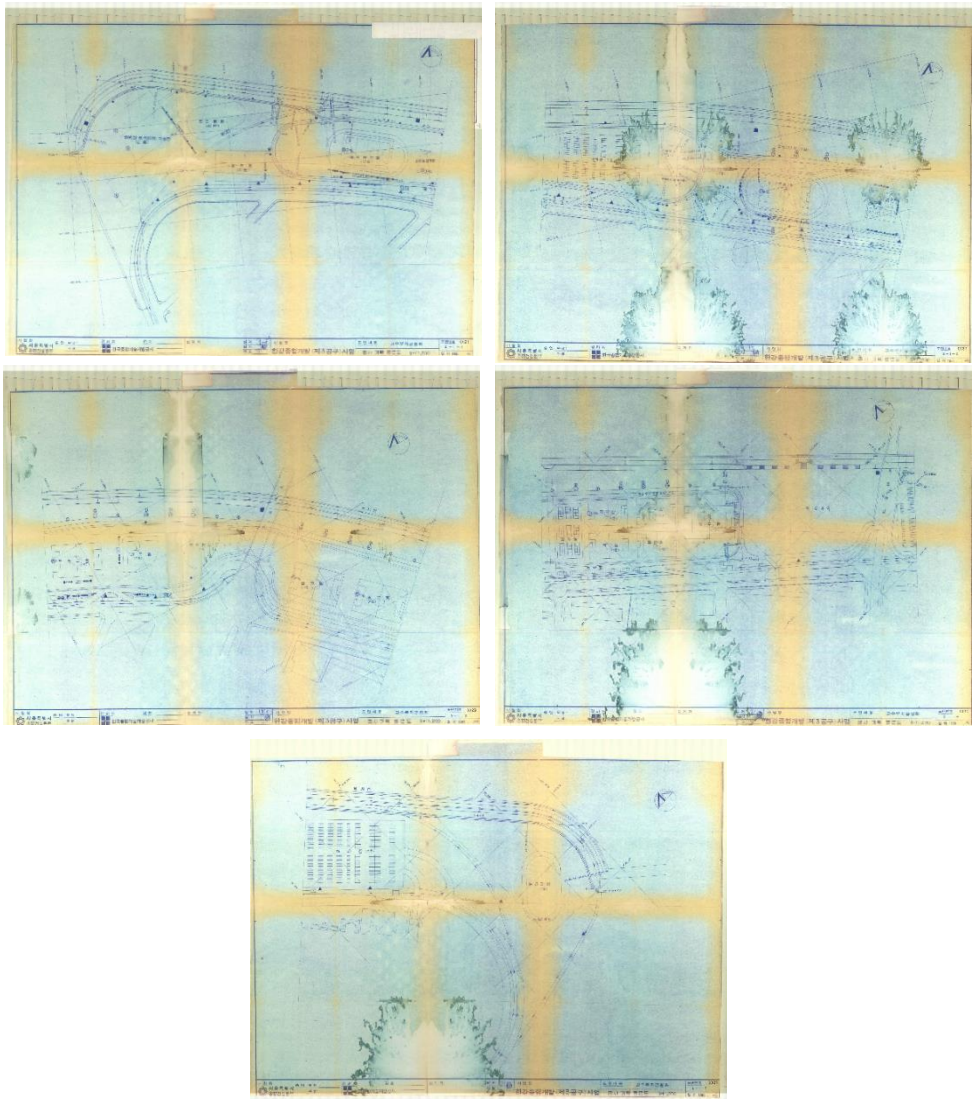
[그림 3-10] 광나루지구의 수상스키 시설과 모래사장

도면번호 55, 56, 57, 59, 60, 61, 62, 63, 64 중 56, 57, 59, 60, 61에 연구자 표시

개성이 뚜렷한 여의도지구와 반포지구, 뚝섬지구의 공간 조성을 살펴보면, 먼저 여의도지구는 당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아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성격의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3-11]은 고수부지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사계획평면도 중 여의도지구인 제 3공구에 대한 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여의도지구는 양궁장과 국궁장, 잔디광장, 투척장, 필드하키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 트랙축구장, 연날리기장, 주차장,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화훼단지, 낚시터, 정구장, 선착장부지, 놀이마당과 스케이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로는 파고라, 벤치,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유희시설, 스포츠 및 맨몸운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계획되었다. 타 지구와 유사하게 대부분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잔디광장을 통해 다용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경관적 요소 가미를 위한 화훼단지가 계획되었다.

여의도지구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요소로는 양궁장, 국궁장, 석궁장, 투척장, 필드하키장, 핸드볼경기장, 수영장을 들 수 있다. 이는 구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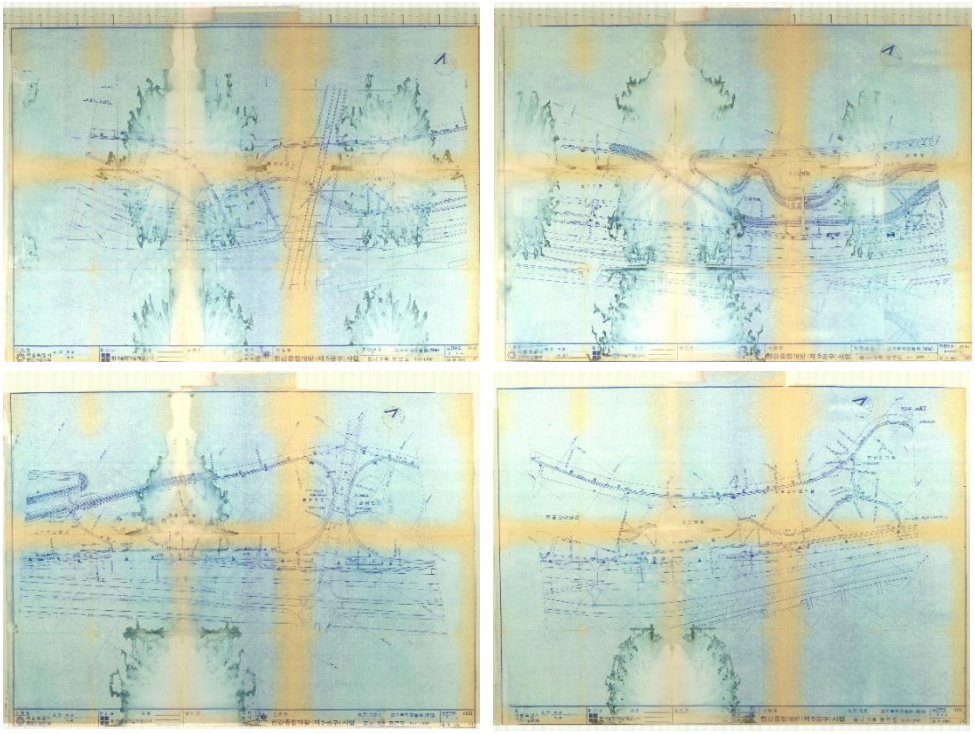
[그림 3-11] 여의도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

자료: 고수부지공원화 공사계획평면도 (도면번호 21, 22, 23, 24, 25)

시설이나 체력단련장 등과는 달리 일반적이지 않은 체육시설인데, 필드하키나 양궁, 국궁과 같은 종목은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 있어 부담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는 특히 제 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대표하는 핵심 지구이자 88 서울올림픽의 상징적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 종목 중 일부를 대중에게 알리고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원내 시설로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포한강공원은 다목적 운동장과 야구장, 연날리기장, 스케이트장, 농구장, 정구장, 체력단련장, 철새도래지, 씨름장, 놀이마당, 인공개울, 화훼단지, 잔디마당, 모래사장, 사생장,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12). 마찬가지로 잔디광장이 공원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시설물 역시 체육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타 지구와 공통적인 공간 구성과 시설 배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타 지구의 계획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철새도래지와 인공개울, 모래사장이라는 독특한 요소가 발견된다. 이는 모두 자연 경관을 모사한 요소로서 유희시설이나 운동기구, 콘크리트 광장과는 대조되는, 자연친



[그림 3-12] 반포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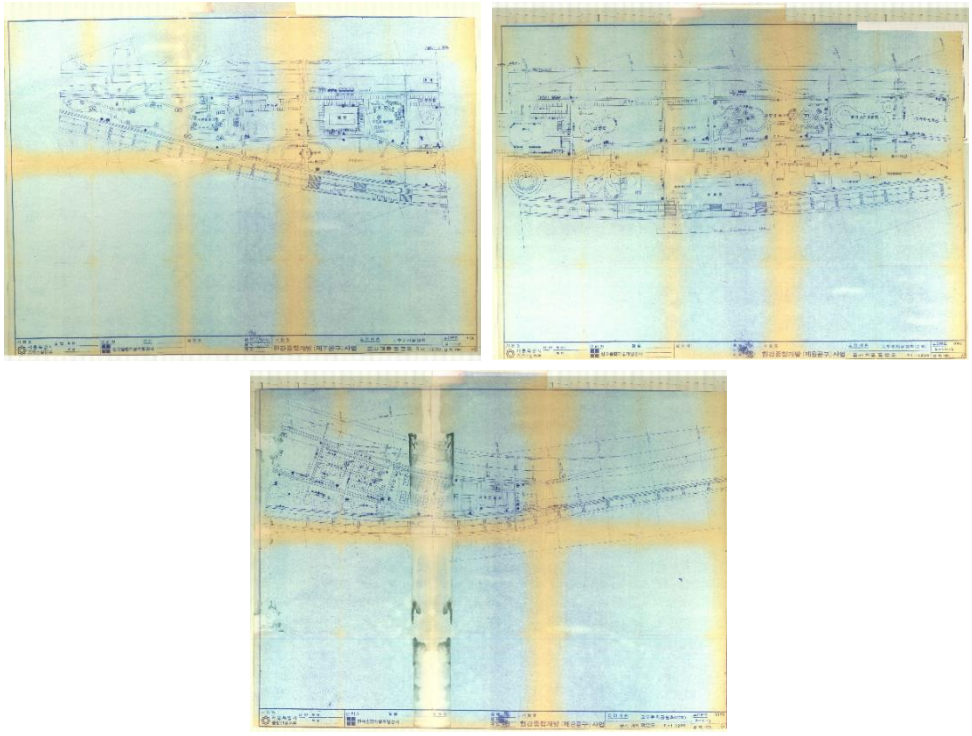
자료: 고수부지공원화 공사계획평면도 (도면번호 31, 32, 33, 34)

[그림 3-13] 반포한강공원 (1986)

자료: 경향신문, 1986.09.10

화적 성격을 띠는 공간이다. 이는 '초지'이를 통해 반포지구만의 개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적 요소로서, 다양한 방식의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천 고유의 특성을 살리려 한 노력을 보여준다(그림 3-13).

[그림 3-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뚝섬지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통적인 시설 외에 분수, 야외무대, 풀장, 보트장, 가족단위 피크닉장, 야영장이 계획되었다. 유일하게 위락(慰樂)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을 보유함으로써 뚝섬한강공원은 다른 시민공원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는 유원지로 기능하던 한강개발 이전의 뚝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노천 수영장과 캠핑장, 보트놀이 등 과거 뚝섬유원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공원에서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이다(김정은, 2017: 147-148).



[그림 3-14] 뚝섬한강공원의 조성 당시 설계도

자료: 고수부지공원화 공사계획평면도 도면번호 45, 46, 48, 49, 51

[그림 3-15] 한강시민공원이 있기 전 뚝섬수영장 (1963)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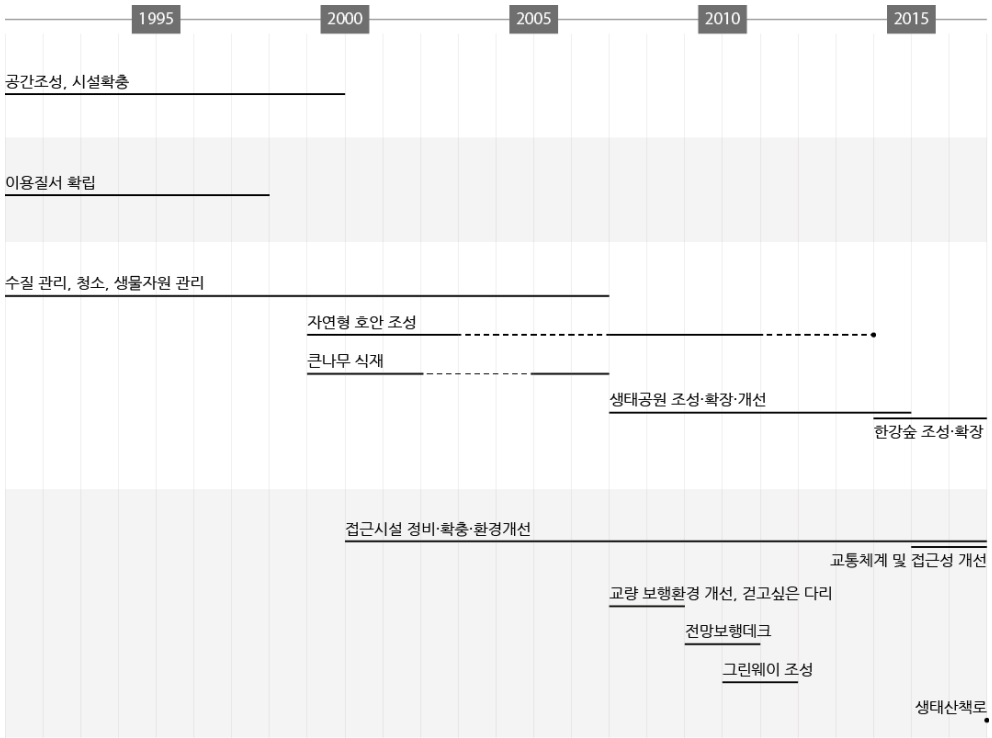
종합하면, 각 지구는 기능에 따른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유사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체육시설로 채워져 있었다. 공통적으로 다목적운동장 · 연날리기장 · 소광장 등과 같이 장애물 없이 넓은 평면적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광장과 잔디광장, 농구장 · 배구장 · 야구장 · 축구장 · 배드민턴장 등의 구기종목 경기 시설, 글라이더장 · 모형선박경기장 · 모형자동차경기장 등의 모형 장난감 경기장 등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마당과 연날리기장, 다목적운동장 등 그 명칭만 다를 뿐 용도의 구분이 무의미해 보이는 공간의 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구에서는 필드하키장, 핸드볼경기장, 헬기장, 투척장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공간은 잔디마당과 화훼단지, 낚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구 간 구별되는 특징이 거의 없고 유사한 공간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구 내에서도 다소 단조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이렇듯 각 지구의 대부분의 면적은 지구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성을 지님으로써, 공통적 요소인 너른 광장과 콘크리트 제방, 운동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강공원의 공통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용도 구분과 물리적인 분리가 무의미하며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공간의 반복적 배치는 획일적인 공간 구성 및 경관 연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본질적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

매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한강공원과 관련해 추진된 모든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기간은 1991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민공원이 부분적으로 완공되어 개장되기 시작한 해인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업무보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세밀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1990년대 초반의 사업추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원의 정착—물리적인 완성도의 향상과 이용질서의 정착—을 위한 제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공원 관리 업무는 옛 신문 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원 관리 업무를 종합한 결과 시기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이어지는 [그림 3-16]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6] 한강공원 운영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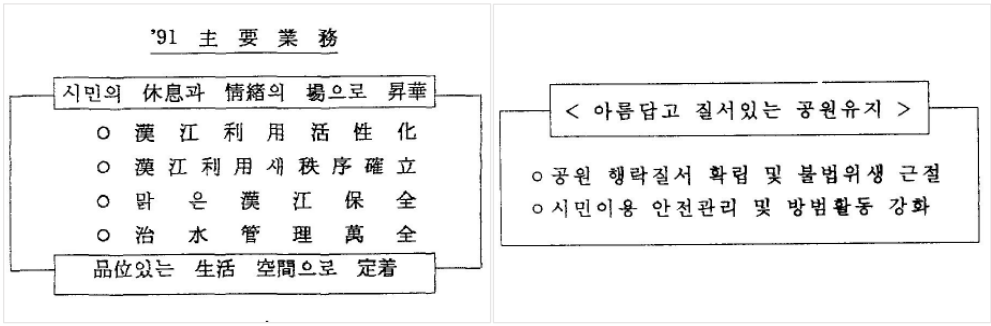
초창기의 한강공원은 시민공원의 물리적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공간 및 경관의 조성, 시설 확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상영(1986)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치수는 일단 달성됐지만 공원화로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공원화'가 의미하는 '공원다운 공원 조성'을 위하여 초화와 관목 위주의 식재, 보식이 이루어졌으며, 경관 향상을 위한 꽃길과 농촌 향취를 위한 메밀밭, 억새밭 등 대규모 작물단지가 조성되었고(그림 3-17), 각종 체육시설, 그늘막, 화장실 등이 확충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상위의 목적은 '시민공원의 이용 활성화', '쾌적한 휴식(여가)공간 조성'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나 모두 공원의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들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3-17] 청보리밭(좌)과 메밀꽃밭(우)

자료: 서울실록, 1992.06.09 (좌) 서울실록, 1996.09.30 (우)

다음으로, 한강시민공원의 주요 업무는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강 이용 새질서 정립', '시민공원의 질서 정착', '한강 이용질서 확립', '편안하고 즐거운 공원관리',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시민 보호' 등 상위의 시책 방향은 조금씩 다른 언어로 표현되었으나 모두 방범활동과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및 치안활동을 포괄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최근의 업무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그림 3-18]에서와 같이 1998년까지는 매년 주요 연간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 그 비중이 상당히 컸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지도 및 단속하고, 순찰 및 방범활동에 집중하였으며, 매점 운영을 지도하고 불법상행위를 단속한 것이 그 내용이다. 당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공원 내 행위로는 불법 하천 점용, 잔디밭 훼손, 오물 및 토사 투기, 취사 등이 있었다. 특히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자정 이후 시민공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집중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졌다.[24)]

24) 1991년과 1992년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의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업무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신문 기사 조사를 통해 1989년부터 이러한 야간 통행 제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한겨레 "한강공원 야간 차량통제"; 경향신문 "漢江시민공원 전역 심야 차량진입금지"; 동아일보 "漢江시민공원 전지역 야간차량통행을 금지"), 1989년 7월 20일부터 차량통행 금지와 시민의 공원이용 자제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의 이용제한 시간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였다.



[그림 3-18] 1991년의 주요업무(좌)와
1998년의 다섯 가지 주요업무 중 공원질서유지 관련 항목(우)

자료: 『1991년도행감 - 수자원』, p. 5 (좌) 『1998년도행감 - 환경수자원』, p. 41

한편, 생태 관련 사업의 경우 개장 초기에는 수질 보전, 청결 관리와 같이 관리와 청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1999년부터 자연형 호안 조성, 호안 자연녹화 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비록 피상적인 녹화 사업이었지만 이는 기존의 건조하고 획일적인 콘크리트 사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서습지 생태공원은 이 즈음 신설된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2000년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에 같이 생겨난 것이다. 2007년에 이르면 각종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7년의 「한강르네상스 계획」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강서습지 생태공원을 확장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2015년에 들어서면 수질 개선이나 생태공간 조성뿐 아니라 생태 관련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생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즉 이제는 관리나 녹화 등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는 비물리적 방식의 운영을 통해서도 한강공원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접근성 개선 관련 사업은 2001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접근로를 증설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었다. 접근로의 개수를 늘리고 접근로의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던 접근성 개선 사업은 2007년을 전후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확충과 정비의 단계에서 한강공원을 보도로 방문하려는 이들에게 즐거운 보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도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걷고 싶은 거리’, ‘보행녹도’, ‘그린웨이’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다양한 보행로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한강공원의 방문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무질서와 시민 불편이 심해지자 그 대책으로 2017년 5월 30일에는 특별히 ‘한강공원 5대 특별대책’[25]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전단지 살포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청소인력의 추가 투입과 청소체계 개편, 2) 이용객 몰림 방지를 위한 주차장 출차 시스템 개선(반포, 여의도지구), 3) 여의도지구 인근의 혼잡한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의나루역 앞 버스정류장 이전과 배달존[26] 추가 설치, 4)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자전거와 폭주족, 전동휠, 반려견과의 접촉사고 집중 단속, 5) 시민주도 캠페인 추진과 자원봉사활동 시작.

이로 인해 발생한 공원의 실질적인 공간 변화는 배달존의 추가 설치와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기존의 배달존 2개소 중 이용률이 저조했던 마포대교 옆 배달존은 마포주차장 입구 매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나들목 입구와 가까운 물빛광장 부근에 1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더불어 뚝섬과 여의도지구에 설치된 ‘전단지 수거함’의 디자인을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여 배달음식 전단지 무단투기를 줄이고 쾌적한 공원경관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전거의 집단 라이딩과 폭주, 전동휠과 보행자 접촉사고, 반려견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 내용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전동휠 대여업체에 대한 지도 및 현장단속을 강화하였고,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지행위 안내와 질서의식 향상을 위한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

[25] 그 동안 쓰레기 투기 문제, 교통 혼잡, 불법 행위와 그 단속 문제 등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대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구청과 관할 경찰서까지 모든 관련기관이 함께 수립한 종합대책이다(“주차정산기 늘리고 청소인력 집중 ‘한강공원 5대 특별대책’ ” , 2017.05.31 조간용 보도자료)

[26] ‘배달존’ 은 치킨이나 피자 등의 배달음식을 주문한 시민공원 이용객과 배달원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16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설계공모를 통한 변화의 시도

한강공원은 철저하게 정부가 수립한 관리계획의 원칙을 따르고 상위 계획에서 하위의 운영관리 업무에까지 이르는 절차를 통해 운영되었지만, 또 하나 다른 성격의 방식으로 권력 주체에 의해 새로운 의미와 쓰임새를 부여받은 방법은 바로 설계 공모였다. 그 중 공간의 재설계를 목적으로 한 공모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의사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해 당시 현안에 대한 인지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강공원에 새로운 지향점이나 의미를 부여하며,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지향점 구현을 공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전술한 바에 해당하는 공모로는 '여의도한강공원 조성사업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이하 '여의도 공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도시재생구상 국제공모(이하 '잠실 국제공모')', '한강 여의나루 국제설계공모(이하 '여의나루 공모')'가 있었다.

2008년에 시행된 여의도 공모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여의도 · 반포 · 뚝섬 · 난지 4개지구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공모지침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기조인 '회복과 창조'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성 회복과 역사성 회복, 시민문화 창조와 접근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행하도록 요구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주요하게 내세운 요구사항으로는 1)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둔치의 활용, 2) 인공 호안의 자연형 호안으로의 대체, 3) 샛강 생태공원과의 연계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의 연계가 있었다(김도경 · 최원만 · 홍형순, 2008: 16).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진정한 자연성 회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원 내부의 이용자 동선 연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모의 결과로 조성된 여의도한강공원이 현재 볼 수 있는 여의도한강공원의 모습이다. 둔치 단면의 다양화를 통한 친수 호안 조성과 캐스케이드(cascade) 조성,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마련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 특화된 여의도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본 잠실 국제공모는 2015년 5월에 열린 아이디어공모로,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그림3-19] 잠실 국제공모 포스터(좌)와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우)

김향미, "잠실운동장 일대 30년 만에 대변신…개발계획 확정, 2019년 착공"

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27]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주 공모 대상지이지만 잠실한강공원 및 탄천변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이로부터 당시 한강시민공원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던 쟁점이나 지향점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재생과 함께 잠실 국제공모에서 주요한 과제로 삼은 것은 한강 및 탄천의 잠실 일대와의 연결성을 제고할 것, 그리고 단순한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재 잠실한강공원을 복합 스포츠 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시 잠실종합운동장 지역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마찬가지로 계획방향 및 지침에서도 코엑스에서 탄천, 잠실종합운동장을 거쳐 한강까지 보행 및 오픈스페이스로 연결되도록 할 것을 목표

27) 잠실 국제공모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강변 스포츠·문화타운인 '잠실 워터프론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잠실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은 잠실한강공원의 잠재력과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한강을 대표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노베이션하고 서울의료원 부지와 한국전력 부지를 스포츠문화타운으로 재생한다. 2) 탄천 둔치와 서울의료원 부지를 연결하고, 잠실한강공원에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조성한다. 3) 잠실 광역터미널을 설치하여 수상교통을 강화한다. (박경아, 2009)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3단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특별시,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2016)

로 명시하고 있어, 한강변 즉 한강시민공원과 올림픽대로 이남 제내지(堤內地) 간 연결성 향상이 주요 쟁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의나루 공모는 미래 한강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 설계 공모로, 앞서 살펴 본 잠실 국제공모와는 달리 한강을 중점 관심 대상으로 한 공모였다. 이 공모는 한강 관광 및 일상적 이용의 허브(hub)이자 도시와 자연경관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명소로서 '여의나루'라는 통합선착장 설계를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28], 선착장과 연계한 주변 공간의 재설계 또한 공모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착장의 기능뿐 아니라 한강 관광 활성화 및 경관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 발굴하고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20] 한강 여의나루 국제설계공모 포스터

자료: 여의나루 국제설계공모 지침서

[28] 통합선착장 '여의나루'는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 내용 중 일부로, 피어데크인 '여의정(亭)', '여의마루(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인 '아리문화센터'와 함께 4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 3 절 소결

한강공원이 있기 아주 오래 전부터 여가는 한강이 담당하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강은 수려한 경관과 물이라는 놀이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물놀이, 뱃놀이, 낚시 등 다양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공공의 공간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제 1차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물리적인 단절과 오염으로 잠시 시민들과 멀어졌던 한강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도심 수경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을 계기로 재탄생하여, 강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체육공원을 지닌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게 되었다.

한강공원은 당시 '체육공원'이자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운동공원으로서 기능하되, 생활권의 크기에 따라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13개 지구로 나뉘어 계획되었다. 여의도, 반포, 뚝섬을 포함한 소수의 지구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동일한 공간 구성과 시설 배치를 지녀 콘크리트 제방과 잔디광장, 체육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강공원의 공통적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개장 이후 한강공원은 쭉 한강공원만을 전담하는 정부 산하의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 관리되어 왔다.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 이후 2015년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각 계획은 저마다 기조를 달리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었다. 한강과 한강공원을 대하는 태도는 초창기에는 치수와 방재에 치우쳐 있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수와 환경보전을 거쳐 친수, 복합문화공간 조성, 자연성 회복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개장 초기에는 단순한 휴식공간, 체육공간으로 인식되고 물 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생태 보전 또는 복원의 진정성이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관리계획 하에 한강공원은 매해 그 운영과 관리의 방향이 책정되었다. 분석 결과 운영·관리 업무는 한강공원이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까지 약 10여 년간은 시설 및 공간 확충과 정비, 조경공간 조성, 수질 관리, 이용질서의 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큰 나무 식재와 자연형 호

안 조성, 접근시설의 정비와 확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생태공간 조성, 다양한 방식으로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공원의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고 공간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 번의 공모를 통해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공간에 대한 현안과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들을 알 수 있었는데, 여의도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방식의 친수공간 조성이었으며, 잠실 공모에서는 한강공원과 제내지 및 주변 하천과의 연계성 제고가, 여의나루 공모에서는 관광 및 수상이용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과제였음을 확인하였다.

제 4 장 공원 이용 방식의 정착 과정

한강공원 이용행태의 정착 과정은 권력을 지닌 주체에 의해 결정된 공원의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순응적 이용행태'의 경우와, 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공원 이용자들의 '주체적 이용행태'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조성 의도에 맞게 공원을 이용하는 순응적 이용행태는 대부분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유의 성격을 띠는 주체적 이용행태는 공원과 지속적으로 갈등하며 힘겨루기를 이어 왔다. 이 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욕구에 의한 주체적 이용행태가 동시대 한강공원과 물리적·비물리적으로 갈등하며 공원의 변화를 가져온 과정 및 결과에 주목하였다.

제 1 절 순응적 이용행태

도시화를 이룩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서울은 여가공간 조성보다는 시가지 정비와 개발에 치중하여 "놀 만한 곳이 거의 없는 대도시"였다 (롤러 스케이팅·스케이트 보드 「아스팔트 레저」 붐, 1980). 도시와 자연을 대척점에 놓는 담론이 형성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도시인 서울은 자연과 대조되는 삭막하고 황폐한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김정은, 2017: 161). 조정송 (1983)은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도시 경관의 황폐화와 비인간화를 지적하면서,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옥외 활동을 즐기고 그 활동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오락·문화 활동을 위한 장(場)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강공원이 조성되기 이전까지 서울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옥외 공공공간이 부족한 대도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전까지는 뚝섬과 이촌 등 주요 몇몇 지점에 한해 강변과 수면을 소극적으로 유원지로 이용했을 뿐, 주로 우수와 오수를 흘려 내보내는 배수로에 지나지 않았던 한강은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을 거치며 비로소 서울의 주요한 오픈스페이스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한강시민공원을 통해 둔치를 드나들고,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유람선을 타 보면서 비로소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황기원, 2001: 423). 한강

시민공원의 조성은 본격적인 '하천문화시대'의 개막 (取材데스크 送年좌담 底力으로 試鍊이긴 한해를 돌아본다, 1986)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도로로 인한 단절, 오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접근과 이용이 어려웠던 한강이 생활의 터전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여겨졌다(김건태, 1986: 78).

공원 개장 직후 3, 4년 정도는 여러 매체를 통해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묘사, 한강종합개발 또는 한강시민공원의 성패에 대한 논쟁,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록 매체를 통한 논의뿐만 아니라 당시 한강공원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좌담이나 인터뷰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29] 이는 현황에 대한 인지와 성찰의 목적 외에도 한강공원을 매체에 자주 노출시켜 방문을 장려하고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을 홍보하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개장 직후 한강공원의 경관—공원의 풍경과 시민들의 이용행태—이 잘 묘사된 신문 보도 및 칼럼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 성급한 낚시꾼의 찌를 심심치 않게 건드리는 물고기, 한가롭게 떠다니는 철새떼, 강변산책로의 노부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아이들, 강물을 가르는 윈드 서퍼들의 모습들이 모두 살아 흐르는 한강을 말해준다. (김건태, 1986)

> 특히 한강을 찾은 시민들 중에는 가족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운동시설은 각 직장, 친목회, 조기회 등에서 많이 몰려와 이제 예약을 하지 않고는 운동시설을 빌 수 없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변화는 고궁이나 왕릉 등으로 가던 국민학교 및 유치원생들의 소풍이 한강시민공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이처럼 한강공원은 개장과 동시에 시민들의 옥외 여가공간으로 급부상하였고, 이내 체육활동이나 낚시, 연날리기 등의 여가활동을 비롯, 아동과 청소년의 현장학습을 위한 장소로서 단단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29] 1986년 9월 9일에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누가 자갈을 보았는가'는 한강종합개발 완공을 기념하는 특집프로그램으로, 한강종합개발의 배경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등을 담았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1986년 12월에는 김영식과 시인 이근배의 한강시민공원 관리 및 이용 실태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졌다. 1989년 6월 15일에 방영된 KBS의 '현장기록, 요즘 사람들'에서는 한강시민공원 관리직원을 만나 시민공원의 시설 이용과 환경 실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평일에는 주로 새벽부터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나온 시민들이, 주말을 비롯한 휴일에는 주로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이 공원을 찾았으며 여름철에 이용객이 특히 집중되었다(김태근, 1992: 102). 한강공원의 광경을 묘사한 보도자료는 1986년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표 4-1), 이를 종합함으로써 한강공원의 이용행태 면에서의 특징과 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보도자료 사례이다.

> 86년 9월 문을 연 한강시민공원은 저녁시간 이후의 치안부재 등 개선해야 할 몇가지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휴식공간임에는 틀림없다. 강변길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나 파릇파릇 돋아난 잔디 위를 즐겁게 뛰노는 개구쟁이들, 스포츠 경기에 비지땀을 흘리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제 한강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이다. (김태근, 1992)

> 도심 속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싱그러운 풀냄새와 한가로이 연을 날리며 뛰노는 아이들, 잔디를 베개 삼아 푸른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젊은 연인들.... 모두가 요즘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평화로운 광경들이었다 (漢江공원 매점 바가지 시중보다 2倍나 받아, 1992).

[표 4-1]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묘사한 보도자료 목록

시기	제목
1986.06.17(경향신문)	맑아진 물길 36㎞…새 낚시名所로
1986.08.01(매일경제)	말쑥해진 漢江 대단위公園化
1986.09.11(동아일보)	“새로운 漢江 보니 기분 상쾌해”
1987.06.17(경향신문)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09.09(경향신문)	漢江 앞으로 더 맑아진다
1988.02.12(경향신문)	한강고수부지에서 연날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휴일마다 늘어나
1988.07(월간 2000년)	포커스: 여름 한강
1988.10.21(매일경제)	韓紙와 대나무의 “공중곡예”
1990.07.19(동아일보)	여름 江바람…낭만의 뱃길… 漢江避暑유람

이 장에서는 과거 한강공원의 주요 이용상(利用像)과 공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시적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강공원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를 수집, 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

였다.[30] 이는 한강공원을 홍보하는 관점이나 보도 상에 드러난 공원 이용행태에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신문을 통해 살펴 본, 대중들에게 인식된 한강공원의 대표적 이미지는 시민들의 '휴식처', '체육공간', '수상레포츠' 의 조합으로 그려진다.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어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한 공간,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상레포츠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미지화(化)된 것이다. 한강공원에 대한 홍보는 위의 세 가지 매력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관점에서 그 이용행태가 묘사되었다. 대표 사례로 공원 홍보와 방문 권장의 내용을 담은 1995년의 한 신문기사와 함께 실린 지구별 시설 안내도를 보면, 공원내 시설의 성격 역시 운동시설과 수상놀이시설, 레저교양시설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 이는 당시 한강시민공원이 대중들에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으로 인지되던 실정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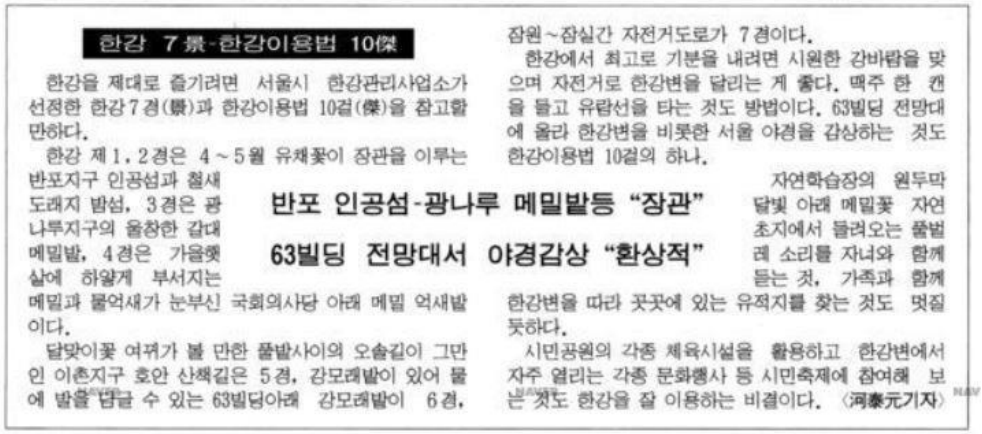
---

30) "맑아진 물길 36㎞…새 낚시名所로"(경향신문 1986.06.17), "말쑥해진 漢江 대단위 公園化"(매일경제 1986.08.01), ""새로운 漢江 보니 기분 상쾌해"" (동아일보 1986.09.11),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경향신문 1987.06.17), "漢江 앞으로 더 맑아진다" (경향신문 1987.09.09), "한강고수부지에서 연날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휴일마다 늘어나" (경향신문 1988.02.12), "포커스: 여름 한강" (월간 2000년 1988.07), "韓紙와 대나무의 "공중곡예"" (매일경제 1988.10.21), "여름 江바람…낭만의 뱃길… 漢江避暑유람" (동아일보 1990.07.19), "한강 시민공원 대중 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한겨레 1991.04.23), "한강 소풍놀이" (한겨레 1992.04.23), "시민공원 봄단장 한강 賞春客에 "손짓"" (경향신문 1995.04.16), "한강공원 봄단장 시민들에 "손짓"" (경향신문 1996.04.16), "여기는 레포츠 천국 가자! 한강으로" (경향신문 1997.04.12), "한강 7景-한강이용법 10傑" (동아일보 1997.04.14), "한강 시민공원 가족 나들이 가보자" (동아일보 1997.04.14), "알뜰살뜰 가족나들이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동아일보 1998.05.02), "시원한 강바람에 스트레스 '훌훌' 한강시민공원" (경향신문 1998.06.10).

[그림 4-1] 한강시민공원 시설 안내(1995)

자료: 경향신문, 1995.04.16

시설이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의 대단지 꽃밭, 자연학습장 등 경관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와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신문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서울시는 '한강 7경(景) 10걸(傑)'을 선정하여 대중에 한강의 매력을 소개하기도 하였다(그림 4-2). 반포지구의 유채꽃밭과 밤섬의 철새도래지, 광나루지구의 메밀밭, 국회의사당 앞의 메밀밭과 억새밭, 초화가 가득한 이촌지구의 산책로, 여의도지구의 백사장, 잠원~잠실 간 자전거도로가 한강 7경에 해당한다.



한강 7景-한강이용법 10傑

한강을 제대로 즐기려면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선정한 한강 7경(景)과 한강이용법 10걸(傑)을 참고할 만하다.

한강 제 1, 2경은 4~5월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는 반포지구 인공섬과 철새 도래지 밤섬, 3경은 광나루지구의 울창한 갈대 메밀밭, 4경은 가을햇살에 하얗게 부서지는 메밀과 물억새가 눈부신 국회의사당 앞래 메밀 억새밭이다.

달맞이꽃 여뀌가 볼 만한 풀밭사이의 오솔길이 그만인 이촌지구 호안 산책길은 5경, 강모래밭이 있어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63빌딩아래 강모래밭이 6경, 잠원~잠실간 자전거도로가 7경이다.

한강에서 최고로 기분을 내려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로 한강변을 달리는 게 좋다. 맥주 한 캔을 들고 유람선을 타는 것도 방법이다. 63빌딩 전망대에 올라 한강변을 비롯한 서울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한강이용법 10걸의 하나.

자연학습장의 원두막 달빛 아래 메밀꽃 자연 초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자녀와 함께 듣는 것,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따라 곳곳에 있는 유적지를 찾는 것도 멋질 듯하다.

시민공원의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한강변에서 자주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 등 시민축제에 참여해 보는 것도 한강을 잘 이용하는 비결이다. 〈河泰元기자〉

반포 인공섬-광나루 메밀밭등 "장관"

63빌딩 전망대서 야경감상 "환상적"

[그림 4-2] 한강 7경 10걸

자료: 동아일보, 1997.04.14

그 밖에, 시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는 공원 내 체육시설과 수상레포츠 시설의 이용에 대한 광고 및 안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달리기나 산책, 자전거타기 등이 벌어지는 대중적 체육공간으로서의 모습과 수상레포츠 이용 모습, 체육시설의 인기에 대한 보도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강공원은 지금까지도 공원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능, 즉 산책과 휴식, 운동과 체육 등 기본적인 옥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31] 특히 한강이 주는 시원한 이미지로 인해 한강변은 여름 밤 산책이나 휴식, 간단한 운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으로 형성되어 왔다.[32] 눈에 띄는 점은 좋은 날씨를 만끽하거나 기분전환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 특히 여름철 더위를 쫓기 위한 곳으로 한강공원이 여타 어느 공원보다도 선호되는 장소라는 점이다.[33] 한강변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

---

31) 대중가요는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형태로서 당시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미 대중가요 연구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다. 가사만으로 가요의 가치를 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대체로 가사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장유정, 2015).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상적인 한강공원의 풍경과 한강공원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 대중가요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2015년의 대중가요 「한강」과 「한강 로맨스」에는 오늘날 한강공원의 일상 풍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저기 봐 할머니 할아버지 /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지 / 아이들은 분수에 몸을 적시고 / 연인들은 음악에 잠시 멈칫 / 여자들은 남자 어깨에 살며시 … 노을 진 강가 옆에 연날리는 사람들 … 자전거 간다 조심해 빨리 건너가 … 전단지는 이제 그만 이미 열 장 째 … (백승환, 2015)', '어깨를 맞대며 볼에 키스하는 연인들 / 수다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 / 넓은 풀밭을 뛰노는 꼬마 아이들 / 저마다 다른 한강의 그 풍경 속 시작되는 / 너와 나의 우리 둘의 한강 로맨스 (11시11분 & 동경소녀, 2015)

32) '무더운 여름 밤 같이 있고 싶어 / 시원한 한강 같이 걷고 싶어 / 돗자리랑 배드민턴 채 챙겨 나와 (스타트랙, 슬리피, 송지은, 2015)', '이 여름 밤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 강바람은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심현보, 2015)'의 가사에서 한강 또는 한강공원은 너른 잔디밭과 시원한 강바람이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33) 이는 다음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인용된 가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날씨 좋은데 한강에 가자'는 노랫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화자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찾는 곳 중 하나로 '한강'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 '그림 같은 곳'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대신 달래주는 가까운 장소로 한강이 언급되기도 한다: '그림 같은 곳 여행할 수도 있겠지만 / 그 때 생각난 단체방 / 한 명도 예외 없이 함께 봐 / 돗자리는 내가 챙길 테니까 / 30분 뒤 한강은 어떨까 … 한강 다리 밑 돗자리가 비좁아 … 지는 해에 맞춰 맥주 캔을 내려 놔 (한민세, 크래커, 제이키, 2017)', '어

는 장소이자 한편으로는 멀리 도시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해방감 또는 마치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즉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강공원은 이제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벌어지는 곳이다. 가족 단위의 방문자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에 비해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낮아진 지금은 젊은이들 또한 즐겨 찾는 여가장소로, 그 이용행태의 폭이 보다 넓어져 다양하게 나타난다. 야간의 이용 또한 활성화되어 밤에도 활기 넘치는 여가공간이며 낮과는 다른 밤만의 풍경을 형성하기도 한다(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되었으며 그 요인은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면서 시민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비경제적 목적의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여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이전까지의 여가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개념에 그쳤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존의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레저나 스포츠, 문화 및 축제 활동에의 참여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김상황 · 윤대식 · 김갑수, 2004: 42). 이 절에서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행태, 즉 보편적 규범 이내의 활동들을 산책과 휴식, 운동과 체육, 관람과 구경, 수상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34)]

디야 girl let's ride a bike come on / 날씨 좋은데 한강으로 모여 /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SOLE, THAMA, RIDE, 2017)’, ‘여보세요 / 어디야 / 그냥 집에 있어 / 날씨도 좋은데 한강은 어때 (산이, 2016)’, ‘반복되는 일상에 때론 숨이 가빠 / 날씨도 좋은데 단둘이 놀러 갈까 / 뚝방 한강 부산 어디든 가서 /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컷 웃자 (태완, 개리, 크러쉬, 2013)’.

34) 서울시 통계에서는 공원에서의 활동을 ‘산책과 휴식’, ‘운동’, ‘동호회 · 레저 활동’, ‘공연 관람 등 행사 참석’, ‘자연학습장 · 생태공원 방문 등 교육 목적’,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크게 ‘산책과 휴식’, ‘운동과 체육’, ‘관람과 구경’으로 구분하고, 한강공원 조성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수상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에 걸맞게 ‘수상활동’까지도 포함하였다.

1. 산책 · 휴식

[그림 4-3] 1980년대 후반 시민들의 산책 및 휴식 모습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4-4] 오늘날 한강공원의 산책 및 휴식 모습
(좌: 2018.05.12. 촬영, 잠실한강공원. 우: 2017.09.29. 촬영, 반포한강공원)

산책과 휴식은 공원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로, 여타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한강공원에서도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행태가 보여져 왔다. 한강공원은 탁 트인 경관과 넓은 잔디밭, 매력적인 수경관으로 인해 산책 및 휴식 이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개장 직후와 2018년 현재 그 모습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그림 4-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강변의 제방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거나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풍경이 잘 묘사된 1993년의 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는 오늘날 한강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4).

>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는 한강시민공원 중에서 가족단위로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가장 잦은 곳이다. … 잠실한강시민공원은 휴일이면 으레 하루종일 인파로 북적대지만 평일에는 해가 떨어진 저녁시간부터가 피크타임이다. … 인근주민들은 저녁시간대 잠실한강시민공원의 매력으로 한강변을 낀 제방로와 넓은 잔디밭을 꼽는다. 도시의 야경이 비치는 한강수면 옆을 따라 늘어선 길이 5km 의 공원내 제방길을 걷는 저녁산책이 일품일 뿐 아니라 잔디밭이 곳곳에 조성돼 있어 어디서나 돗자리를 펴고 가족들과 쉴 수 있다는 것 (잠실한강공원 저녁땐 가족단위 산책 人波, 1993).

한강공원이 인기 있는 산책과 휴식의 장소가 된 데에는 첫 번째로 수변공간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강은 예로부터 오랫동안 조망의 대상이었다. 한강공원은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강을 조망함으로써 수공간이 주는 심리적인 회복효과를 누리기 위해 시민들은 이를 찾게 되는 것이다.[35] 근대에 이미 한강은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좋은 피서지로 기능하고 있었고, 한여름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회복과 일탈을 위해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다.[36] 이후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 뒤에도 한강과 한강 둔치는 여전히 대도시 한가운데의 자연 요소로서 도시민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기능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조망 장소로서의 한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독립적이지 않으며 사실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강공원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한강과 한강변의 건축물 그

---

35) 자연경관 중 물을 포함하는 장소에서 '회복환경'으로서의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이 발견된 바 있다. 또한, 도심수변공간은 심신회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하천경관이 인공경관에 비해 기분개선 효과가 월등함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도심 속 하천공간인 한강공원은 여가공간으로서 인간의 회복경험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수변공간은 심신회복공간, 지식정보습득공간, 위락 · 흥미공간, 가족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친목교류공간, 문화행사 및 학습체험공간, 건강관리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강영애, 이지윤, 이수, 2013, 페이지: 354).

36) 일상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회복환경으로서 한강공원을 찾으며 이를 통해 한강공원이 도심 속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영애, 이지윤, 이수, 2013). 도시민의 여가행태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현대 도시민들이 얼마나 정서적 안정과 자연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가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반영운 외, 2008, 재인용), 한강공원은 이러한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 주는 좋은 공공공간이었던 것이다.

리고 그 배후산(背後山)이 함께 형성하는, 서울의 상징경관인 대안부(對岸部) 경관을 조망하는 것이다. 한강공원 개장 초기의 매체 자료를 보면, 당시 한강을 유람하며 강변의 경관을 조망하는 문화가 성행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이 개발되면서 강변을 따라 밀집한 아파트에 의해 사유화되었던 한강 경관이 한강공원을 통해 자유로운 접근과 감상이 다시금 용이해지면서, 조망 장소로서의 한강공원의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7)]

지금도 한강변은 조망의 대상이자 조망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도시민들의 인식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변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의 매력은 연구자가 진행한 시민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장조사 결과 한강공원 이용자 중 정적 행태를 보이는 이들은 주로 한강과 가까운 곳, 또는 한강과 멀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5). 이처럼 고층화, 고밀화된 대도시 서울에서 한강변은 드물게 탁 트인 경관을 제공하는 곳으로, 물이 주는 회복효과와 함께 심리적 해방감을 제공하는 자연경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수경관의 매력과 끊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의 조합은 한강을 '걷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이용자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즐겨 찾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였다(사례 4).

[그림 4-5] 한강이 바라보이는 방향과 위치를 차지한 이용객들
(좌: 여의도한강공원, 우: 반포한강공원)

37) 개발과 공원 조성 이후 밋밋했던 한강변에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시민과 한강이 단절되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한강 경관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는 배타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레스토랑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한강 경관을 향유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기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셋째, 한강공원은 도심 속 옥외 여가공간으로서는 독보적인 규모의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면적이 매우 넓고 평탄하며 장애물이 없어, 여가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게 분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연날리기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38] 실제 조성 당시의 공사계획도를 보면 '연날리기장'이 다수 설계되어 있다.[39]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연날리기를 민속놀이의 하나로 장려하고, 연날리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이에 순응적인 이용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민속놀이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에 의해 적극 장려되면서 연날리기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연 날리는 모습은 한강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 광경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의도와 잠실지구는 휴일마다 수백 명의 동호인들이 방문할 정도로 연날리기를 위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었다 (한해의 꿈 鳶에 실어 드높이, 1990).

[그림 4-6]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1990)

자료: 국가기록원

한강공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유치원 및 국민학교 아동들의 소풍 및 현장학습 장소로 인기가 많았다(그림 4-7).[40]

---

38) "漢江공원 매점 바가지 시중보다 2倍나 받아(동아일보, 1992.06.22)"

39) 당시 제2한강교(망원동쪽)(현 망원지구), 여의도지구, 제1한강교(현 이촌지구), 반포지구, 제3한강교(현 잠원지구), 잠실지구, 천호지구(현 광나루지구)와 광나루지구까지 총 8개 지구에 연날리기장이 계획, 조성되었다.

40)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경향신문, 1987.06.17)", "아름다운

이는 잔디밭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를 위한 교통교육장, 자연학습장 등을 보유하여 어린이 단체이용객들의 야외 활동 및 자연학습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의 현장학습 장소가 고궁이나 왕릉에 치우쳐 있었다면, 한강시민공원이 개장하면서 새로운 소풍 장소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박미애 (1995)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 한강공원을 소풍 장소로 찾는 주 이용자층은 유치원생과 국민학교 저학년이었다. 이들은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잔디밭에서 식사와 놀이 활동을 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와는 달리 고학년의 경우 다목적 운동장이나 광장과 같이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 또는 비일상적인 체험이 가능한 수상레저시설을 선호하였다.

[그림 4-7] 1988년(좌)과 1992년(우)의 소풍 모습

자료: 경향신문, 1988.05.12 (좌) 한겨레, 1992.04.23 (우)

교육기관에 의한 학생 교육 차원의 소풍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 동료 단위의 방문자들에 의한 피크닉[41]은 개장 초기 성행하던 공원 이

漢江, 새롭게 태어났다(경향신문, 1988.05.12)”, “여름 江바람…낭만의 뱃길…漢江 避暑유람(동아일보, 1990.07.19)”, “한강 소풍놀이(한겨레, 1992.04.23)”

[41] 피크닉(picnic)은 프랑스의 ‘pique-nique’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유래한 여가활동이며 우리의 전통적, 대중적인 여가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우리 문화에서 유사한 개념으로는 ‘소풍(消風)’이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 야외에 나갔다 오는 일, 혹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견학을 겸하여 야외로 나갔다 오는 일을 뜻한다 ("전유", 날짜 정보 없음). 비슷하게는 옛날부터 즐겨 온 꽃놀이나 가을 단풍놀이 등을 들 수 있겠다.

용행태 중 하나였다(표 4-2). 피크닉이 성행한 것은 전술한 세 가지 요인—수변공간의 심리적 효과, 한강 경관 조망의 기회,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넓고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2] 피크닉 장소로서 한강

시기	제목
1987.06.17(경향신문)	한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
1988.07(월간 2000년)	포커스: 여름한강
1993.04.13(경향신문)	봄꽃 단장
1995.04.30(경향신문)	잔디밭서 온가족 봄나들이

피크닉은 특히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휴식의 유형이다. 이정섭(2014)에 의하면 오늘날 한강시민공원의 타 도시공원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이용행태가 바로 피크닉이며, 피크닉이 현재 한강시민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용행태라고 할 수 있다[42].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현장 조사 자료로, 잠원한강공원 인근에 20년 째 거주하며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공원의 변화를 지켜 봐 온 시민과의 인터뷰 기회를 확보하였다(사례 1). 과거에 비해 이용자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특히 일몰 이후의 저녁 시간에 운동뿐만 아니라 피크닉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1980년대 이후 가까운 산천, 교외로 피크닉을 나가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임승빈, 2007, 페이지: 353), 최근 들어 공원에서도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42] 한강에서의 피크닉 행태가 나날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 또한 대중가요의 가사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대체로 잔디밭, 돗자리, 음식, 맥주 등의 키워드의 조합으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사고서 / 과자 한 봉지 손에 들고서 / 걷는 거리 여름 날에 … 한강에 돗자리 펴고서 / 맥주 한잔 나눠 마시면서 / 가끔씩 너에게 날아온 / 모기 한 마리를 쫓아 내 주다가 … 한강에 자주 왔었다고 (김진호, 2013)', '무더운 여름 밤 같이 있고 싶어 / 시원한 한강 같이 걷고 싶어 / 돗자리랑 배드민턴 채 챙겨 나와 (스타트랙, 슬리피, 송지은, 2015)', '이 여름 밤 그냥 자긴 아깝잖아요 /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 강바람은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심현보, 2015)', '한 명도 예외 없이 함께 봐 / 돗자리는 내가 챙길 테니까 / 30분 뒤 한강은 어떨까 … 한강 다리 밑 돗자리가 비좁아 … 지는 해에 맞춰 맥주 캔을 내려 놔 (한민세, 크래커, 제이키, 2017)', '드넓은 잔디밭 위에 돗자리 펴고 /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고 / 시간이 어느덧 흘러 밤 되면 / 시원하게 치맥 한 잔 해 볼까 (11시11분 & 동경소녀, 2015)'.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특히 여의도한강공원과 반포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인근 상업, 업무 지역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시락이나 포장된 음식을 가져 와 짧은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4-8, 사례 5).

[그림 4-8] 직접 싸 온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
(2018.04.03 촬영, 반포한강공원)

특히 최근에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의 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장비 또한 고급화, 전문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캠핑 문화가 보편화되고 국내여행, 캠핑을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캠핑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였고 덩달아 캠핑 이용객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자연히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양상도 예전에는 대체로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간단한 형태였다면, 오늘날에는 일반 그늘막과 그늘막 텐트, 야영용 텐트, 야영용 테이블 등 보다 고급화된 장비를 수반하는 형태가 증가하였다. [그림 4-9]은 이 같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한 공간 안에 돗자리와 텐트, 그늘막 등 이용자의 선호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장비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그림 4-9] 다양한 형태의 피크닉
(2017.09.16 촬영(좌), 2018.05.26 촬영(우), 반포한강공원)

2. 운동·체육

[표 4-3] 매체에 나타난 체육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43)]

시기	제목
1986.08.01(매일경제)	말쑥해진 漢江 대단위公園化
1987.06.17(경향신문)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09.18(동아일보)	코스모스길 달리며 체력단련 가을철 자전거하이킹
1988.08.17(경향신문)	漢江시민공원에「스포츠교실」
1989.06.07(한겨레)	한강변공원 시민쉼터로 각광
1989.11.15(매일경제)	한강시민公園 스포츠교실 인기 사회體育센터 7지역 개설운영
1989.11.16(경향신문)	漢江 스포츠교실「건강한 삶」가꿨다
1990.03.24(경향신문)	"運動으로 겨우내먼지 말끔히"
1990.04.12(경향신문)	漢江공원 갈수록 人氣
1990.04.12(동아일보)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급증
1990.04.13(한겨레)	한강공원 시민발길 잦다
1990.05.12(경향신문)	週末 사이클 同好人 늘었다
1991.04.23(한겨레)	한강 시민공원 대중 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1991.05.02(경향신문)	"漢江레포츠 기지개켠다"
1991.07.16(한겨레)	무더위 휴가철 생활체육으로 활력을
1991.09.12(동아일보)	漢江시민공원 스포츠교실 운영
1992.07(월간 2000년)	색다른 한강시민공원 이용법

43) '한강공원' 또는 '고수부지', '체육' 또는 '스포츠' 중 각각 키워드를 하나씩 조합하여 검색한 신문 기사를 정리하였다.

한강시민공원이 애당초 '체육공원'으로 계획, 조성된 만큼 개장 이래 지금까지 가장 활발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이용행태는 운동 및 체육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넓은 면적의 광장 및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성격의 야외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고, 다양한 스포츠 및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지금도 활발한 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한강공원은 조성 초기부터 축구장·야구장·정구장 등 다양한 구장과 연날리기장, 씨름장, 스케이트장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당시 많은 신문 매체에서는 체육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는 과거 한강시민공원의 풍경을 묘사하였다(표 4-3).

신문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체육공간으로서의 한강시민공원의 이용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첫째, 달리기나 자전거타기 등 일상적인 여가로서 개인적인 체육활동을 하거나, 둘째, 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단체 체육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셋째, 한강공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 강습을 받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한강공원의 모습은 개장 초기 인기리에 이용되는 한강공원의 풍경을 묘사한 다음의 신문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86년 9월 완공된 한강시민공원은 이른 새벽부터 조기축구와 생활체조, 조깅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노년층의 시민들로 활기를 띠고 낮에는 야유회, 체육대회, 가족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 한국사회체육센터 생활체육지도교사 전만동(31)씨는 "한강시민공원이 이제는 일반대중의 생활체육장으로 사랑받기 시작했다"며 …….(한강변공원 시민쉼터로 각광, 1989)

특히 개장 초기,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 무료로 체육 교습을 제공하는 '스포츠교실'과 예약이 필요한 체육시설들—주로 스포츠 구장—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일찌감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시에 참여 또는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매우 성행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난 보도자료와 대담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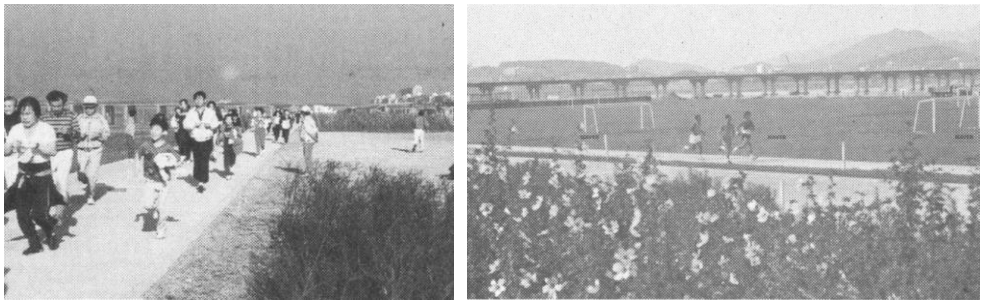
> 영등포구청 공원과의 尹봉섭씨는 "체육공원은 한 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 1일 현재 30여 건이 예약 돼 8월 사용은 계약이 끝난 상태, 지난 7월에는 1백여 건이나 밀렸다"고 말한다.("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 특히 체육행사가 많은 10월에는 한꺼번에 몰려 시간여유를 두고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들은 발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되느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기준은 신청 순서입니다. (김영식 · 이근배, 1986)

시간이 지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대중 체육공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강공원은 큰 단체나 모임의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가 벌어지는 장소였으며,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실습장으로, 가까운 도심에서 요트나 윈드서핑과 같은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옥외 레저공간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다음은 체육공원이라는 관점에서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실태를 설명한 한 신문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 서울을 관통하며 흐르는 한강이 시민들의 각박한 마음을 적시는 놀이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86년 9월 준공된 한강유역은 완공 5년째를 맞아 각종 체육행사나 대회가 열리는 등 도심 속의 커다란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의 등산길 외에는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는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 유역은 축구 · 야구 · 게이트볼 · 에어로빅 등 각종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실습장이기도 하다. ... 지난해 연 누계 1천 1백만이 이용한 한강시민공원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1백 27만여 명이 이용, 한 달 평균 30만여 명이 공원을 찾은 셈이다. (한강 시민공원 대중 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1991)

한강변을 아우르는 한강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는 한강공원만의 특장점으로, 선적인 이동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형성하여 개인 이용객들의 조깅 또는 자전거 하이킹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 그 거리가 매우 길면서도 지구 간 네트워크가 양호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타 도시공원에는 없는 한강공원만의 특징이다. 제 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에 의해 광나루에서 행주대교에 이르기까지 강남측 고수부지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개장과 동시에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이 당시 자전거도로는 오늘날 자전거전용도로와는 거리가 먼, 이용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산책로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이 함께 이용하였다(그림 4-10, 그림 4-11).



[그림 4-10] 한강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는 모습(좌: 1989년, 우: 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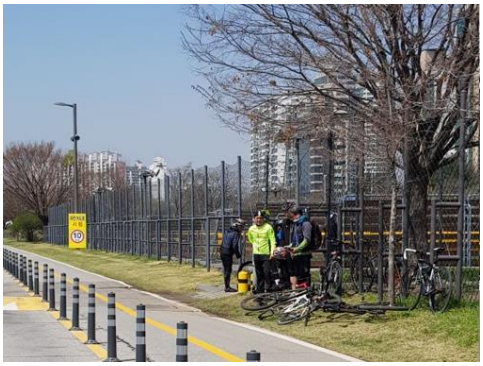
자료: "漢江(한강) 스포츠교실「건강한 삶」가꿨다", 경향신문, 1989.11.16

[그림 4-11]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모습 (1987년)

자료: 경향신문

이는 도심 속의 몇 안 되는, 장거리 구간의 자전거도로로 이루어진 좋은 하이킹 코스로 종종 매스컴에 소개되었다.[44]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정비와 개선을 거듭하여 오늘날 수준 높은 자전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날 한강의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들부터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그림 4-12), 고급 장비를 갖추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까지(그림 4-13) 다양한 계층의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6).

[44] "봄빛물든 산록 자전거로 누빈다(한겨레, 1995.04.28)"에서는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초보자나 어린아이가 다니기 쉬운 코스로 소개하고 있다.



[그림 4-12] 전문 장비를 갖춘 자전거 동호인들 (2018.04.09 촬영, 이촌한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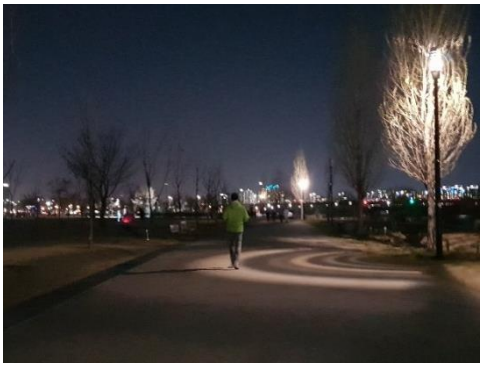
[그림 4-13] 가볍게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2017.09.23 촬영, 뚝섬한강공원)

조깅 또는 걷기 역시 현재 한강변에서 가장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행태 중 하나이다. 지구와 지구를 연결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보행로는 그 규모를 고려할 때 한강공원만이 갖는 특징으로, 길이가 긴 선형의 공간인 한강의 물리적 속성을 잘 활용하여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다. 여러 회에 걸친 관찰 결과, 조깅이나 걷기는 주말보다 주중,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많이 관찰되었으며 행위자로는 주로 중·노년 이용자들이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우세하였다.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오전보다 젊은 연령층 행위자들이 비교적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하루 일과를 마친 뒤 가벼운 운동을 위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대상지 답사 및 이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현장조사 결과, 자전거도로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관리의 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개장 초기에 비해 자전거 이용자의 수도 따라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저녁 시간대 이용의 방법으로 자전거를 비롯하여 가볍게 걷기, 조깅, 반려견 산책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음을 함께 알 수 있었다(사례 2, 사례 4).

[그림 4-14]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 (2017.9.26 촬영, 반포한강공원)

[그림 4-15] 농구를 하는 성인 2명 (2018.04.09 촬영, 이촌한강공원)



[그림 4-16] 야간에 조깅을 하는 중년 남성 (2018.04.07 촬영, 여의도한강공원)

[그림 4-17] 자전거와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 (2018.04.09 촬영, 이촌한강공원)

3. 관람 · 구경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의 성공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기념할 만한 것이었다. 개장과 동시에 한강공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한강축제'[45]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한강 또는 한강공원을 주제로 한 대대적인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다.[46] 이 시기의 한강공원에서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매년 장기간에 걸쳐 예술, 체육, 민속 등 다양한 성격의 행사를 망라하는 대규모의 한강 기념 축제가 개최되었다. 또, 한강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이나 사진 공모전, 한강을 주제로 한 야외 조형미술 전시 등 주로 문화 · 예술 성격을 띠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 장려되었다. 셋째, 카누나 조정, 요트 대회와 같이 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상 스포츠 경기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홍보 효과 또한 얻었다.

한강과 한강공원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개장 초기인 1980년대에는 주로 범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이벤트가 자주 개최되었다. 서울시 주관의 '한강축제', 문화공보부 주관의 '88서울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과 같이 한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행사들을 통해, 국가는 한강종합개발의 성공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 행사들은 주로 공연과 쇼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 예술 축제의 색채가 짙었으며 장터나 음식축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 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의 핵심이자 서울의 문화적, 경관적 도약을 상징하는 한강시민공원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축제[47]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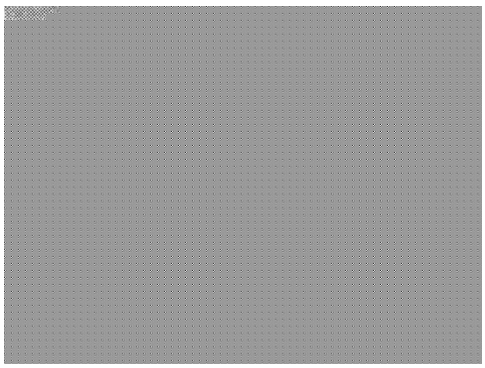
45) 1886년 9월 10일의 준공일을 전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강개발준공을 기념하는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때 공연 · 수상 · 문예 · 체육 · 민속 등 다양한 성격의 행사가 열렸는데, 한강을 주제로 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물고기 방류, 연주회, 체육대회, 강변가요제, 조정 경기, 윈드서핑 등 총 33개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漢江축제 내일 전야제, 1986).

46) 서울시는 준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1987년 9월 10일을 첫 '한강의 날'로 지정, 선포하고 매해 9월 10일을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7) 1888년에는 올림픽을 맞이하는 대규모 '한강축제' 가 여의도한강공원(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 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 개최된 대규모 시민참여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각종 공연과 대회, 축제, 레이저쇼 등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상징하는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국가의 발전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또한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었다.

이 때, 1988년 9월에 88 서울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가 여의도한강공원 잔디광장에 설치되었다(그림 4-18)[48]. 본래 처음에는 한강시민공원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뚝섬지구에만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설치된 이 임시 무대는 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폐회(閉會)와 동시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강공원 내 시설이 체육 시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화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 231).



[그림 4-18] 1988년 설치된 여의도한강공원의 야외무대(좌)와 이용 모습(우)

자료: 동아일보, 1988.07.12 (좌) 매일경제, 1990.11.02 (우)

한편, 서울시나 서울시내 구 단위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구민축제나 달리기 대회 등과 같은, 관에서 주관하는 보다 작은 규모의 행사 또한 벌어졌다. 이 외에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문화·예술 축제와 대규모 종교행사, 각종 스포츠 대회 등 그 성격과 규모가 매우 다양하였다. 1988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한강축제'와 한국불교

(88慶祝 대규모 漢江축제 펼친다, 1988). 한편, 뚝섬지구에서도 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일에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윈드서핑 퍼레이드와 행글라이더 공중곡예, 올림픽 개회식 상영회와 각종 공연 등이 펼쳐졌다 (뚝섬 漢江축제 10시간 마라톤 公演, 1988).

[48] 이는 여의도한강공원이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전야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의 주무대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이다.

대도시 한가운데의 자연 요소로서 한강은 도시민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고 해방감을 느끼도록 한다. 근대 이전부터 이미 한강은 오랫동안 관망과 풍류의 장소였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회복과 일탈을 위해 연중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자 도심 속의 좋은 피서지였다. 편안한 캠핑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설 및 공공 야영장 또는 캠핑장이 다수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캠핑장이 아닌 공공장소에서의 야영 행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강공원은 그 중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한때 야영이 금지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허용된 지금은 텐트와 그늘막 등 전문적인 캠핑 장비를 수반한 야영 모습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강공원에 마련된 피크닉장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영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은 피크닉장이 아닌 잔디밭이나 사면도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깔고 시간을 보내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28).

[그림 4-28] 야영 이용객 (좌: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 우: 뚝섬한강공원)

오늘날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야영을 허용하고 있는 시간 이외의 시간대에도 야영을 하려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특히 오전이나 낮 시간대보다는 해가 진 뒤의 야간에 주로 발견되었는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관리인들과 이용객들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림 4-29]은 규정 시간인 밤 9시가 지난 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한강공원 전역에 걸쳐 잔디밭에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야영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늘막이나 텐트는 개방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이용규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그늘막과 텐트를 닫은 채 야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야영 규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단속 또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29] 야영 금지 시간의 야영 이용객들
(2018.04.07 촬영, 여의도한강공원)

3. 취사 · 식음

1) 취사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모임, 단체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자연히 여럿이 모여 먹고 마시며 떠드는 행위가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형성되어 왔다(조경진, 2007: 51). 1990년대 당시 이러한 야외식음 행태는 비단 한강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과 계곡, 하천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가행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도시자연공원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먹고 마시기 식 여가행태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환경 오염 문제도 심화시켰는데,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극도로 성행하였다(정영선, 1990: 166).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따라 자연히 한강변에서도 자유롭게 피크닉을 하고 먹고 마시는 행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한강시민공원이 취사객들로 홍역을 앓은 것은 최근만의 일이 아니며, 개장하자마자 거리낌없이 취사도구를 들고 강변을 찾는 시민들로 한강공원은 고충을 겪기 시작했다. 개장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87년 6월에 이미 한 신문기사에서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인 공원에 취사도구를 갖고 와 음식을 해 먹는 시민들도 많아 대책이 아쉬운” 상황을 토로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한 수준에 이르렀다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1990년대에는 한강변에서의 취사가 유행처럼 번져 통제와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취사 활동을 벌였고, 범죄가 사그라든 1995년과 1996년에 최고조를 이루었다. 심지어 신문 기사에서도 한강시민공원을 "야외취사도 할 수 있는 낭만스러운" 잔디밭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 江바람...낭만의 뱃길...漢江避暑유람", 1990),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설비를 들고 나와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었고, 이는 비윤리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통제가 아닌 계도라는 비교적 약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단속 규정이 없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취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로 인한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9년부터 법적으로 하천에서의 취사가 전격 금지되었다(하천법 제46조 제6호 가목).[56]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서울의 이미지를 잘 드러낸 작품 중 하나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2005)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 그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않고 강변의 시멘트 난간 위에 올라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두 다리를 강 쪽으로 덜렁거리면서 개미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여의도 쪽을 건너다보았다. 거기에 비하면 보도블록 하나 옳게 깔리지 않은 마포 쪽의 강변은 황량하고 거칠었다. 이쪽에도 돗자리를 펴고 앉아 화투를 치거나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시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노동일을 하는 삼사십 대의 꾀죄죄한 사내들뿐이었다. (장정일, 2005: 276)

2) 배달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배달 음식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음식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57] 가정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음식을 배달시

---

56) 이 외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6호에서도 한강공원에서의 취사 및 야영을 금하고 있다. 이는 2000년 3월부터?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한강변 전구간을 취사/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57)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음식이나 우유 정도가 가정이나 사무실로 배달

켜 먹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림 4-30]은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던 1999년의 신문에 실린 광고를 수록한 것이다. ‘한강시민공원에 도시락 20개를 배달하고’ 현장에서 결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는 한강시민공원을 배달 장소의 대표 격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강시민공원이 당시 대표적인 ‘야외’ 배달 장소 중 한 곳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인기가 많은 옥외 공간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1986년 이후의 인터넷 뉴스 검색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한강공원’과 ‘배달’의 키워드 조합으로 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0년대 이후 비로소 한강공원에서의 음식 배달을 수반한 여가 행태가 하나의 ‘문화’로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년 ‘다음소프트’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만 해도 한강 나들이를 위한 준비물 중 음식 부문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던 '김밥'은 2012년부터 ‘치킨’ 에 역전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치킨이 한강 나들이 준비물 음식 부문의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2010년만 해도 치킨과 맥주의 조합을 가리키는 '치맥'은 준비물 18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14위, 2012년 9위, 2013년 8위, 2014년 7위로 점점 순위가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다 (최재원, 2015). 이와 같은 현상은 치킨의 유개념인 배달 음식을 즐기는 여가행태가 2010년대 이후 한강공원의 특징적인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가능한 음식의 품목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치킨 전문점이 등장, 배달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조기 퇴직자들이 대거 외식사업에 뛰어들어, 배달 음식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족발, 떡볶이 등 야식이 서비스 음식 대열에 대거 합류하면서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사실 이 같은 배달 서비스가 성행하게 된 배경은 소액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소규모 점포로 음식 장사를 하며 임대료와 권리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배달 서비스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규모 야식업체들은 배달 음식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곽재민, 2016).

[그림 4-30] 한강변의 배달 문화를 반영한 신문 광고(1999)

자료: 경향신문, 1999.10.27

3) 노점과 푸드트럭

한강시민공원이 개장하자 노점상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해 1989년에 극도로 기승을 부렸다(그림 4-31). 노점의 종류는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등으로 다양했으며 판매하는 품목도 인스턴트 식품에서부터 주류, 담배, 기념품, 완구류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공원 이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돈되지 않은 공원 경관을 형성하였다. 잡상인들은 공원 이용자들에게 물건 구매를 강요하여 질서를 어지럽혔다. 특히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경우, 파라솔이나 음료수대와 같이 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공원 이용을 방해하였고,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한 쓰레기를 공원과 한강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였다 (漢江공원 밤만되면 無法天地, 1989).

[그림 4-31] 노점으로 가득한 여의도 한강변(1989)

자료: 동아일보, 1989.06.17

공원 이용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노점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는 이를 단속하기 시작하였다[58]. 노점상을 정비하며 대신 서울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철거노점상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으로 간이매점을 설치하였다.[59] 간이매점에서는 음료수와 과자, 과일, 인스턴트 식품만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악취와 오염 문제를 야기했던 끓이는 음식, 즉 취사가 수반되는 음식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강변 간이매점 설치 철거 노점상들에 임대, 1989).

최근 들어 새로운 형태의 현대식 노점인 '푸드트럭'이 등장하면서,

58) "노점상 단속 전면재개(한겨레, 1989.04.22)", ""露店 절대금지" 21곳 지정(동아일보, 1989.06.13)" "29곳 千(천)2百(백)47개 露店(노점) 내달말까지 整備(정비) 완료(경향신문, 1989.07.25)" "漢江(한강)고수부지 露店(노점) 2百(백)8곳 새벽철거(동아일보, 1989.07.31)"

59) 여의도와 뚝섬, 잠실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간이매점을 설치하여 철거 노점상에 임대해주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원 내 식음행태로는 푸드트럭에서 즉석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을 소비하는 행태를 들 수 있다.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푸드트럭은 한강시민공원에도 출현하기 시작하였고,[60] 2014년의 단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푸드트럭 대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공원 이용 방식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와 반포지구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드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리며,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

[그림 4-32]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시민들 (2018.5.27. 촬영, 반포한강공원)

60) 푸드트럭은 본래 관광진흥법에서 규명하고 있는 '유원시설업' 에서만 설치 및 영업이 가능했으나, 2014년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을 포함하도록 그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2014년 3월 식품영업장소, 차량개조, 식품영업위생 총 세 부문에 관하여 '푸드트럭 양성화 계획' 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차례대로 규제가 완화되어 8월에 합법화되었다. 2015년 1월 '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도시공원 목록' 에 서울 458곳이 올랐으나, 매점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렵거나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차량진입이 불가한 등 허점이 많았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예술의전당 8개, 서서울공원 1개, 대학로 5개에 불과하였다. 뒤이어 2016년 7월 관련법 및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영업장소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 야영 장비를 지참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며(사례 7) 비교적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한강이라는 배경과 푸드트럭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한강공원 밤도깨비야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이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야시장만의 특장점은 젊은 창업자들이 개발한 생소하고 개성 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한 군데에서 접할 수 있어 입맛대로 골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푸드트럭의 음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전술하였듯이 수경관을 즐기며 음식을 먹는 행위로 이어져 한강공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사례 7).

4. 다양한 탈것의 등장

1) 오토바이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이용이 공원 개장 당시에는 허용되었다. 개장 당시 오토바이를 비롯한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한강공원을 고속으로 종단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빠르게 번져 나갔는데, 당시만 해도 이러한 자전거도로의 오토바이 행렬은 신선한 도시의 상쾌한 이미지로 여겨졌으며 멋지고 도시적인 한강공원 이용 방식 중 하나였다.

> … 오토바이의 행렬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가급적 매일 오후 반포에서 출발 잠실로, 다시 여의도까지 달리곤 합니다. 기분이 좋고 속이 확 뚫리는 시원함이 비길 데 없지요.」 사업을 하는 최재영(49 · 노량진 본동)씨는 오후 2시경 점심 후 졸음이 오는 것을 피할 겸 신선한 강바람을 헤치며 시속 50km로 강변을 달린다고. 잠실서 여의도까지 불과 4분 밖에 안 걸린다는 그는 자신처럼 강변을 따라 시민공원을 매일 답주하는 오토바이맨이 꽤 된다고 귀띔, 힘차게 페달시동을 밟는다. (김영미, 1987)

그러나 이내 한강공원 내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게 되면서 오토바이 이용은 단속행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1996년 수립된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의 '자전거도로 설치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1996: 78). 실제로 1995년, 1996년에 오토바이 폭주족의 극심한 횡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61)]

2) 인라인 스케이트

2005년 전후로 인라인 스케이트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기있는 여가문화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가 한강시민공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전거 · 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 보행자 간 사고 발생이 급증하였다. 이에 이용 시민들이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였다.

3) 동력장치

여가활동이 점차 다양화되고 새로운 탈것을 이용한 여가문화가 등장할 때마다, 넓은 오픈스페이스 또는 한강변의 긴 종주 코스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각각의 이용자층이 한강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탈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 레저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실질적 단속이 어려움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33]은 여의도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운전자, 심지어 자동차까지 한데 뒤섞여 이용하고 있어 무질서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현장 관리인 역시 같은 도로를 이용, 단속 차량을 운전하며 순찰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 “내팽개쳐진 한강市民공원(동아일보, 1991.09.13)”, “漢江시민공원 단속 폭주족 百40명즉심(경향신문, 1992.08.10)”, “시민공원 기습단속(경향신문, 1992.08.31)”, “시민안식처 시민공원 폭주족극성 단속절실(동아일보, 1993.05.12)”, “「폭주族 신드롬」급속확산(경향신문, 1996.09.15)”

[그림 4-33] 다양한 탈것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인 모습
(2018.04.07 촬영, 여의도한강공원)

제 3 절 갈등을 통한 한강공원의 변화

1. 운영 · 관리의 변화

1) 야영과 취사 허용

[그림 4-34] 금지행위 안내판과 그늘막 설치 안내판
(2017.09.29 촬영, 반포한강공원)

한강시민공원은 '공원'으로 지칭되나 실제로는 법률상 '도시공원'과는 다른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62]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상 하천부지로 분류되는 한강시민공원은 하천법의 영향을 받는 수변공간이다. 도시공원법에서는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천법에서는 이에 비해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46조에서는 제6호 가목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와 같이 금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모두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규정 내에서는 자유로운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다.

야영의 경우 2013년까지는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한강변 잔디밭에 나무가 적고 그늘이 부족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할 수

62) 한강공원은 공원녹지법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의 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대신 하천법의 영향을 받는 수변공간으로 분류된다. 한강공원 관리를 위한 단독 조례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다.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단, 풍기 문란과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막과 텐트는 두 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세로 3m 이내)만 설치가 가능하며, 일출 이후 일몰 이전 동안에만 이용이 가능하다.[63]

서울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텐트 설치를 허용했지만, 시민 민원이 증가하자 허용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이용규칙을 변경하였다.[64]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무더운 날이 많아지는 추세에 비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짧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텐트를 3면 이상 개방하면 햇볕을 차단하기 어려워 그늘막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이에 시는 텐트 형태를 불문하고 2면 이상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그늘막은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사는 하천법에 의해 1999년부터 금지되었다. 지금도 모든 한강공원에서는 조리시설을 이용한 취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2002년에 난지캠핑장이 신설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취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더 이상 캠핑에 대한 이용객들의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느낀 서울시는 2013년에 처음으로 임시 캠핑장을 뚝섬과 여의도한강공원에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다음 해인 2014년의 「한강몽땅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4개 지구에 500동의 텐트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

[그림 4-35]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이용한 야영 모습
(2018.05.12. 촬영, 반포한강공원)

63) 일몰 이후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6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70919051&code=940100#csidx6894533db422868b73e5d13cb2f85fe)

록 하였다. 이 때 난지캠핑장 외에 잠원과 뚝섬, 여의도지구의 임시캠핑장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을 변경, 고시하였고 2014년 7월 3일부터는 총 네 곳의 캠핑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65] 이는 2015년 확대 시행되어 여의도, 뚝섬, 잠실, 잠원에 500동이 설치되었고, 양화지구에서는 자유로운 캠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강여름캠핑장, 2016).

2) 푸드트럭과 야시장의 활성화

노점은 여전히 금지행위로 구분된다(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4호). 서울시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대신 생계형 상인들에게 간이매점을 통한 영업을 허용하였다.

2014년 규제개혁을 통해 푸드트럭이 허용되자, 서울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는 한강공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서울시는 야시장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새로운 문화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형 야시장인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2015년에 여의도한강공원에서의 시범운영[66]을 시작으로, 2016년에 야시장을 상설운영하게 되면서 여의도한강공원의 야시장은 상설화되었고, 2017년에는 이 야시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한강공원 중에서는 반포한강공원이 또다른 야시장 장소로 자리잡았다.[67]

3)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 장려와 운영활성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거리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강 거리 예술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강사업본

65)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인 취사는 금지하였다.
66) 시범운영은 2015년 10월,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때 푸드트럭을 포함한 셀러(상인)는 총 120팀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방문객 수는 약 2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67) 여의도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청계광장 총 5개소로 확대되었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윌드나이트마켓, 반포한강공원은 낭만달빛마켓으로 명명되었다.

부의 심사[68]를 거쳐 한강 거리예술가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일 년간 합법적으로 한강공원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지원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한강공원 내 다양한 성격의 타 프로그램과 결합된 형태로서 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거리 공연 예술가 제도를 통해 예술가들은 '한강 거리공연 활동증'을 발급받는다. 이는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공연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진행을 촉진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각 한강공원 안내센터의 공연 지원 및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소규모 공연장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거리 공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가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 일정을 미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거리 공연의 일시와 구체적인 장소, 공연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봄에 개최되는 음악제, 여름에 개최되는 '거리공연 페스티벌'[69], 3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밤도깨비야시장' 등의 축제성 행사와 연계하여 단일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의 프로그램을 생산, 제공할 수 있다.

---

[68]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월 3회 이상 공연을 지속할 것, 2) 야외 공연이므로 전기 지원이 없이 공연이 가능할 것, 3) 소음이 유발되지 않고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공연일 것.

[69] 2014년부터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일부로서 진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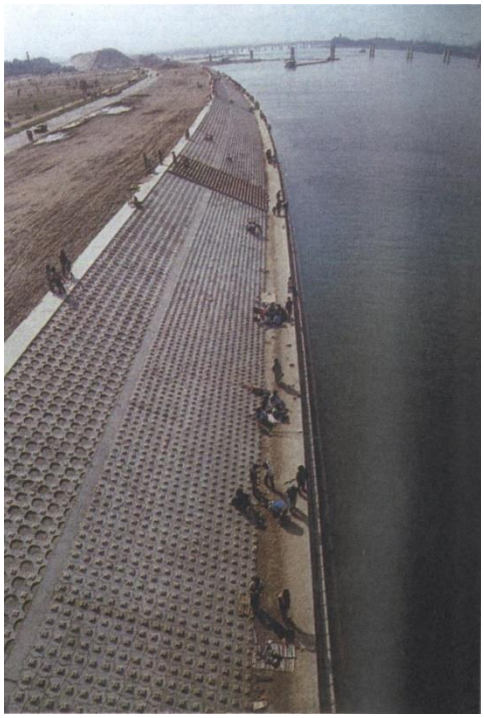
[그림 4-36]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 포스터

자료: 시니어신문, 2017.08.03

2. 공간 · 시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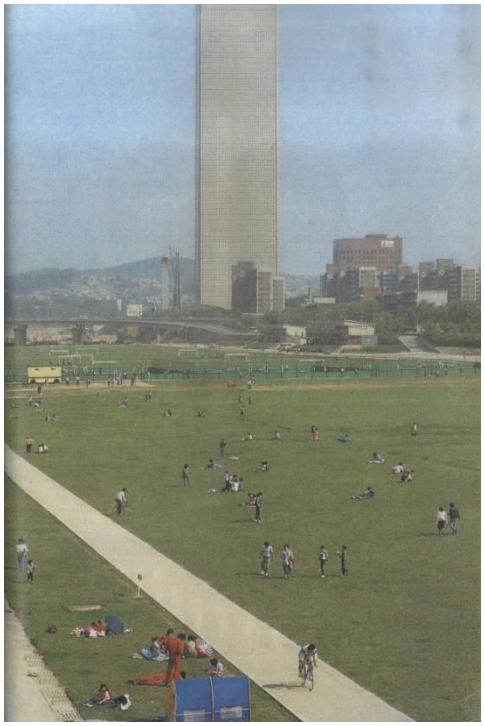
1) 다양한 탈것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처음부터 현재와 같이 잘 포장된 노면에 펜스와 도색된 경계선을 갖춘, 자전거 타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건설 당시 이 도로는 이름뿐인 자전거 도로로, 보행로와 구분되는 형태의 '자전거를 위한 도로'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로를 덮기 위해 포장한 콘크리트 도로에 지나지 않았다(그림 4-37, 그림 4-38). 그러나 일부 구간의 도로 선형이 자전거 타기에 좋지 않았고, 군데군데 유람선 선착장 또는 보트장으로 인해 미개설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체육을 비롯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욕구가 증대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자 수가 증가했으며, 도로교통 체증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그림 4-37] 자전거도로라 불리던 당시의 콘크리트 도로

자료: 월간 2000년, 1986년 6월호



[그림 4-38]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혼재

자료: 월간 2000년, 1986년 6월호

서울시는 1993년 4월, 강남 측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여 한강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가 4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내용에 따르면, 시는 개화에서 광나루까지 한강변의 1백리 길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통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도시高速道 6월부터 구간별 개통, 1993). 대통령업무보고 내용 중 '교통난완화 5대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 이 때 세워지게 되었다 (자전거 타기운동 실효성없고 사고위험 높다, 1993). 이 때 정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33km 길이의 콘크리트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단절되어 있던 나머지 구간에는 4~6m 너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로 설치하여 광나루~잠실~여의도~개화동(36.9km)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달동네」 81곳 98년까지 再開發, 1993). 또한 자전거도로의 규모 확대에 발맞추어 자전거 보관소 또한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하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전거 타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그림 4-39).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만 설치 후 개통하여 이름뿐인 자전거도로가 생겨난 것이다. 이는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라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주말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전거도로 예산만 낭비, 1994).

[그림 4-39] 방치된 자전거도로(1994)

자료: 동아일보, 1994.04.26

이후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니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대대적인 개선 공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70] 끊이지 않고 한강변과 교량을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교량구간을 연결하였으며, 노면을 정비하고 폭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화 · 여의도 · 반포 · 잠원 · 잠실 · 광나루 지구 등의 자전거 도로를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71]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

70) 『시민복지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한강변 순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강남북 한강변의 자전거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하고 교량을 이용하여 강남북을 잇는 순환 자전거길을 만들고자 한 사업이었다.

71)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는 청색, 자동차 겸용 도로는 중앙 황색선과 갓길의 청색차선으로 표시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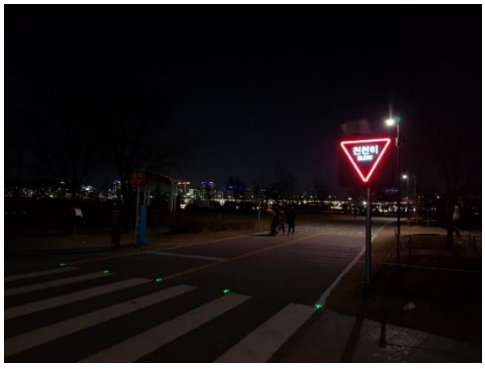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그만큼 성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시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도록 한강시민공원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강변 자전거 라이딩을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지속해 온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전거도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사례 2, 사례 3). 조성 초기에 비해 지금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의 수준이 훨씬 높아져 물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도로가 확충되어 단절된 구간이 없이 연속성을 띠게 되어 전 지구를 아우르게 되었으며,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 방식과 진입부 설계가 보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강사업본부는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 상황을 단시간 내에 인지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빠른 시간 내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계획(2011)』과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2015)』을 거치면서, 지금의 자전거도로는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정보의 제공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점점 향상되고 있다. 특히 보행자도로와의 분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40). 여전히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자전거-보행자 분리와 더불어 횡단보도, 표지판, led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차로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다(그림 4-41, 그림 4-42).

원사업소, 2003: 216).

[그림 4-40]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다양한 구분 또는 분리 방식



[그림 4-41] 야간의 LED 표지판
(2018.04.07 촬영, 여의도한강공원)

[그림 4-42] 횡단보도와 안내등
(2018.04.03 촬영, 반포한강공원)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가 확장, 연장되는 과정에서 주변 자전거도로들과의 연결 루트 또한 개발되어 촘촘한 자전거도로망을 형성하여 전반적인 자전거 인프라가 질적, 양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의 근교 도시의 자전거 인구까지 흡수하게 되었고(그림 4-43), 한강공원은 자전거 성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림 4-43]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내판
(2017.09.26 촬영, 반포한강공원)

이처럼 자전거 이용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2008년과 2009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 전용 공원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광나루와 난지지구에 자전거 교육장과 묘기연습장, MTB코스장,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연습장 등 자전거 이용자들만을 위한 공간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부터 기인한 사업으로서, 한강공원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구 별로 테마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기반을 다지고자 한 사업이었다. 이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한강공원의 자전거 인프라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특히 2004년을 전후하여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였다. 이에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의 물리적인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도로와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다.[72] 뿐만 아니라 한

[72]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그동안 한강 자전거 길을 자전거 이용자와 인라인 이용자 등이 함께 이용하며 종종 안전사고를 유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라인 전용도로를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에 인라인 전용도로 25km 조성, 2005). 이에 따라 양화, 여의도,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망원, 이촌, 뚝섬 총 9개 지구에 약 19.7km의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여의도지구에 400㎡의 인라인 스케이트 광장을 조성하였다.

강시민공원 공간 일부를 할당하여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서 2004년 광나루지구에 인라인 광장을, 반포지구와 뚝섬지구에는 인라인 광장 및 트랙과 X-게임장을 조성하였다.

2) 수목 확충

한강시민공원 개장 직후 시민들의 반응은 한강이 깨끗해지고 둔치가 정비되어 도심에 넓은 오픈스페이스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대체로 보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여건은 미흡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원에 키 큰 나무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림 4-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강공원은 지구를 불문하고 교목이 거의 없이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시설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때문에 매우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였다.[73] 특히 시민들은 나무가 없어 보기에 허전할 뿐만 아니라, 그늘이 전혀 없어 공원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다.[74] 다음은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 대담과 신문 기사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 고수부지를 깨끗이 정비하고 잔디광장을 꾸민 것은 좋은데 나무가 없어 허전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고수부지지역은 하천법에 의해 큰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넘칠 때 수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 앞으로 매점이 설치되면 주변에 파라솔을 마련, 최소한의 그늘을 확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로선 이용시민들의 요구 중 그늘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식 · 이근배, 1986)

한강시민공원에는 하천법에 의해 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것이 큰 약

73) 한강시민공원은 처음부터 한강변의 둔치가 넓고 평탄하여 운동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계획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애당초 한강시민공원의 가장 주요한 활용 목적은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둔치의 임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었다 (황기원, 2009, 페이지: 434). 한강변의 둔치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2, 3년에 한번 꼴로 강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는 곳으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둔치 지역은 하천법에 의해 큰 나무를 심지 못 하도록 되어 있었다(김영식 · 이근배, 1986: 111).

74)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경향신문, 1987.06.17)", "한강 市民公園 13곳 스낵코너 · 천막 설치(경향신문, 987.06.22)" "뚝섬 등에 그늘막 설치(매일경제, 1988.05.23)", "아름다운 漢江, 새롭게 태어났다(경향신문, 1988.05.12)", "시민 휴식처 한강공원 편의시설 부족 큰 불편(동아일보, 1995.7.20)"

>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은 한여름에도 햇볕을 피할 수 없어 교각 밑이 유일한 그늘이다. 나무를 심으면 홍수 때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구실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키 작은 나무라도 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 또한 그늘이 없어 쉴 곳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서울시는 고수부지에 큰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 등 내수 침수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현재 시민공원에서 쉴 곳은 그늘막 21개뿐이며 대부분 시민들은 운동이나 산책 후 쉴 그늘이 없어 다리 밑에 옹기종기 모여들고 있다 (漢江공원 밤만되면 無法天地, 1989).

이는 공원 경관뿐 아니라, 콘크리트 제방과 도로, 교량,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변의 경관 또한 더더욱 건조하게 만들었다.

> 유람선을 타본 시민들은 한강변이 온통 시멘트와 다리 그리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지루하다고 말한다. …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1987)

당시 하천법에서는 고수부지 지역에 키 1m 이상의 큰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홍수기에 수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1997년 10월 30일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건설교통부가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홍수기 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강변 둔치에 큰 수목을 식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나무그늘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고 건조한 한강변 경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한강 둔치에 교목을 식재하게 되었다 (한강둔치에 나무그늘 생긴다...서울市 2004년까지 조성,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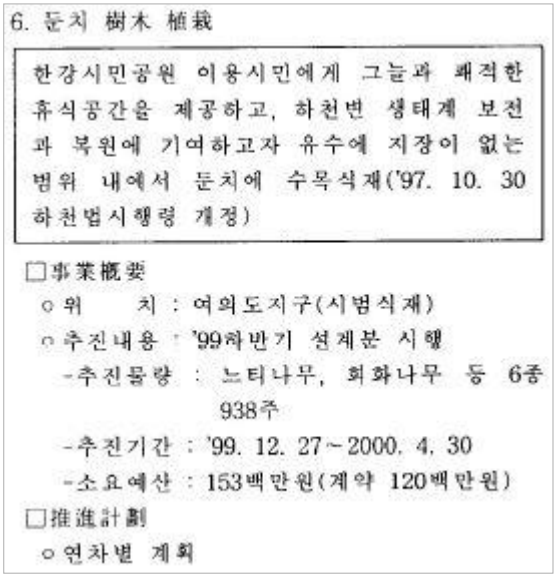
1999년, ‘한강 고수부지 수목 식재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구상안 보고회를 거쳐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

[그림 4-44] 나무 한 그루 없는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좌), 잠실지구(우)

자료: 경향신문, 1986

토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수자원학회와 전문용역업체가 공동용역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1999년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강고수부지 (여의도지구) 식재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여의도지구를 필두로 수목을 시범 식재하였다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1999).

이후 모니터링을 거친 결과, 수목 식재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자 서울시는 전 지구에 걸쳐 교목을 단계적으로 식재해 나갔다. 식재의 원칙은 홍수기에 제방에 위험을 미칠 위험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제방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 식재하는 것이었다.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은 주로 5m 이하의 수양버들, 회화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4, 5년 이내에 크게 자라 넓은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강고수부지를 시민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이병학, 2000)" 하였고, 자연초지에는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식재를 추진하였다.



6. 둔치 樹木 植栽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에게 그늘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변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기여하고자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둔치에 수목식재('97. 10. 30 하천법시행령 개정)

□事業概要

○위　　치 : 여의도지구(시범식재)

○추진내용 : '99하반기 설계분 시행

-추진물량 :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6종 938주

-추진기간 : '99. 12. 27~2000. 4. 30

-소요예산 : 153백만원(계약 120백만원)

□推進計劃

○연차별 계획

[그림 4-45] 둔치 식재 계획

자료: 『2000년도행감 - 환경수자원』, p.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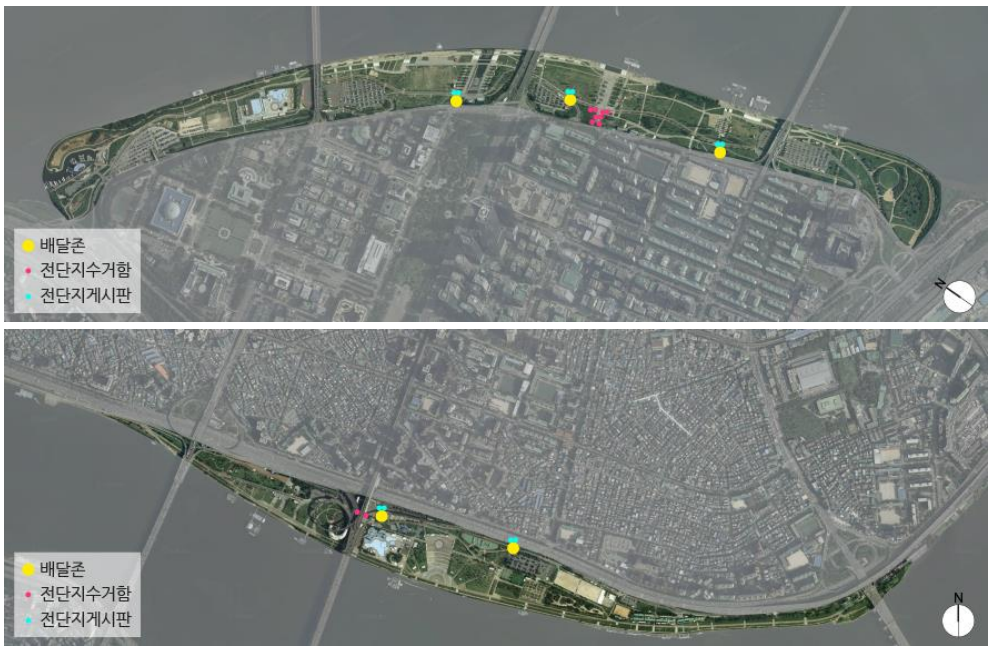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에서는 수목 식재를 통해 '깨끗하고 자연적인 한강 가꾸기'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 또한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전까지는 호안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공원 및 하천의 '경관'과 하천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생겨나면서 수목 식재와 함께 호안 녹화 또한 착수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호안녹화는 호안블럭을 철거, 잔디블럭으로 교체하고 호안 사면에 회양목을 식재하는,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콘크리트 호안을 녹화하는 것이었다. 1999년에 성수대교~영동대교 북단 구간의 호안블럭을 철거하고 녹화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3) 음식 배달 지원시설 확충

한강공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며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자, 한강사업본부는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지원하는 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배달원과 오토바이로 인한 혼란을 억제하고 공원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매한 음식을 수령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이용객이

몰리는 일부 지구에 '음식물 배달존(zone)'을 설치하였다.[75] 이는 음식물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의 무분별한 공원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업체들의 전단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전단지 게시판'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전단 무단투기를 줄이고 쾌적한 공원경관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전단지 수거함'을 설치하였다.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 이용자들의 배달음식 이용이 활발한 지역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여 배달존을 이전하거나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2017년 6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의 배달존 2개소 중 이용률이 저조했던 마포대교 옆 배달존을 마포주차장 입구 매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여의도한강공원의 나들목 입구와 가까운 물빛광장 부근에 1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더불어 전단 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뚝섬과 여의도지구에 설치된 전단지 수거함의 디자인을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개수를 파악한 결과, 여의도지구에는 3개소의 배달존이 주요



[그림 4-46] 여의도지구(위)와 뚝섬지구(아래)의 음식배달 지원시설 현황도

75) '한강공원 질서 확립 특별 대책' 의 일환으로 설치한 '배달존'은 총 4곳으로, 뚝섬지구의 뚝섬나들목과 뚝섬안내센터 앞에, 여의도지구의 마포주차장과 여의도나들목 앞에 각각 25㎡의 배달존을 설치하였다.

진입부에 분산되어 조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전단지게시판을 2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전단지 수거함은 여의나루역 입구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8개가 설치되어 있어, 고른 분포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진입부임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졌다. 뚝섬지구의 경우에는 배달존이 2개소, 각 배달존에 게시판이 2개씩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단지 수거함은 여의도지구와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많은 한쪽 진입부에 치우쳐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강공원의 음식배달 문화를 장려하거나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무분별한 오토바이의 진입과 이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겨났다고 보는 편이 맞다.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나라의 오랜 음식 배달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어 한강공원 전역에 이미 만연한 음식물 배달 행태를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략을 구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6)]

4) 접근성 개선

올림픽대로로 가로막혀 있으면서 지하보도와 같은 보행자 전용 진입로의 개수가 적고 그 간격이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더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마저 보차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어두우며 정비 또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이 꺼리는 실정이었다. 다음의 인용된 보도자료와 [그림 4-47]을 통해 이러한 당시 진입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76)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강의 생태환경 보존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한강사업본부가 인력 부족을 탓하며 배달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강을 음식물 잔치 장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한강에 음식물 배달존... 환경보전 포기행위”, 2017). 배달존 설치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배달존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고, 실제로 배달존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수령해 가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르포] 쓰레기 넘치는 한강공원, 서울시 특별대책 어디갔나, 2017).

시민공원 접근로는 현재 1백6곳이 있으나 대부분이 차량중심이어서 승용차가 없는 시민들은 접근이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강교에서 곧바로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계단을 한남대교 등 1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漢江공원 밤만되면 無法天地, 1989).

[그림 4-47] 보행환경이 열악한 진입로(1999)

자료: 동아일보, 1999.10.27

과거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은 한강시민공원과의 연결을 꺼리고 접근통로 개설을 반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 한강시민공원이 비행과 탈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의 치안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안정되고, 야간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이들이 천천히 증가하면서 한강시민공원은 혐오 시설에서 선호 시설로 입지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특히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강변 아파트의 분양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고, 한강조망권이 아파트의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접근로의 증설과 환경개선 사업 역시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제 4 절 소결

한강공원은 상위주체가 계획한 바대로 이용되고 공간의 의미가 소비되는 한편, 동시에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욕구와 편의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체적 이용행태에 의해서 공간의 전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주요 방향성은 중요한 계획이나 국가적인 이벤트에 의해 제시되고, 물리적인 공간의 구성 또는 운영 · 관리 방식의 큰 변화는 법제적인 힘을 가진 상위주체에 의해서 추진되고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배경과 이로부터 기인한 이용자들의 전유에 의해 이를 수용하거나 절충하는 방향으로 공원이 변화해온 것이다. 결국 한강공원은 사회로부터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 형태와 의미가 재생산, 재구성되었고, 동시대 공원문화를 반영하고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개장 이래 한강공원이 걸어온 길은 물리적, 즉 공간의 측면과 비물리적, 즉 운영 ·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큰 변화를 보이는 몇 번의 기점이 있어 왔다. 한강공원의 개장 시기는 지구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식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된 해인 1986년을 개장된 해로 볼 때, 한강공원의 물리적 · 비물리적 변화의 흐름은 크게 1986년을 시점으로 하여 1999년, 2007년, 2014년을 기점으로 변동을 겪었다. 1999년은「새서울, 우리한강」계획이 시행되기 직전, 2007년은「한강르네상스」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된 해였으며, 2014년은「한강몽땅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딘 해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한강공원은 치수와 방재의 공간에서 여가와 친수의 공간으로, 축제와 행사, 문화의 공간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 지금껏 겪어 온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한강과 한강공원을 대하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1. 1986년 – 1998년

한강시민공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홍수를 조절하고 수해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치수가 최우선이었던 과거에는 유로 통제라는 명목 하에 단 한 그루의 수목을 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때문에 콘크리트 제방과, 넓다 못해 허허벌판인 잔디광장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고, 여기에 강변의 고층 아파트까지 더해져 한강변의 경관은 삭막하기만 하였다. 이는 시각적으로 무미건조할 뿐만 아니라 이용의 측면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이 전무하여 불편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받아들여 수리검정(水利檢定)을 시행하고 홍수 시 유로(流路)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 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1997년에 하천법을 개정하였다. 뒤이어「새서울, 우리한강」계획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직 '공원'이라는 개념이 시민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기 이전, 공원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던 이 시기는 한강공원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특히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특히 한강공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가 매우 활발하였는데, 이러한 행태가 점점 증가하면서 공원 내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에 의해 금지되었다. 엄밀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제 권고 및 계도, 현장 단속이 이루어졌다. 야영이나 취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가 없었고 계속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영과 취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주로 잔디광장과 제방 위에서 야영과 취사를 즐겼다.

치수를 위해 쌓은 콘크리트 제방 위의 정돈되지 않은 제방도로가 이 당시 '자전거도로'라 불리던 산책로였다. 깔끔하게 포장되지 않아 노면이 불안정하고 선착장부지로 인해 군데군데 끊겨 있기도 부지기수였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분리 장치 또한 없었다.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제방도로를 질주하고, 자가용이 잔디광장 위로 올라와 주차를 하는 등 한강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탈 것에 대한 질서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전

히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한편 개장 초기의 한강공원은 제 2차 한강종합개발의 핵심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에,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는 점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시민들로 하여금 한강개발에 대한 자긍심과 정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한강공원은 한강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기념 축제를 비롯한, 국가나 시에서 주관하는 범국민적인 행사가 주로 열리는 곳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대규모 행사의 비율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대신 비교적 작은 규모의 행사들이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48] 1986년 – 1998년의 한강공원

2. 1999년 – 2006년

2000년 여의도지구를 시작으로, 난지지구부터 차례대로 한강시민공원 전역에 수목이 식재되었다. 이 나무심기 사업은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의 ‘깨끗하고 자연적인 한강 가꾸기’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2002년까지 진행된 나무 심기 사업은 이후 모니터링을 거쳐 2005년에 다시 이어져 2006년에 완료되었고, 이 때 수목은 큰 그늘을 형성하는 수종들로 심어져 금세 한강공원에서는 녹음과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

의 일환으로 1999년을 기점으로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강과 공원이 만나는 경계는 오로지 콘크리트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시기의 호안녹화는 호안블럭을 철거, 잔디블럭으로 교체하고 호안 사면에 회양목을 식재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을 녹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취사와 야영이라는 이용자들의 전유가 공원의 규범과 계속해서 갈등해 오다 비로소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는 개장 이래 최초로 한강공원 내에 공식적으로 취사와 야영이 가능한 장소가 탄생하였다. 이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개장한 난지캠핑장으로, 한강시민공원 전 구간을 통틀어 유일하게 캠핑을 허용하는 장소였다. 특히 이용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야영을 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에게 항시 개방되었다.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1998)이 수립되면서 자전거도로가 개선되었으나, 이 때까지도 여전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증가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들을 자전거와 분리, 수용하는 방안으로 광나루와 반포, 뚝섬지구에 인라인 광장과 트랙, X-게임장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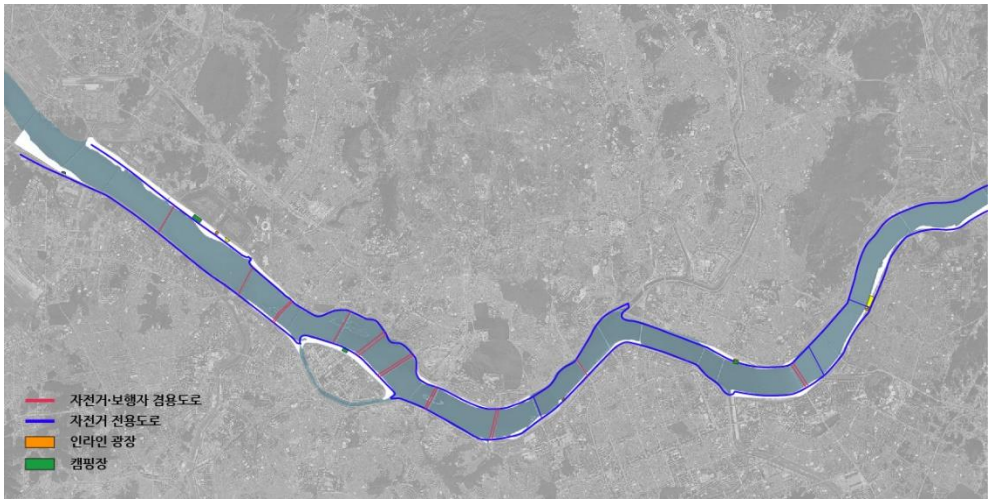
[그림 4-49] 1999년 - 2006년의 한강공원

3. 2007년 – 2013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전면 개선계획(2011)」과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2015)」을 통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는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나루와 난지지구에 자전거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교육 및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기반시설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반포지구의 특화를 추진하면서 반포지구의 인라인광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전유 중 하나이자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었던 야영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허용되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 전역에 대하여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되 시간과 야영장비의 형태를 규정하였다. 또, 항시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서지구의 가족피크닉장이 신설되었으며, 2013년 한강몽땅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적으로 여의도와 뚝섬지구에 여름캠핑장을 운영하였다.

그간의 지구 간 획일적인 공원 디자인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지구별 특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생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방식을 반영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여가행태를 권장하려고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50] 2007년 - 2013년의 한강공원

4. 2014년 - 현재

2013년 「한강몽땅 프로젝트」 이후로는 하절기에 한정적으로 여의도와 뚝섬, 난지, 잠원, 양화지구의 여름캠핑장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피크닉장 및 캠핑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개인의 취사는 금지되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취사와 야영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용자들의 최대한의 자유와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 접점을 찾아 야영과 취사에 대한 이용 규칙을 만들고 지정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정 캠핑장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공간에서 2015년부터는 시기에 관계없이 야영이 허용된 사실을 통해, 한강공원의 일상적 이용행태로서 '야영'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 푸드트럭 규제개혁 이후 한강공원 내 푸드트럭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푸드트럭이 대열을 이루며 늘어서 있는 가운데 구매행위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제 한강공원의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더불어, 서울시 측에서 푸드트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면서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마켓, 체험부스, 공연 등이 한데 어우러진 밤도깨비야시장이 탄생하였고, 새로운 한강공원의 문

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공원 내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달존을 신설하고, 전단지 게시판과 수거함을 마련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와 안전 또한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강몽땅 프로젝트」를 계기로 소규모의 크고 작은 체험, 문화, 예술, 참여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한강과 서울시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다양한 시도. 특히 거리공연예술가 제도는 소자본의,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출이라는 돌파구를 모색하였다는 데 있다.

[그림 4-51] 2014년 이후의 한강공원

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한강공원이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나 그 외연에 속하는 타 도시공원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지님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한강공원의 경관은 공원 이용 양상의 관점에서 타 도시공원과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현재에 국한된 정태적 이용행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결과로서 현재 보여지는 것이며, 이것을 '공원문화'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몇몇 장면들을 통해 한강공원과 타 도시공원의 이용행태가 다름을 무리하게 귀납하기보다는, 공원문화의 형성과정에서 한강공원만이 갖는 독자성과 그 배경 및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강공원의 이용 방식이 타 공원의 그것과 어떻게, 왜 다른지 알고자 하였다.

2. 이용행태 형성과정의 독자성

공간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공간에는 시간의 켜가 축적되므로, 어떠한 공원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성장한다. 그러나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의 켜가 쌓이는 양상이 매우 역동적이다. 시간의 흐름의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일차원적 변화뿐 아니라, 동시대 사회와의 강한 상호작용의 결과 또한 축적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란, 한강공원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국가 및 정부기관,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대중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경우 관리주체에 의한 위로부터의 영향력과 이용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영향력이 모두 약한 반면,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양자가 매우 강한 힘을 지닌다. 관리주체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무수히 반복되었고 그 방향성과 내용이 매번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와 행태로 인한 직·간접적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그 요구 또는 행태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절충하려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강공원은 독자성을 띤다.

개발계획을 시초로 30여 년 간 8개의 한강공원 관리계획이 수립되

어 매번 운영 · 관리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었고 공원은 이에 따라 통제, 관리되어 왔다. 모든 관리계획은 그 지향점이나 주력 사안이 상이하였고 이를 통해 동시대 사회 현상과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한강공원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치수와 방재에서 이수와 환경보전을 거쳐 친수와 문화, 자연성 회복으로 이행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에 의해 근린지역공원과 자연공원, 운동공원의 복합체로서 계획된 한강공원은 일반적인 도시공원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접점 구현 및 레크리에이션의 장 제공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상활동과 체육활동의 장을 제공하였고, 애국심 고취와 계몽을 위한 국가적 이벤트의 장으로서 기능하였다. 즉 한강공원은 '순응적 이용행태'로 볼 수 있는 산책과 휴식, 체육활동, 수상활동, 행사 등을 지원하는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원을 조성한 의도나 기대한 역할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개인의 욕구와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적 이용행태'가 꾸준히 발생하였다. 한강공원 운영의 방식이나 이용질서에 대한 암묵적 규칙이나 공동의 합의랄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강공원의 광활한 공간과 자유로운 공간적 이미지로 인해 공원의 무질서는 1990년 전후 극에 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 밖에도 타 도시공원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이용행태가 한강공원에서는 빈번히 발견되었으며 주류를 이루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야영행위, 노점이나 배달, 취사, 푸드트럭 등 다양한 형태의 식음 행위, 공원 내에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모터보드 및 전동휠 등 다양한 탈것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같은 주체적 이용행태는 동시대 한강공원의 공간 또는 운영방침과 물리적, 비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3. 갈등의 지속과 변화의 축적

이용자들의 끝없는 전유와 지속적인 갈등, 그리고 이를 수용 또는 절충하기 위한 조정의 과정이 축적되며 한강공원은 탄생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운영 및 관리 면에서는 첫째, 과거에 금지되었던 야영 및 취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지정구역에 한해 장려되고 있으며, 둘째, 현대형 노점인 푸드트럭의 영업을 장려하고 야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장려하

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공간 및 시설 면에서는 다양한 탈것이 등장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와 자전거공원, X-게임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해오고 있다는 점, 치수를 이유로 수목 식재가 불가능했던 공원 전 지역에 휴식의 쾌적성과 경관 향상을 위해 수목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음식 배달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지원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이용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원내 치안이 강화되고 한강의 경관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보행자 접근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 배경과 연관지어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경계가 되는 시기를 분석해 보면, 그 흐름은 1986년을 시점으로 하여「새서울, 우리한강」계획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9년,「한강르네상스」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된 해인 2007년,「한강몽땅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딘 해인 2014년에 큰 변동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이전까지 한강공원은 이용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어지러운 한편, 수목 한 그루 없는 단조로운 경관을 지녔으며 국가적 이벤트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새서울, 우리한강」계획과 연계하여 1999년부터 수목 확충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시기 호안 녹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 취사와 야영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 등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계기가 되어 2007년 이후에는 자전거도로가 전용화되고 공원이 조성되는 등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문화시설이 확충되었고, 야영과 취사의 허용범위를 점점 늘려 나가다가, 한강몽땅 프로젝트가 계기가 되어 2014년 이후에는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야영과 취사 허용 범위의 대폭 확장, 배달 편의시설의 도입 등 한층 이용자 친화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강공원은 1986년에 조성될 당시의 모습을 현재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면 한강공원은 개장 초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상 치수와 방재를 위한 공간이었으며 '시민공원'은 부차적인 과제였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가와 친수의 공간으로 지향점이 이행하였으며, 2010년대를 지나며 축제와 행사, 문화의 공간으로부터 보다 더 일상에 가까운 친근한 공간으로 변

화하였다. 30여 년 동안 한강공원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그 형태를 계속 달리해 왔으며, 공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공원을 이용하는 양태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지금껏 겪어 온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한강과 한강공원을 대하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4. 독자적 공원문화의 형성 요인

이렇듯 한강공원에는 타 공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속적인 절충과 조율의 과정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공원문화와 그 형성 과정은 왜 한강공원의 경우에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가? 한강공원을 대하는 태도와 공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 동안 역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바로 '한강'에 있다. 한강공원은 도시 내 시가지에 위치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달리 우리에게 '하천'과 '공원'의 결합체로서 인식된다. 강 또는 공원이라는 단일한 객체로 보기 어려우며 하천과 공원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한강공원의 모든 속성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공원은 한강의 속성을 내포하며, 일반적인 공원이라기보다는 한강이라는 특수한 요소를 지닌 강변 공공공간으로 인식된다.

도시에 둘러싸여 감시되고 통제되는 공원이 아닌, 넓은 강을 바라보고 있는 광활한 강변에서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끼고 이 곳을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한강이 주는 심리적 효과, 물이 제공하는 특수한 경험, 도심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드넓은 공간 때문에 한강공원은 자유로운 행락 · 위락활동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근린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이용객의 목적성 방문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도시 내 공원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자유로운 이용행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한강공원은 한강이 갖는 지리적 중요성과 도심 상징성, '시민공원'이 갖는 문화적 상징성으로 인해 평범한 공원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한강공원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구현의 장이면서 한강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는 이들의 수단이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한강 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공원에 새로운 변화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때문에, 자연히 그만큼 한강 관리 또는 운영의 원칙은 보다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언제든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공원의 이용행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실질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공원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천천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이용행태 형성의 과정에 주목하여 한강공원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특별함을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용행태에 국한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해 비약적으로 귀납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타 도시공원과는 달리 한강공원은 강력한 상 · 하향의 주체들의 영향력 사이에서 '갈등'과 '조정'의 반복적인 교차 축적이라는 독특한 과정에서부터 특별하게 형성되어 올 수 밖에 없었음을 규명하였다.

한강공원은 그 이름이 '공원'이라 해서 단순하게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한강공원은 매우 복잡한 성질을 띠는, 예외적인 공원임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한다. 경관을 통해 심리적 해방감을 제공하고, 공원 내 활동에 물리적 제약을 거의 가하지 않으며, 물이라는 경관 및 여가 요소를 제공하는 한강공원은 강과 공원의 결합체로서 이용자들에게 색다르게 다가온다. 오늘날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타 공원의 이용행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그 형성 과정과 방식이 다른 공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주체적 요구에 의한 충돌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타협과 조정의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공간의 물리적·비물리적 재생산이 오늘날의 한강공원의 경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한강공원에서는 하향의 힘과 상향의 힘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변화의 방향을 아주 멀리까지 내다 보는 것은 어렵지만, 사회의 관심사나 유행, 생활방식, 여가문화 등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과 이용에 모두 제약이 적고 많은 인구가 모이는 상징적 문화공간이자 사회와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간인 한강공원을 통해 우리는 동시대 사회·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강공원은 공원으로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가장 빠르게, 가장 잘 반영하는 곳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공원일 것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느 공원도 아닌 한강공원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이며, 한강공원을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사례 1]
연구자: 혹시 어디 거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자: 압구정동과 신사동에서 거주했습니다. 한강으로 치면 잠원지구요.
연구자: 아하. 저는 지금 한강공원의 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랜 기간 이용하면서 변화를 체감한 이용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요. 한강공원 자주 오셨나요? 20년이면 엄청 오래 사셨는데.
답변자: 자주 이용해 온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가족들이랑 조깅이나 운동하러 많이 가고, 중학생 때는 농구하러 친구들이랑 종종 갔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 학교를 다니느라 잘 가지 못했는데, 대학생 돼서는 친구들이랑 가끔 맥주 한 잔 하러 옵니다.
연구자: 그럼 어릴 적하고 현재, 최근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못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 예전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조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든지, 옛날에는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저녁에도 사람이 많다든지…….
답변자: 지금은 저녁시간에 맥주 마시러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랑 비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조깅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기억과 느낌에 의존하는 거라 확신은 못하겠네요, 저도. 확실히 가장 많이 체감되는 건 처음에 말씀 드린 저녁시간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에요.
질문자: 그럼 저녁 시간에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겠네요?
답변자: 어릴 적에는 밤에 오면 굉장히 어두워서 무섭기도 했는데, 요즘은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사람이 항상 있고, 조명도 훨씬 밝아졌어요. 최근에는 학교 근처로 자취하러 나가서 운동하러 가 본지는 좀 됐어요.

[사례 2]
연구자: 한강은 자주 오시는 거에요?
답변자: 네, 자전거 많이 타고 와요. 최소 주1회는 오는 것 같은데.
연구자: 아 그런가요? 한강 다니신 지 오래 되셨나요?
답변자: 네네, 그렇죠.
연구자: 오,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자: 네네. 자주 다니기 시작한 건 대학교 입학 후……. 2008년 3월요. 제가 금요일마다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한강 거쳐서 다녀서.
연구자: 와, 정말요? 집이 어디 쪽이신데요?
답변자: 목동 쪽이요.
연구자: 주로 라이딩 목적으로 오시나요?
답변자: 네네, 대부분 라이딩. 그리고 봄, 여름엔 여자친구랑 놀러요.
연구자: 라이딩 목적으로 간다기보단 자전거 타고 가는 경로를 그 쪽으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답변자: 여의도공원(여의도한강공원) 근처에 많이 가죠. 자전거도로가 그 쪽으로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통행에 편해서 그리로 다녔던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차도로 다녀야 하니까.
연구자: 아하, 그럼 주로 이용하는 구간은 어느 쪽이에요?
답변자: 목동에서 염창동 쪽으로 안양천 따라 나가서 새빛둥둥섬까지? 잠원까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쪽으로는 행주대교 근처까지.
연구자: 잠원에서 학교로?
답변자: 잠원에 주차해 두고 학교에는 버스로 다녔어요. 잠수교 근처에서 버스 타구. 그리고 친구들이랑 와인 들고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연구자: 아하……그러면 한강에서 자전거 굉장히 오래 타셨는데, 혹시 예전하고 지금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아졌다든지, 뭐가 새로 생겼다든지, 나무가 많아졌다든지, 아무거나요.
답변자: 음……. 새빛둥둥섬, 없었는데 생겼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연구자: 반포만요? 아님 전체적으로?
답변자: 자전거도로랑 산책로 모두 전체적으로 확 퀄리티가 올라 갔어요. 예전엔 그리고 나무나 기타 조경도 좀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젠 좀 통일감 있어 보이고.
연구자: 퀄리티가 올라 갔다는 건 깨끗해졌다 그 이상인가요?
답변자: 깨끗해졌고, 예전에 노면도 울퉁불퉁해서 고속 주행하기 어려웠는데 도로도 잘 깔렸고, 요즘은 보수공사도 제때제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비 오고 나면 한 이틀은 자전거 타기 꺼리는데……지금은 다음날도 바로 청소 진행하고요.
연구자: 오, 그렇구나. 혹시 보행자나, 반려견 산책시키는 사람들이랑 부딪칠 일은 없나요?
답변자: 예전엔 혼용 도로가 많았는데 최근 3년 정도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연구자: 역시 갈수록 좋아지고 있나 보네요..
답변자: 어우, 확실히! 그리고 쉴 만한 기타 시설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진짜 으, 꺼려지는…….
연구자: 음……벤치 같은 거요?
답변자: 네네. 편의점도 필요한 스팟마다 다 생기고.
연구자: 아, 맞아요. 근데 꺼려지는 건 뭔가요?
답변자: 아, 예전엔 좀 인적이 없다 보니까 밤엔 좀 무서웠거든요. 특히 양화지구에서 여의도 사이쯤에……한 2000년 초반 즈음? 저 중학교 때 소풍으로 친구들이랑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돌아올 땐 좀 무섭더라고요. 확실히 한강 정비 사업 진행되면서 올라갔어요.
연구자: 아하……그럼 혹시 시설 말고 사람들의 변화는 없나요?
답변자: 젊어졌죠. 기본적으로 2030이 주말엔 대세에요. 아, 맞다. 차량 진입이랑 자전거 산책하는 사람들 진입 경로가 깔끔해졌다. 진입 경로가 깔끔해진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반포랑 선유도랑 양화지구.
연구자: 그러네요.. 야간에 led 불 들어오는 표지판도 있더라구요, 교차로에.
답변자: 네 그래서 혼선이 없이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반려견 산책 인구가 정말 많아졌죠.
연구자: 주로 언제 보여요?
답변자: 주말은 오전 10시 이후, 평일은 저녁 퇴근 시간대 이후에? 주말은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한가 싶을 정도로……러너들, 산책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자전거 타면서 좌우를 많이 보니까……확실히 예전보다 더 안전해진 건 확실해요.
연구자: 주로 풍경 보시면서 달리시나 봐요.
답변자: 네네, 그렇죠, 그렇죠.
연구자: 그렇구나. 저는 예전에 사람 없고 깜깜했다고 말만 들었지, 진짜 그랬다니까 신기하네요.

답변자: 양화에서 여의도는 여전히 밤에 좀 인적이 다른 곳 보다는 드물긴 해요. 예전만큼은 절대 아니고. 그래도 산책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 그리고 가로등 수도 증가했고. 아, 그리고……어르신들 유입도 높아요. 예전엔 그닥 안 보였는데. 가양동 쪽은 아파트단지가 한강 쪽에 붙어 있어서…….
연구자: 어, 그러면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젊어졌다고 하셨는데……어르신이라 함은 어느 정도……?
답변자: 음, 예전엔 노인 인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음……3040에서 2030으로 중심이 옮겨온 느낌?
연구자: 아, 옛날엔 노인이 별로 없었구나.
답변자: 네네. 가족 단위 사람들은 여전하고, 의외로 노인이 별로 없었죠.
연구자: 요즘은 노인 분들이 많이 보이면, 그럼 그분들은 주로 뭐하세요?
답변자: 산책이요. 산책, 조깅. 거의 산책. 아, 그리고 한강 다리에 버스정류장들이 많이 생겨서 접근성 많이 좋아졌어요. 어……이건 최근인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전망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연구자: 다리 근처에요?
답변자: 한강대교, 동작, 양화에요. 거기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한강 진입 가능해져서. 전 동작대교 전망대 많이 가요.
연구자: 데이트 하러 가시나 봐요.
답변자: 그렇죠..
연구자: 데이트하러 가시거나 할 때 한강공원에서 버스킹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답변자: 잠원에서 가끔? 여의도나 잠원 정도가 그나마 있고, 다른 곳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강 이남 쪽으로만 다녀서. 북쪽은 잘 안가요. 그나마 망원지구.
연구자: 잠원? 반포인가요?
답변자: 네네, 잠원지구가 반포대교…….
연구자: 망원은 사람 별로 없죠? 여의도 같은 데 비해서. 요즘에야 조금 많아진 것 같던데……망원동 뜨면서.
답변자: 네네, 거긴 대부분 산책. 일단 길이 좁아요. 강변북로 따라가는데 선형도 구불구불하고……대중교통 접근도 남쪽이 나은 것 같아요. 가깝다는 역들이 이촌, 합정, 마포구청 수준인데, 음……. 제가 볼 땐 남쪽이 접근이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연구자: 맞아요. 특히 여의도는 버스정류장 위치도 옮겼어요, 최근에.
답변자: 맞아요. 음……확실한 건,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더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연구자: 무슨 뜻인가요? 친화적이라는 건?
답변자: 진입도 용이하고, 가고 싶게 바뀌었다? 아, 그리고 따릉이 생기면서 자전거……타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어요..
연구자: 가고 싶게 바뀌었다는 건…….
답변자: 멀리 놀이공원이나 휴양지 갈 필요 없이 가깝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연구자: 가기 편하다, 볼만한 게 있다, 예쁘다, 인가요?
답변자: 네네, 그렇죠, 그렇죠.
연구자: 좋은 곳이죠.
답변자: 아, 정말요.
연구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돌고 가세요.
답변자: 아, 별 말씀을. 잘 마무리하세요.

[사례 3]
연구자: 라이딩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답변자: 저 본격적으로 한 거는 11년도부터요.
연구자: 오래 됐네요. 주기적으로 타세요? 구간은 어딜 타시나요?
답변자: 음……주로 안양천 목동지점에서 시작해서 안양천 합수부 지나서 올림픽대교까지 근거리로 가구요. 장거리는 똑같이 출발해서 춘천역 근처 초계국수집 이렇게 다녀요. 한 4에서 6주에 한 번? 장거리는 분기에 한 번이요.
연구자: 장거리는 서울 밖까지 나가시는 건가요?
답변자: 네네, 춘천 가는 거요. 춘천 갈 땐 자전거 ITX에 태워서 같이 춘천역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춘천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ITX타고 오거나 해요.
연구자: 근데 한강변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나요? 안 끊기고 쭉 갈 수 있는 거에요? 보행자랑 자주 겹치지는 않나요?
답변자: 아, 잘 돼 있죠. 이명박이 그거 하난 진짜 잘 만들어서……. 예전에는 삼성역 근처 자전거도로가 좀 안 좋았는데 그거 꾸준히 순찰 돌면서 도로 파이거나 한 데는 보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골프 카트 같은 거로 패트롤 돌아요. 음……보행자 도로랑 겹치지는 않는데, 겹치는 경우는 편의점이나 한강공원 진입구에서 횡단보도 있을 때 겹치죠. 자전거도로 꽤 잘 되어 있어요. 그 어디냐, 잠실수영장인가 잠원수영장인가 그 쪽 옆은 자전거도로 옆이랑 한강이랑 거의 붙어있어서 좀 무섭긴 해요. 핸들 까딱하면 그냥 빠지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장마 기간엔 쉽지 않죠. 물이 불었다가 빠지면 거기에 토사가 아주……냄새도…….
연구자: 으. 근데 라이딩 하시면 주로 뭘 보시나요? 풍경 감상?
답변자: 풍경 보기도 하고, 속도 낼 땐 그냥 앞만 보고 달리죠. 야간에 반포가 제일 보기 좋아요. 개인적으로 노란색 나트륨 등 빼고 LED로 바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연구자: 라이딩 시작할 때 즈음하고 지금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뭔가요?
답변자: 음……자전거도로 확실히 괜찮아졌구요. 유지보수가 끊임없이 돼요. 그전에는 한 번 패인 곳은 좀 걸려야 보수 됐는데. 그리고 뭐 한강공원이 활성화된 거?
연구자: 활성화요?
답변자: 저 처음 라이딩 할 때만 해도 반포나 여의도 빼면 사람 거의 없었어요.
연구자: 아……그래요? 신기하네요.
답변자: 요즘엔 밤도깨비다 뭐다 하면서 한강 사람 많아지고, 편의점에 라면 기기 같은 거 잘 되어 있고. 근데 조경 같은 건 그런 공원 제외하면 그냥 자연 그대로 느낌이에요. 풀 왕성하고.
연구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사람들이 공원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이용하신 분들한테 물어 보고 있어요.
답변자: 어……접근성이 그닥 좋지 않았을 때는 가족단위가 많았어요. 차 끌고 와서. 근데 요즘엔 전철 연결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연구자: 접근성이 좋지 않았을 때가 언제지요?
답변자: 고터역(고속터미널역)이 9호선 연결되기 전이랄까. 아니지, 그게 2010년이니까 나 군인 때네. 그 때까지만 해도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전역하니까 사람 좀 많아졌더라고요.
연구자: 아, 그럼 2010년 이전부터 라이딩 하신 거에요?
답변자: 09년, 10년 땐 군인이라 잘 못 했어요. 근데 확실히 9호선 개통되고 사람 많아졌어요.

연구자: 아하……그러니까 반포 말하시는 거죠?
답변자: 네네. 망원 지구도 사람 적고 그랬는데 망원동 뜨고 하면서 사람 많아지고. 연희, 연남, 망원 뜨면서 사람이 동시에 바글바글……무엇보다 커플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아기들 데려온 가족단위가 주였다면, 요즘엔 커플 혹은 친구들 단체. 가족단위는 여전히 많고. 아무튼……그리고 자전거 보급이나 이걸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랑 수상 레저 활성화 같은 것도 영향 있는 것 같구요.

[사례 4]
연구자: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구정 쪽 사신다고요? 잠원(잠원지구)은 자주 오시나요?
답변자: 종종 뛰러 오긴 하는데 공원에서 머무는 건 아니라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요. 공원에서 뭔가 하지는 않고 저녁 때 뛰면서 지나가요.
연구자: 한강에서 러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에요?
답변자: 2년 정도요.
연구자: 아, 네네. 정확히 어느 구간 뛰시는 건가요? 그리고 러닝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장소보다 한강을 선호하셔서 자주 오시는 거라면 혹시 이유는 뭔지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답변자: 저는 여기 한강공원 압구정 나들목부터 3~4km 뛰구요. 이유는, 음……밤에 오면 다리랑 강 건너 건물 불빛이 은은하게 있어서 예쁘고, 사람이 많아서 늦은 시간에 뛰어도 안전할 것 같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고……그리고 개인적으로 강 주변 뛰는 걸 좋아해요.
연구자: 늦은 시간에 와도 사람이 많은 가 봐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러닝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강 주변을 뛰는걸 좋아하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답변자: 저녁 8시에서 10시쯤 나오면 나들목 가까이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애완견 산책 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혼자 뛰는 사람은 사실 잘 안 보여요. 할아버지나 아저씨들……? 공원 쪽으로 가면 연인이나 가족이 산책하러 많이 오고, '할라고' 라는 한강 쪽 식당에 오는 사람도 종종 보이구요. 아, 여름에는 텐트 때문에 공원 쪽에 빈 자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에요. 저녁에도요. 강을 좋아하는 거는……원래 처음에는 강을 일부러 찾았던 건 아닌데, 보니까 걷기 좋은 데는 다 강 주변이더라구요. 탄천이나 한강이나 도림천 같은 데요. 그래서 강을 걷는 게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서울에 건물로 안 막혀 있는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강 쪽은 시야가 트여 있어서 안 답답해요. 그리고……저는 꽃이나 나무도 좋아하는데 강 주변에 식물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구요. 근데 저는 강을 찾기 힘들 때도 항상 분수나 물 주변을 찾아요. 바다도 엄청 좋아하구요. 이건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웃음).
연구자: 오, 자세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답변자: 앗,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사례 5]
남성 1: 이야, 여기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 잠깐 자전거도 타고.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한강도 보이고.
남성 2: 아이, 그럼요. 저기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요즘은 다 테이크아웃 되니까.

[사례 6]
남성 1: (반포대교를 가리키며) 저 위에까지 갔다 내려와서.
남성 2: 갔다가 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남성 1: 아이, 아니지. 저까지 가서 또 남산 쪽으로 더 가다 보면 저쪽에 시장이 하나 있어. 거기까지 딱 간다구. 거까지 갔다가 (다리를 건너서) 뒤로 이렇게 해서 (한남대교를 가리키며) 돌아 와. 난 뭐 맨날 오지.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얼마나 좋아.
남성 2: 하긴. 우리 나이에는 인제 그렇게 해야 돼.

[사례 7]
"저희가 집이 둘 다 멀어서 자주 오지는 않는데, 마켓 한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 보통은 뭐 먹으러 가고 영화 보거나……여기는 좀 데이트가 질리거나 뭔가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는 것 같아요. 오니까 먹을 것도 다른 데 잘 안 파는 것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좋은데요. 아직 저기(마켓 쪽을 가리키며) 구경은 못 했어요. …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하고 신기한 음식들이 한 군데 있다는 거. 백화점처럼 둘러보고 이것저것 사올 수 있잖아요."

인용 문헌

강영애, 이지윤, & 이수. (2013). 수변공원에서의 회복환경지각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8(3), pp. 353-373.

곽재민. (2016).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건태. (1986년 6월). 포커스: 되살아난 한강. *월간 2000년*, pp. 77-80.

김도경 · 최원만 · 홍형순. (2008).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6(2), pp. 14-23.

김상황 · 윤대식 · 김갑수. (2004). 도시 여가활동의 참여행태 및 요인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2(3), pp. 41-48.

김영미. (1987년 7월). <한강시민공원> 열심히 찾고 아끼는 길만 남았다. “월간 체육”(통권 227호).

김영식 · 이근배. (1986년 12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한강시민공원, 관리와 이용 실태. “월간 2000년”, pp. 110-113.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체계.” 서울: 한울.

김정은. (2017). 유원지의 수용과 공간문화적 변화 과정: 창경원, 월미도, 뚝섬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147-148. 서울대학교.

김태근. (1992년 7월). 색다른 한강시민공원 이용법. “월간 2000년”, pp. 102-106.

김현지. (2015).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과 의미 해석(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효경. (2010). 서울숲의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정적 · 동적 행태 분석(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김희우. (1987년 7월). 한강 고수부지 공원 계획 및 공사 현황. “환경과 조경”(15), pp. 109-113.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2016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미애. (1995). 국민학교 소풍장소의 확대방향에 관한 연구: 한강시민공원 소풍장소 활성화 방안을 사례로. 서울대학교(석사).

박영민 · 김남주. (2001). 르페브르의 공간변증법., 국토연구원 (편집자),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pp. 470-481). 서울: 한울.

박윤미. (2012). 선유도공원의 공간 소비 양상과 변화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영애. (2015).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1996).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2005).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이미지 비교.“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1983).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보고서(요약).”
서울특별시. (1995). 1995년도행감(수자원관리).
서울특별시. (2015).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2017). 여의나루국제설계공모 설계지침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 “한강관리사.” 서울: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송지연. (2014).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행태특성 및 만족도 분석: 한강르네상스 특화사업 1차 완료 대상지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송지연, & 박진아. (2013).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자 활동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반포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도시설계)”, 14(4), pp. 43-54.
윤지환. (2011).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에 관한 연구: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2), pp. 233-256.
이강원. (2004). 담을 두른 공원: 탑골공원을 통해 본 도시 공공공간의 의미(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수연. (2009). 남산 내 공원의 시대적 변화 분석을 통한 공원활용의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29(1), pp. 415-418. 대한건축학회.
이정섭. (2014). 여의도 한강공원의 피크닉 장소 이용행태와 결정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혜민. (2010). 도시공원의 변모과정에 대한 공간정치적 해석: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임번장. (2004). “사회체육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승빈. (2007).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서울: 보문당.
임승빈 · 주신하. (2010). “조경계획 · 설계(개정판).” 서울: 보문당.
장유정. (2015). 불러 보자 <귀국선> 춤춰 보자 <강남스타일>: 가사로 본 한국 대중가요의 변천. “새국어생활”, 25(4), pp. 77-106.
장정일. (2005).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 파주: 김영사.
전영임. (2004).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한 한강시민공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여의도지구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정영선. (1990).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시자연공원과 조경가의 역할.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18(2), pp. 165-167.
정유선. (2013). 노인의 일상 여가장소 이용행태와 선택요인: 서울 종묘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경진. (2007). 공원문화의 현실과 지평: 서구와 한국의 공원이용 변천과 비교를 중심으로. “환경논총”, 45, pp. 33-54.
조정송. (1983년 6월). 도시 미관과 어울리는 건축도 아쉬워. “월간 2000년”, pp. 71-72.
최정민. (2006). 신자유주의 시대의 조경. , 봄조경비평, 봄, 조경 사회

디자인 (pp. 34-61). 파주: 조경.
최정우. (2008). 한강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9(4), pp. 53-7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스포츠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체육백서."
한승백. (2006). 생활체육공간으로서 한강시민공원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황기원. (2001). 서울 20세기 공원 · 녹지의 변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황기원. (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LefebvreHenry.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자) 서울: 에코리브르.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강승규 (1993년 4월 20일). 「달동네」 81곳 98년까지 再開發. *경향신문*, p. 20.
경향신문. (1981년 1월 6일). 朴市長, 始務式서 밝혀 漢江高水敷地일대 體育公園으로 開發. p. 6
경향신문 (1989년 5월 27일). 市民空間을 시민에게. p. 2.
고승철 (1986년 12월 29일). 取材데스크 送年좌담 底力으로 試鍊이긴 한해를 돌아본다. *경향신문*, p. 3.
김경제 (1994년 4월 26일). 자전거도로 예산만 낭비. *동아일보*, p. 27.
김광수 서울시의원 "한강에 음식물 배달존... 환경보전 포기행위". (2017년 11월 10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0500031
김근철 (1993년 6월 23일). 잠실한강공원 저녁땐 가족단위 산책 人波. *경향신문*, p. 20.
김동권 (1993년 4월 20일). 도시高速道 6월부터 구간별 개통. *매일경제*, p. 25.
김명수 (1986년 9월 8일). 漢江축제 내일 전야제. *경향신문*, p. 10.
김병호. (2000년 7월 26일).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에 키큰나무 심는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00&no=92559

김용재 (1987년 6월 17일). 새 漢江 10개월 어떻게 달라졌나. *경향신문*, p. 10.
김용재 (1989년 5월 25일). 漢江공원 밤만되면 "無法天地". *경향신문*, p. 13.
김충근 (1990년 07월 19일). 여름 江바람...낭만의 뱃길...漢江避暑유람. *동아일보*, p. 17.
매일경제. (1981년 09월 07일). 漢江邊 体育공원 마무리作業 박차. p. 11.
박경아. (2009년 2월). 잠실과 마곡, 수변공간의 재탄생. *신동아*. Retrieved from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8253/1
박문규 (1994년 7월 29일). "열대야 탈출" 한강고수부지 휴일엔 10萬. *경향신문*, pp. 21.
박문두 (1988년 8월 22일). 뚝섬 漢江축제 10시간 마라톤 公演. *동아일보*, p. 10.
박성수 (1988년 9월 9일). 88慶祝 대규모 漢江축제 펼친다. *경향신문*, p. 9.
박진형. (2017년 8월 8일). [르포] 쓰레기 넘치는 한강공원, 서울시 특별대책 어디갔나. *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8/05/2017080500006.html
박진환 (1990년 1월 25일). 한해의 꿈 鳶에 실어 드높이. *경향신문*, p. 10.
소경출 (1992년 6월 22일). 漢江공원 매점 바가지 시중보다 2倍나 받아. *동아일보*, p. 15.
안재승 (1990년 8월 9일). 한강공원 시민들 사랑 '듬뿍'. *한겨레*, p. 13.
오철우 (1994년 7월 25일). 열대야…집을 버린 사람들. *한겨레*, p. 18.
이상기 (1989년 6월 7일). 한강변공원 시민쉼터로 각광. *한겨레*, p. 9.
이승철 (1986년 9월 10일). 수심 깊어지고 貯水量 늘어났다. *경향신문*, p. 7.
이승철 (1986년 9월 10일). 인터뷰 漢江개발 사령탑 安相英 건설본부장 "治水 달성…公園化는 이제부터". 경향신문, p. 6.
「漢江청원경찰」 公採. (1989년 7월 3일). *경향신문*, p. 13.
조병철 (1989년 5월 31일). 한강공원 순찰强化 民正, 관리공단신설. *경향신문*, p. 2.
하성봉 (1991년 4월 23일). 한강 시민공원 대중 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한겨레*, p. 10.
한강공원에 인라인 전용도로 25km 조성. (2005년 6월 3일).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317.html
한강둔치에 나무그늘 생긴다...서울市 2004년까지 조성. (2000년 7월

27일). *한국경제*. Retrei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60429
한강변 간이매점 설치 철거 노점상들에 임대. (1989년 8월 3일). *동아일보*, p. 13.
한윤정 (1993년 4월 29일). 자전거 타기운동 실효성없고 사고위험 높다. *경향신문*, p. 20.
홍은택 (1991년 9월 13일). 낯뜨거운 狂亂 지난 아침은 「쓰레기천지」 脫法 질서파괴 일삼는 市民의식도 문제. *동아일보*, p. 18.
홍은택 (1991년 9월 13일). 내팽개쳐진 한강市民공원. *동아일보*, p. 17.
홍찬식 (1980년 7월 9일). 롤러 스케이팅 · 스케이트 보드 「아스팔트 레저」 붐. *동아일보*, p. 5.
황인희. (2017년 8월 3일). 서울시,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 개최. *시니어신문*. Retreived from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4

최재원. (2015년 5월 28일). “한강”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분석. “한발 빠른 경제뉴스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 질문자) YTN 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허브 mediahub.seoul.go.kr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한강사업본부 hangang.seoul.go.kr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월간 2000년
한겨레

김진호 (2013). 한강애.
백승환 (2015). 한강.
산이 (2016). 달고나.
스타트랙, 슬리피, & 송지은 (2015). 쿨밤.
심현보 (2015). 한강에서 놀아요 [녹음: 딕펑스].
태완, 개리, & 크러쉬 (2013). 어디 갈래.
한민세, 크래커, & 제이키 (2017). 나와 [녹음: 롱디].

SOLE, THAMA, & RIDE (2017). RIDE [녹음: SOLE].
11시11분, & 동경소녀 (2015). 한강로맨스 [녹음: 동경소녀].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Hangang Park b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User Behavior

Park Sanghe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is social space. It is not inanimate, as its meaning gets continuously reproduced by those using the park even after its creation. On the surface the physical shape of the park and usage patterns seem as if they are determined soley by a superior authority according to social circumstances and ideologies. However, activities of users which originate from their lifestyle, trend of leisure, cultural interest and so on also impact the reproduction of its meaning.

The idea for this study sprang from noticing the phenomenon where user behavior of Hangang Park appears unique and to have excessively wide range, compared to other urban parks. I viewd this distinction to be neither static nor temporary. Rather, I viewed this as the 'difference in park culture' arising from accumulation and the consequent establishment of user behavior. Therefore, the study is aimed at figuring out how and why the user behavior of Hangang Park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parks, through diachronical study

of its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causal relationship' and 'accumulation of changes'.

Hangang Park has been going through dynamic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both its creator and maintaining authority and its users. The action of the authority was alway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situations at that time, and that is why there were many different management plans reflecting political situations and social issues. In principle, according to these plans the park has been managed. In addition, also strongly influenced by its users, the park was where user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issue or cultural fashion, immediately appeared. This was a prime mover of conflicts, whether direct or indirect, over decades, and resulted in changes where the park fully or partly embraced the users' behavior or needs.

This, basically, comes from Hangang Park's nature that it is not simply a park but a combination of river and park. As it is indivisible from Han River since it was built over riverfront, it is lent properties of Han River. In the authority's perspective, therefore, the park has been a place and means for materializ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because of its geographical status and symbolism. In users' perspective, they perceived the park as a place of liberty for their amusement rather than a normal urban park under observation and control of city.

Now we are at a turning point where viewpoint regarding user behavior in parks is slowly changing. This study shows its value in that it analyzed forming process of user behavior in Hangang Park from social perspective.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reasons for the distinguishing process of production of Hangang Park—accumulation of 'conflicts' and 'adjustment'—by analyzing its user

behavior.

At last, it was verified that, for a park, Hangang Park is wher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are being reflected the best and the fastest, and it could easily be reasoned that it will be in the future as well; few physical limitations on activities within the park, the image of amusement park which frees people from rules and control, and its flexible managing system make it so. We, thus, all could use Hangang Park as a window into the society and culture of our times.

Keywords : Hangang Park, User Behavior, Park culture, Social space, Conflicts and adjustment, Accumulation of changes.
Student Number : 2016-24085